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BY CHARLES DARWIN, M.A.

개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

김재욱 지음



만물에 새긴 절대자의 서명은 오직 성경적 창조론을 향한다

지상 최대의 가짜 뉴스 '진화론'과 21세기의 영지주의 '유신진화론'을 파헤친 책!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

지은이 / 김재욱

Copyright ©

2024년 7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 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비매품(www.KeepBible.com에서 무료 다운로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앙 없는 불신자가 암흑 속을 걷는 것이라면
창세기를 믿지 않는 신자는 안개 속을 걷는 것이다.”

— J. W. Kim —



추천사	6
발간사	14
머리말	16
일러두기/저자 소개	20

1부 | 창조와 지적 설계

창조론의 증거를 대보라고요?	22
창조의 원리를 말한 뉴턴의 명언	29
돌연변이는 어떻게 암세포가 될까?	32
상상 초월, 문어의 놀라운 지능과 기능	35
‘마기꾼’과 황금수에 담긴 창조의 원리	40
마이크로 월드, 누가 만들었을까?	48
눈(snow)의 육각 결정과 ‘눈의 공간’	52
흑인, 백인, 황인은 어떻게 나뉘었을까? (인종의 기원)	56
실생활을 통해 본 ‘설계’의 당연한 이치	61
만물에 새긴 절대자의 서명	64

2부 | 진화론 반박

‘오락가락’ 온라인 과학 뉴스가 가리키는 진실	68
자동차와 세포만 비교해도 답 나오는 진화론	76
인간 계놈 권위자의 인종에 대한 편견	81
지상 최대의 가짜 뉴스	84

리처드 도킨스 내한, 다수의 '망상' 진화론을 말하다	88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진화론	92
UFO는 없어도 외계 생명체는 확실히 있다?	95
거짓말쟁이 소년의 위대한 성공	103
공룡 축제, 판타지에서 깨어나라!	107
패륜의 시대가 들려주는 메시지	112
진화론자들에 의해 동물원에 전시되었던 비운의 사람들	118
돼지와 원숭이의 역설: 지능은 외모순이 아니잖아요	123
물고기 지느러미가 손으로 진화했다?	129
스마트폰 많이 해서 뒤통수에 뿔이 난다고?	135

3부 | 유신진화론 비판

유신진화론자들의 적은 누구인가?	142
지성에서 어긋난 영성으로?... 이어령의 창조관과 성경관	154
빌리 그레이엄의 또 다른 오류, 유신진화론	167
창조론을 표방하는 신(新)유신진화론자들	174
종교 다원주의와 과학 다원주의	184
21세기의 영지주의 '유신진화론'은 기독교가 아니다	192
유신진화론자 팀 켈러의 위험한 창조론	200
신학대학 교수 징계 시도와 유신진화론 논란	212
에필로그	221



유신진화론의 영향으로 창조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교육받기 때문에 우주와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자연에서 발생해서 진화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진화론 교육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창조인가, 진화인가?’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탈출구가 창조와 진화를 타협하여 혼합한 유신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유신진화론은 신앙의 자유도를 키워 주기 때문에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식인들과 다음 세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관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반면에 성경적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본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집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타협적 세계관을 갖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삽니다.

김재욱 작가의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은 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중학생 이상이면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진 책입니다. 작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누구나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성경적 창조가 사실임을, 반면에 진화론이 지식적으로도 황당하고 반과학적인 추상적인 가설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3부 유신진화론 비판’에서는 유신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신학적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비평했습니다. 나아가, 복음주의자라고 하지만 유신진화론을 믿고 지지하는 대표적인 목회자와 학자들을 통렬하게 비평했는데, 신실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거나, 유신진화론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유명한 복음주의 유신진화론자들의 영향 때문에 성경적 창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 한운봉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석좌교수
한국창조과학회 7대 회장 역임
IBC 선정 세계 100대 과학자 4회 등재

원숭이는 원숭이요, 인간은 인간이로다… 당연한 진리를 시원하게 풀어 주는 책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난해한 질문이라면 진화론일 것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 을 통해 주창한 진화론은 1859년을 기점으로 기독교인들의 창조론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주장은 미생물인 유기 물질에서 우연히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다시 돌연변이를 거쳐 어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변이를 거쳐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조개나 생선이나 개구리나 토끼나 사슴, 코끼리 등 수많은 종류들, 그 모양 그대로 변이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속된 변이들이 쥐라기와 백악기를 거쳐 대멸종을 맞아 공룡은 사라지고, 포유류를 거친 유인원(원숭이 중 인간에 가까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긴팔원숭이 등)이 인간의 조상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공룡 발자국과 인간 발자국이 함께 찍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허허! 결론적으로 모든 종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형태의 고유한 DNA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3일째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해 채소가 변해서 과일 등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그 종이 분류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아이콘이 ‘돌연변이(突然變異)’입니다. 유전자를 이루는 염기 서열이 변화하면서 유전 형질이 변한다는 것인데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는 나와야 하지 않나요?

누가 말했지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당연한 진리 아닌가요?

“원숭이는 원숭이요, 인간은 인간이로다”

유럽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급감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물결이 한국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방관된 기독교의 위태로움에 여기 김재욱 작가의 신선한 바람을 맞아 보십시오. 그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자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며, 평신도들의 의구심으로 생긴 목마름을 시원한 여름 빙수처럼 날 날이 풀어 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정독해서 진화론에 대처해야 하며 나아가 이 상식을 모아 지혜롭게 전도에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 김승학 수원 새빛교회 장로

전 사우디 왕실 한방주치의

떨기나무(두란노), 떨기나무 2(생명의말씀사) 저자

자유주의 신학과 과학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구와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면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원리들을 알고 적용하는 것, 즉 과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잘 순종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과학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몰아냈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과학적 연구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실험으로 관찰, 재현이 가능한 실증 과학에 적용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밝히려는 기원 과학, 즉 빅뱅론과 진화론은 관찰,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빅뱅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코 사실로 증명될 수 없으며 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김재욱 작가의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고 간결하게 기술합니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증거들을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유물론, 무신론,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 진화론이 하나의 생물학적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화론은 신앙의 영역까지도 넘어왔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진화론에 끼워 맞추는 유신진화론이 그 단편적인 예입니다. 저자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예를 통해 유신진화론의 신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과 그에 대한 해석을 계속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날이 힘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과학주의 역시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꼭 필요한 책을 쓴 김재욱 작가와 이를 발행한 그리스도예수안에 심심한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거짓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이종현 교수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과학과 바른 신앙의 필독서로, 나아가 세계관 정립을 위한 입문서로

책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책 내용이 그 사람의 얼굴이자 명함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관점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저자가 신앙의 소유자이면 그의 지식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가치관의 기준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시대를 인도하고 앞서가는 보편성을 갖추고, 모순된 세상을 향해 무릿매를 던질 수 있다면 침병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책이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임을 의심치 않는다. 본문의 ‘기-승-전-경(經)’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칫 과학적인 내용이 딱딱하게 흐를 수 있는 어려움을 해학으로 풀면서 독자의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도 재치 있게 담고 있음을 보았다.

현대와 고전을 오가며 씨실과 날줄을 이어 가는 것 같은 정교한 정보 가공은 모든 이의 메모장을 열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특별히 과학과 신앙의 경계선을 넘나들지만, 두 영역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모두를 아우르고자 하는 저자의 치밀한 구성도 백미로 여겨지는 한 부분이다.

100% 창조론과 100% 진화론을 사이에 두고 시소를 타는 듯한 유신 진화론의 사상적 돌연변이의 오류를 들추어내는 글의 행간에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 빛은 올바른 과학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작가의 진심 어린 사랑의 언어로 승화되어 모든 독자에게 당근과 채찍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학을 위한 필독서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한 필독서로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세계관 정립을 위한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는 교양서임을 밝히며 추천한다.

- 김오현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연구소장
충신대학교 외래 교수



바른 과학으로 많은 성경 신자가 배출되기를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마치 동그라미는 네모나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직접 모든 것을 종류별로 창조하지 못하고 자연 과정을 통해 진화가 일어나게 내버려둠으로써 지금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가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으며 나중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채여 올리거나(휴거)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6일(하루는 지금의 24시간) 동안 이루어진 직접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참 신과 가짜 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에서 멸망하겠고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렘 10:11)

앞뒤 문맥상 이런 말씀은 직접 창조를 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이며 따라서 유신진화론이란 있을 수 없는 허구임을 명백하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창조(mature creation)’를 이루십니다. 아담이 창조된 순간 그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2-3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나이는 불과 1초입니다.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이렇게 ‘성숙한 창조’로 이루어졌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과정에 수억 년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 진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 11:3)

이 말씀은 유신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이며 불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서 마귀는 진화론, 유신진화론 등의 헛된 상상을 통해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진부한 책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부하게 보이는 성경, 특히 창세기는 온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의 생성을 보여 주는 유일하고도 진실한 기록입니다.

이번에 김재욱 형제님이 지은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의 거짓을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박사 학위 등을 가진 고등 학자들의 수준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Bible believer)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책에 손을 얹어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를 드러내는 귀중한 말씀의 검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정동수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랑침례교회 목사



과학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비진리의 미혹 앞에서

창조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렬한 제목에 놀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명백한 사이비 과학입니다. 그리고 유신진화론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교묘한 회색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유신진화론자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짓 과학인 진화론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다른 복음이니 돌이켜 성경적 창조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고, 그것이 어찌다 만물을 이루었다는 상상도 황당하지만, 종간의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관찰 가능한 현상인데,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비상식을 믿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진화론을 과학으로 알고 성경에 접목하면서 창세기 앞부분을 신화와 상징으로 폄하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울분으로 글을 썼습니다.

진화론과 다름이 없는 유신진화론이 생각보다 빠르게 교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

고, 또 잠잠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틈틈이 쓴 글들입니다. 또 창조과학 강연 때 다른 내용들과 기존의 책들에 발표하지 않은 글들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1부 ‘창조와 지적 설계’에서는 창조 섭리에 나타난 자연의 신비와 창조과학적 증거들을 다루었습니다. 2부 ‘진화론 반박’에서는 진화론의 황당하고 논리를 벗어난 주장들을 반박했습니다. 3부 ‘유신진화론 비판’은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하는 유신진화론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창조론 지식을 지닌 분들이 많지만 한 번 더 곱씹는 의미로 읽어 보시고, 특히 유신진화론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틈틈이 쓴 글이라 쓸 때마다 중요해서 강조한 중복되는 개념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서 일부 축아 냈지만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과학과 진화론은 과학자에게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비전공자들에게 더 쉬운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마귀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뒤틀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과에 약한 사람이기에 과학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평소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 피부에 와닿을 예시와 비유와 시각적 자료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이 책도 PDF로 배포되는 장점을 살려 많은 컬러 화보를 함께 편집했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신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몇 개의 삽화가 있는데, 해당 글은 월간지 <건강과생명>에 그림과 함께 연재했던 원고입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복음과 의학을 함께 전하는 각 분야 전문의와 목회자 등이 함께 만드는 귀한 책인데,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저는 사단법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와 설립 초창기부터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화론 관련 내용을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수정하도록 국가에 개정을 청원하고, 잘못된 진화론을 바로잡고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도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이루었고, 지금은 수능 시험에 노골적인 진화론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CMS 한 계좌 1만 원 후원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www.str.or.kr).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니듯이 창조과학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과학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잘못된 과학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거짓이나 신화로 만드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믿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말씀을 부정하는 진화 가설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 속이 상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나 짧은 연대에 관한 확고함은 저의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출판사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과학자나 신학자, 또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서 책을 내기가 힘든 주제들도 섞여 있어 묻히기 쉬운 원고들인데, 이렇게 무료 배포하는 책자로 엮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예수안에 정동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꼼꼼하게 교정을 해주신 김지훈 형제님과 최병찬 형제님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부족한 책에 기꺼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나노과학자 한윤봉 교수님은 놀라운 업적에도 창조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추천과 함께 과학적 검수를 해주셔서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시나이 반도의 진실을 발로 뛰어 파헤친 『떨기나무 1, 2』의 주인공 김승학 장로님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의 성경 고고학에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종현 교수님은 평

소 진화론과 유신진화론 문제를 용기 있게 지적하시는 분으로 제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조언하며 격려해 주셔서 책에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교진추의 김오현 연구소장님은 지구의 연대 문제나 창조과학 분야에서 진화론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사실 그간 많은 분들이 제 책들에 추천사를 써 주셨지만, 워낙 교계에서 유신진화론자들과의 논쟁이 민감해서, 또 제 글이다소 강경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천사를 부탁드리는 것이 송구한 마음이었는데, 모든 분이 흔쾌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 또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도 안심하고 읽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두실 부분은 한윤봉 교수님과 김승학 장로님, 김오현 소장님은 출판사와 무관하며 저의 부탁으로 오직 원고의 내용에 동의하신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굳이 밝힙니다만, 요즘처럼 유신진화론이 득세하는 위기의 시대에 이런 책을 출간하는 소신이 어찌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부디 독자들께서도 이 책이 정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창조론이 왜 유일한 진리인지, 일상의 언어와 상식의 눈으로 변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그 증거를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긴 내용을 통해 단 한사람이라도 잘못된 정보에서 돌아서고, 당연한 진리에 눈을 뜨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6월 김재욱 드림



일러두기/ 저자 소개

- 이 책은 성경 전체와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는 입장에서 집필했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짧은 연대를 지지하며, 한국창조과학회의 입장과 큰 틀에서 같습니다.
- 붉은색 고딕체 성경 발췌문은 모두 그리스도예수안애가 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마제스티 에디션)입니다.

김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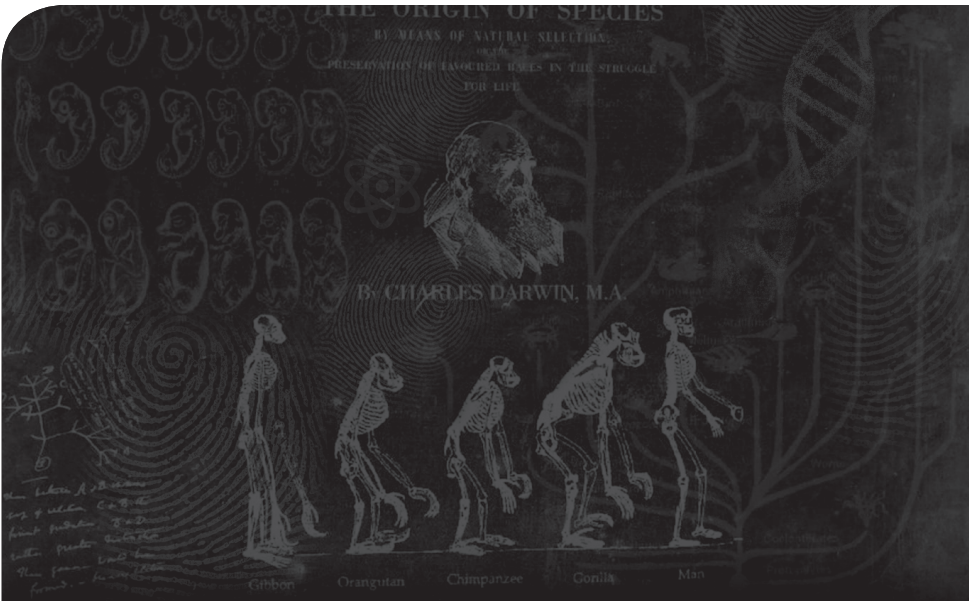


프리랜스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인 저자는 글쓰기, 그림, 도서 기획 등을 함께하며 창조과학과 진화론 반박, 복음 변증, 종말론, 성경 교리, 연애와 결혼, 미디어 분석 등을 주제로 40여 종의 책을 출간했다. 저서 중 창조과학 도서 3종이 기독교출판문화상(2009, 2010, 2011)을 수상했다.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이사로 출판팀을 섬기고 있다. 과학의 개념을 쉽게 안내해 온 저자의 이번 책은 그간 쓴 다른 책들 외에 블로그에 틈틈이 쓴 내용과 강연 때 발표하는 내용을 묶어 시각자료와 함께 편집한 것이다.

주요 저서

- 1318 창조과학 A to Z/ 1318 신앙질문 A to Z/ 1318 고민상담 A to Z/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 1318 신앙 멘토 스쿨/ 1318 성품 스쿨/ 1318 매너 스쿨/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1·2 한컷만화 창조과학 100/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내가 왜 믿어야 하죠?(이상 생명의말씀사)
-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구원열차 구원방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상 그리스도예수안애) • 영화 속 진화론 바로잡기(라운누리)
- 연애는 다큐다(국제제자훈련원) • 사랑은 다큐다(헤르문) • 독자를 설득하는 쉬운 글쓰기(필로)
- 예수님의 천국 초대장/ 교회사를 관통한 결정적 장면/ [개정증보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이상 하은)

▶ **블로그** www.blog.naver.com/woogy68 ▶ **이메일** woogy68@naver.com



1

창조와 지적 설계



하늘들의 하늘들이,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영원무궁토록 굳게 고정하셨으며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시 148:4~6)

창조론의 증거를 대보라고요?

과학의 자리를 굳이 고집하는 진화론

창조론자가 진화론의 모순을 드러내려면 진화론자들의 오류와 조작과 비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외로 진화론자들의 적은 진화론자들이다. 진화론은 거짓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며, 그 가설들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서로서로를 반박한다.

내가 전에 진화론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와 협력해 집필했던 책이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생명의말씀사)였다. 진화론을 신봉한 유명인이나 과학자들의 말 200여 개를 출처와 함께 공개하면서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 준 책이다. 그들이 했던 말은 무지, 비약, 오류, 가정, 조작, 그리고 정신승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진화론의 오류를 드러내면 진화론자들은 다양한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론에 힘이 없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가설 위에 가설을 더해 완성한 이론이며 상상력의 표현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요렇게 저렇게 됐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 수 있



는데, 지금의 생물과 자연이 바로 그 ‘어떤’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창조론도 똑같은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물론이다. 우리 역시 창조의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처럼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새가 되는 중간 단계다”라는 식으로 우기지 않는다. 만물이 창조의 증거라고 말할 뿐이다. 진화론자들도 그저 만물이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 믿음의 영역이며 기원에 관한 답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가짜 증거, 부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화의 증거이자 흔적이라고 우기면서 ‘그것만이’ 과학이라고 한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진화가 다 거짓이라고만 하지 말고, 창조론의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시죠.”

충분히 물을 만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생물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창조됐다고 (현대 과학의 언어로) 우리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답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기원 과학은 믿음의 영역이며 해석의 체계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도 없다.

‘참된 것’이 왜 참인지 증거를 대라고 하면 답하기가 애매하다.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나는 나인데, 당신이 당신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신분증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다 하면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진짜 그가 만든 거라고 해도, 오히려 다른 작품을 모방한 거라고 우기면 믿게 할 방법이 없다. 천경자 화백의 위작 논란에서, 천 화백 본인이 결코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 위작이 진품이어야만 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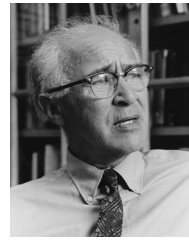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 같은 명필이 자기 작품을 인증하러 매번 시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데, 천만 명이 의심하면 천만번 재연해야 할까? 사람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더 보여야 할까. 모든 정황을 통해 이 세상이 저절로 존재하거나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 설령 보여 주신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자기 눈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단 두 개의 가능성

생명의 기원은 여러 가능성이 없다. 선택지가 없어서 창조-진화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자주 인용한 내용이지만 1967년 노벨상 수상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지 월드(G. Wald)의 말을 다시 빌려 본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신의 초자연적 창조 혹은 우연 발생 진화. 이외의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루이 파스퇴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신의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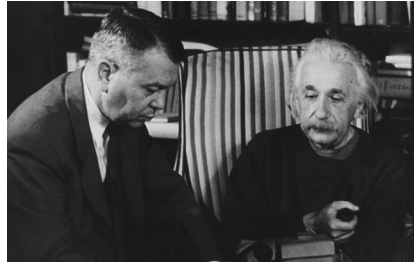
조지 월드

그는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파스퇴르의 생명속생설, 즉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나온다”라는 결론으로 입증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창조론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답은 오직 두 개. 진화론이 무너지면 특별창조가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신을 죽어도 못 믿겠다는 조지 월드 같은 사람은 증거가 없고 불가능한 진화론을 ‘믿겠다고’ 말한다. 다른 선택은 존재할 수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

해럴드 유레이(유리, H. Urey)는 ‘밀러의 실험’, 즉 지구에서 생명체가 시작된

1. George Wald, “Innovation in Biology”, Scientific American, Vol. 199, (1958)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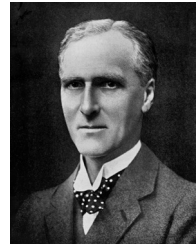
상황을 설정한 전기 실험에서 생명과 무관한 아미노산을 추출해 낸 스탠리 밀러의 실험(1953)을 지도한 스승으로 노벨상 수상자다. 진화론자인 그는 생명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자연 발생과 진화가 하나의 신앙적 관점임을 시인했다.



1940년대에 아인슈타인을 만난 유레이(왼쪽)

생명의 근원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어디에서나 진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조향으로서 생명체가 이 지구상의 생명에 없는 물질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복잡성은 너무나 커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²

이는 조지 월드의 말과 같은 것으로서, 인류학자이면서 필트다운인 화석 조작 사기극을 벌인 찰스 도슨의 지원자이기도 했던 아서 키스(Sir. A. Keith)의 말과도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다.



아서 키스 경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창조가 바로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³

진화론은 이 발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들은 폭력적이고 도발적으로 진화론을 인정하라고 엉뚱한 자리에서 강요하는 거다. 그것이 진리이면 증명하고 설득하면 된다.

2. Harold C. Urey, Christian Science Monitor (1962. 1)

3. Sir Arthur Keith, forward to the Thoth anniversary edition of Darwin's book, The Origin of Species (1959)

진화 이론이 주장하는 그들만의 논리 체계

진화론이 얼마나 다양하고 체계적(?)인지는 잘 알고 있다. 왜 다양한 학설이 계속 등장하고 심지어 그것을 모두 모은 현대종합설까지 등장할까...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그 이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연구나 주장이나 체계가 필요 없다. 이론의 방대함은 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진화론자들의 학술 발표나 연구 과정이 무언가 자연의 기원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밝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하는 것은 거대한 자연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추정하고 상상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한계를 고백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가설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난센스 퀴즈에 답변하는 일과 비슷하다.

“걸어서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은?”

답은 이렇다. 일단 바다에 한 발을 내딛는다. 그리고 빠지려고 할 때 재빨리 다음 발을 내딛는다.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내딛는다.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말이 된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 아닌가? 진화론이 바로 이렇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엇이든 대답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 방법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매우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실현되는 방법이다. 사람이 걸어서 태평양을 건너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상보다 더 자주 끊임없이 일어나야 비로소 진화는 ‘가능’하다.



가장 많은 독자를 거느린 SF 작가 중 하나인 아이작 아

아이작 아시모프

시모프(I. Asimov)는 그의 단편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존재를 입증(?) 했다. 먹이가 어떻게 거위의 배 속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알껍데기를 금으로 만드는지 설명한 것이다. 설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소설이다. 현실에는 그런 거위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현실이 돼서 단편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기록한 장편이 되면 비로소 진화론은 가능한 논리가 된다.

동전의 양면은 둘 다 보여 줄 필요 없어

창조와 진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불가지론이 아니라면 둘 중 하나가 답일 수밖에 없다.



500원 동전을 던져서 두루미가 나왔으면, 반대편이 숫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동전은 굳이 양쪽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동전으로 승부를 결정할 때 심판이 한쪽을 보여 주면 그만이지, 다른 쪽까지 봐야만 인정할 사람은 없다.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창조와 진화도 양쪽이 다 진실일 수 없다. 한쪽이 진실이 되는 순간 다른 쪽의 진실은 탄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증명하든지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다. 창조와 진화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창조론은 저절로 사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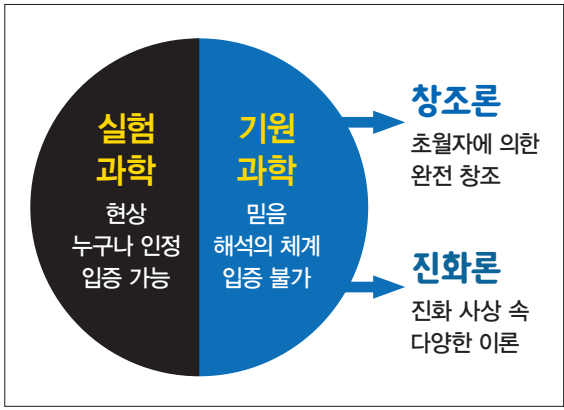
진화론자들도 스스로를 입증하거나 창조론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창조론은 실험 과학의 자리를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직 진화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들이 그것을 유일한 과학으로, 실험 과학의 영역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다.

두루미 반대편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려면 조지 월드의 말처럼 ‘불가능한 것을 믿는’ 수밖에 없다. 또 조지 월드는 긴 시간이 기적을 불러오고,

그 긴 시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전을 관찰하면 양면이 똑같은 동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두루미의 반대편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대편이 항상 숫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확률상 0.000000000000001%라도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물질과 생명이 저절로 탄생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100%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항변이 진화론의 존재 명분이다.

창조의 증거는 도처에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것의 기전을 과학 논문으로 써서 보여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억지로 진화론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러므로 입증은 그들의 몫이며, 입증에 실패하면 창조론은 저절로 사실이 된다.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최소한 지적 설계론까지는 와야 한다. 그래야만 양심이 있는 것이다.



기원 과학은 믿음의 영역이며 해석 체계인데,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유일하게 입증된 과학인 것처럼 포장한다.

의외로 창조-진화 논쟁은 어렵지 않은 문제다. 중대한 선택일수록 다양한 가능성은 없어지고 극명한 선택만 남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이다 갖는 게임이다. 창조인가, 진화인가. 어느 쪽을 믿든지, 어느 쪽을 입증하든지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양쪽 모두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㉞

창조의 원리를 말한 뉴턴의 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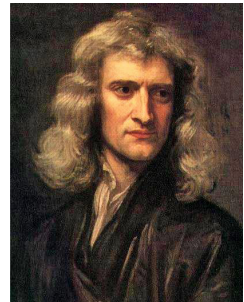
동물의 몸이 어떻게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지고, 여러 기관들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했는가? 광학적 기술 없이 눈이, 소리에 대한 지식 없이 귀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기관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있는 지성적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 아이작 뉴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뉴턴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약을 만들고, 소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스피커나 이어폰을 만들 수 있겠는가.

꿀벌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벌에게 꿀을 제공하는 꽃은 어떻게 씨를 퍼뜨릴 수 있을까? 벌과 곤충과 바람이 없다면 꽃은 자기들끼리 수분을 할 수 없다. 그 매개물들 없이 꽃이 어떻게 처음부터 존재할 수 있을까?

벌은 꽃 없이 살 수 없고 공기와 바람 없이 날 수 없다. 모든 만물은 이처럼



아이작 뉴턴

공생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긴 세월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간단한 생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작은 진화나 진보도 이룰 수 없다. 자손을 퍼뜨릴 수 없는 기형적 상태나 부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더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을까?

곤충이 알에서 깨어난다면 그 알은 누가 낳을까? 완전하지 못한 곤충이 알을 낳을 수 없는 것이니 처음부터 완전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곤충이 완전하게 존재하려면 물, 공기, 먹이, 터전 등이 처음부터 전부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쥐덫처럼 간단한 도구도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해야 기능을 하듯이 기계도 때론 나사 한 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 볼트 하나 때문에 KTX가 탈선하고, 전선 하나를 잘못 연결하면 비행기가 추락한다. 액션 영화에서 시한폭탄을 제거할 때도 빨간 선인지 파란 선인지 정확히 선택해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복잡한 생물이 과거에는 매우 단순한,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공통 조상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랬다면 어떤 생명 진화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순한 생물에서는 결코 현재의 상태로 발전할 수 없다. 이 개념을 지적 설계론에서는 '환원 불가능의 복잡성'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라도 빠진 (진화의) 전 단계로 가면 생물이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생물은 한 번도 단순했



벌이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수분하고, 꽃이 없으면 벌은 어디서 꿀을 취할까? 만물은 진화가 아니라 일시에 존재해야 한다.

던 적이 없고, 그런 증거도 전혀 없다는 뜻이다.

진화론에서는 원시 세포라든지 원시 지구 같은 가설을 말하지만, 어떤 근거도 없는 추론이다. 세포의 형성 과정을 말하는 ‘오파린의 가설’ 같은 것도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다. 세포는 원시 형태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갈 수 없고, 처음부터 완전해야 세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세포조차 엄청나게 복잡하다. 우리 몸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고, 영양소를 전달하고, 독성 물질을 청소하고, 자체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세포들과 연락하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다윈 시대의 진화론자들은 세포의 구조조차 몰랐고, 그저 탄소의 덩어리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정보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인류와 생물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 그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아이작 뉴턴의 통찰력이 과학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훨씬 더 깊은 진리일 것이다. ⚙

돌연변이는 어떻게 암세포가 될까?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 즉 염기서열의 변화로 유전 정보가 변하면서 유전형질이 달라지는 변이 현상이 진화의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얼핏 생각하면 무언가 다른 것이 되었으니 계속 다른 것이 또 나오고 나오다 보면 진화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나 물질이 나타날 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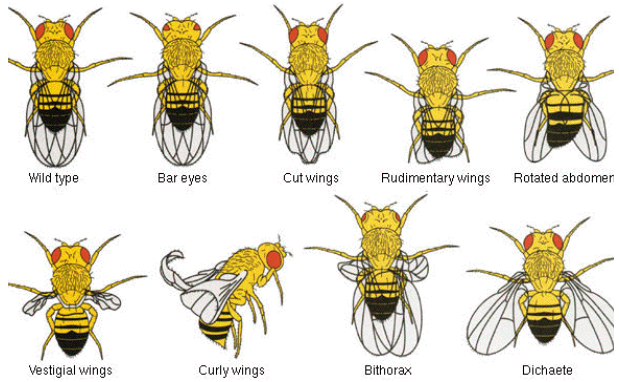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돌연변이 세포에서는 진화와 관련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돌연변이가 복구 또는 수리될 수 없을 정도로 축적되면 변이 세포를 죽이는 세포 사멸(apoptosis)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변이된 상태로 세포가 유전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부상으로 낙오한 병사가 자신이 부대원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비슷해서 이 현상을 세포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돌연변이의 복구도 세포 사멸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세포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가 된다. 암세포는 파괴와 죽음의 세포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성 돌연변이가 다른 종으로 변해 진화를 주도하겠는가?

돌연변이가 없으면 진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초파리를 방사능 충격으로 급히 번식시키는 실험을 했다. 그러나 천 세대가 넘게

번식된 초파리들은 단 하나도 더 나은 존재가 없었다. 모두 몸이 휘거나 날개가 없거나 번식을 못하는 기형뿐이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는 귀가 없는 토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존재들이 더 나은 것으로 진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는 오직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결코 돌연변이에 의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진화론의 아이러니이자 딜레마다.



맨 위 왼쪽 기본형 외에 모두 기형인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의 결과



방사능 오염 지역의 기형 식물과 귀 없는 토끼.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런 돌연변이는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

종의 중간 형태 화석이 없음을 주장한 스티븐 제이 굴드(S. J. Gould)는 기존 진화론을 부정하는 다른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단속평형설’이다. 이것은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돌연변이, 이른바 바람직한 괴물(hopeful monster)이 등장해 가파른 진화를 이루었다가 오랜 기간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그 때문에 중간 종의 화석 발견이 어렵다는 논리다.

갑작스러운 폭발적 진화라는 이 이론은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의인들의 이야기인 영화 <엑스맨>의 피날레에 등장한다.

돌연변이는 인간 진화의 핵심 요소다. 인간은 작은 세포에서 가장 우세한 종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은 매우 느려서 까마득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수백만 년마다 획기적인 진화가 이룩된다.

그런데 ‘수백만 년’이 거듭되려면 지구의 역사가 진화론의 연대로도 너무 짧다. 그래서 2탄부터는 ‘수십만 년’으로 내용이 바뀐다.

단속평형설이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진화가 가능했다는 과학적 논리를 내세운 것인데, 어차피 돌연변이가 필요한



영화 <엑스맨>의 돌연변이 캐릭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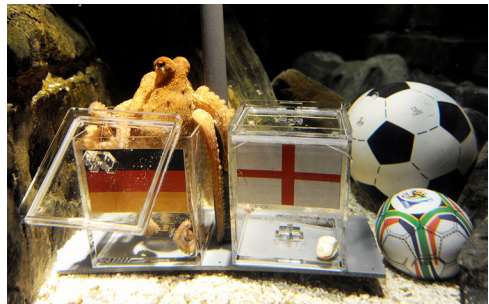
데, 좋은 돌연변이란 없다. 좋은 것은 오직 정상 세포일 뿐이다. 이 이론도 아무 증거가 없으며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논쟁만을 일으키는 가설이다.

돌연변이 세포가 복구되거나 자살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는데, 이런 괴물이 어떻게 바람직한 괴물로 생물의 진화를 가능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화는 어쩔 수 없이 상상으로 시작해 신념으로 유지되는 드라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㉞

상상 초월, 문어의 놀라운 지능과 기능

명성을 떨쳤던 족집게 문어

월드컵 경기 때 어느 나라가 이길지 문어에게 묻는 장난이 한때 화제였다. 두 나라의 국기가 있는 통에 먹이를 넣고 어느 것을 먹는지 보는 것이다. 족집게 문어라고, 정말 한동안 승부를 모두 맞히는 우연에 놀란 사람들은 정말 문어가 뭘 아는 게 아니냐고 농담도 했다.



축구 경기 결과를 점치는(?) 문어

그 문어는 수명을 다해 죽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문어의 지능과 기능들이 더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진화론이 사실이면 문어의 계놈 현황이나 지능은 놀랍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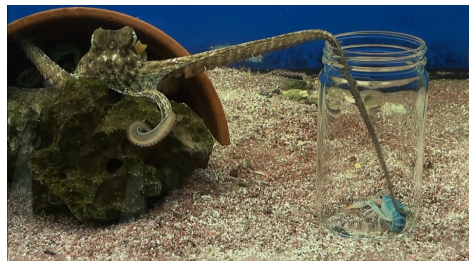
문어는 계놈 분석 결과, 인간과 유전자 수가 비슷하다고 한다. 단백질 코딩 유전자, 즉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 수는 인간보다 오히려 더 많다.

문어는 영어로 옥토퍼스(octopus)이다. octo의 어근은 8을 뜻한다. 영어의 october가 10월이지만, 그 어근은 3월부터 시작하는 로마력으로 8번째 달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므로 문어 다리가 10개인지 8개인지 묻는 OX 퀴즈는 비영어권에서나 먹히는 일이지, 그들에게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어의 다리, 아니 사실상 그들의 팔은 8개이다. 놀라운 것은 8개의 팔들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다. 사람도 네 개의 손발로 운전도 한다지만 각기 다른 일은 하지 못한다. 게다가 문어는 사람처럼 척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머리에서 다리로 신경 세포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

문어는 최대한 멀리서 자기 다리를 길게 해 먹잇감을 살짝 찌러보는 듯한 행동도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동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어의 지능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지, 그런 동작은 분명 먹잇감이 위협적이지는 않은지 테스트하는 행동일 것이다.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문어

무척추동물이 도구를 활용해??

그들의 지능은 상상 초월, 정말 대단하다. 1999년부터 문어를 연구했다는 호주 빅토리아 박물관의 생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문어가 다른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하는 것을 여러 차례 관찰했다. 특히 사람이 버린 코



코코넛과 페트병, 조개 등을 집으로 활용하는 문어

코넛을 집으로 삼은 문어는 비탈진 바닷속 공간을 헤엄칠 필요 없이 동그란 통 안에 들어가 공처럼 신속하게 굴러가기도 한다.

도구를 쓰는 문어의 행동. 여느 포유류만큼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듯한 문어의 껍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그들의 빨판도 아주 재미있다. 짝 쥐는 대신 흡착하는 방식이라니, 하나님의 유머가 돋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빨판을 이용한 캐치볼 도구도 있고, 물을 문혀 유리에 던지는 빨판이 잔뜩 달린 장난감도 있었다. 또 옥실의 타일에 붙이는 비눗갑이나 차 유리창에 붙이는 내비게이션까지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먹물을 쓰는 건 또 어떤가. 게다가 그 먹물이 사람 몸에도 좋아서 요리에 쓰이고 머리 염색에도 사용되고 있다.

홍내 문어, 즉 미믹 옥토퍼스라고 하는 녀석들은 더욱 신기하다. 보호색을 띠듯이 주변 환경과 색깔을 비슷하게 하고, 무늬를 맞추기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생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사



색깔과 무늬까지 바꾸면서 전혀 다른 생물인 척하는 홍내 문어(mimic octopus)

진에서 보듯이 뱀이나 벌레, 소라와 불가사리 같은 다른 생물로 변장(?)도 하고, 때론 바위인 척도 한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위장술이겠지만, 카멜레온 같은 동물이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과 무늬로 위장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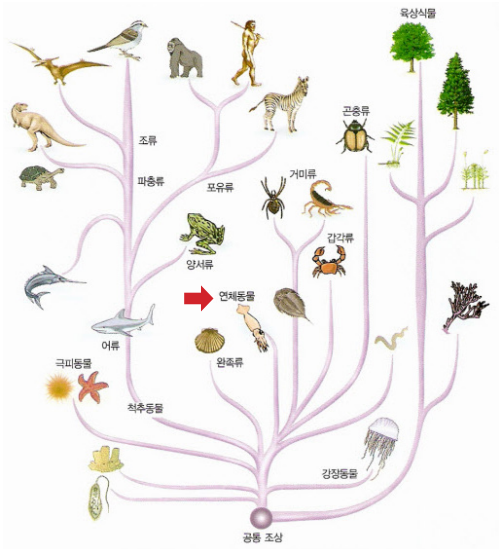
본 것을 창의적으로 모방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음을 말한다.

문어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옷을 바꿔 입어도 구분한다고 한다. 또 셀카를 찍기 시작하면 그 동작을 이해해 멈추기까지 한다. 문어는 지니고 있는 먹물도 위험할 때 뽑는 것과 장난칠 때 뽑는 것은 그 양이 다르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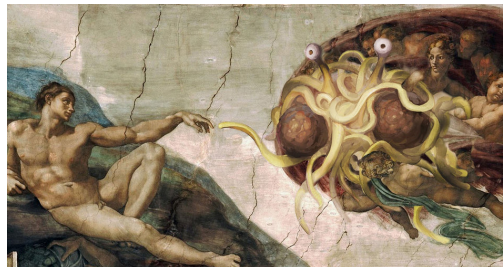
진화의 순서 비웃는 영리한 녀석

문어는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무척추동물이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과의 거리는 계통상 매우 멀고, 라인도 많이 다르다. 진화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미개해도 한참 미개한 존재들이다.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Flying Spaghetti Monster)’을 숭배한다는 FSM 교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빗댄 것이 문어나 낙지 같은 연체동물이겠는가?

그런데 통념을 뒤집는 문어의 놀라운 기능을 전하는 뉴스 기사나 과학자들의 칼럼 어디에도 이것으로 진화론의 논리가 붕괴된다거나, 진화의 순서를 거스르는 연구 결과라는 등의 언급



공통 조상에서 모든 것이 나왔음을 표현한 진화의 나무 중 문어의 위치. 진화의 방향과 거리상 연체동물 문어는 하등 동물이다. 그들의 지능은 어떻게 된 건가?



기독교 패러디 종교 FSM교가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모신다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이 전혀 없다. 뭔가 더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는 느낌이랄까... 더욱이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고, 능력이 이해가 안 가니 외계에서 왔다는 설까지 나왔다. 그것도 조크가 아니라 진지하게 말이다.



“문어가 외계에서 왔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제기됐다”는 제목의 허핑턴포스트 기사(2018)의 사진

하지만 이런 소식에는 사실 후속 보도나 추가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 문어는 진화의 순서를 어마어마하게 거스른 생물계의 이단아가 되었느냐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까치도 도구를 쓰는 마당이라 ‘새대가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조상인 문어가 이토록 놀라운 지능을 가졌다면 무언가 설명을 하든지 자신들의 논리가 뒤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해 봐야 입 아픈 소리지만, 진화론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과학이 발달하고 무언가 발견되며 연구될 때마다 입증되기는커녕 난제만 쌓여 가니 말이다.

이제 문어 대갈뺨(?)이니 하면서 문어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자. 이렇게 신기한 문어를 보면서도 창조자의 설계를 알 수 없다면 그건 알기 싫고 믿기 싫은 것이다.

문어는 문어(文漁), 글을 아는 물고기라는 뜻이라고 한다. 또한 먹물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면 문어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사실을 오래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잘못된 과학은 오히려 지혜를 퇴화시킨다는 사실을 문어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한다. ❸

‘마기꾼’과 황금수에 담긴 창조의 원리

마기꾼은 죄가 없다

코로나 때 ‘마기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마스크 + 사기꾼, 그러니까 원래 인물이 그리 좋지 않은데 눈만 내놓고 다 가렸을 때 훨씬 예쁘고 잘생겨 보여 남의 눈을 속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 어감이 좋은 않지만 언젠가부터 의외의 좋은 결과에 대해 ‘사기’라고 지칭한다. 사기캐(사기 캐릭터)라는 말도 생각보다 동안이거나 외모와 지성을 겸비했거나 여러 분야의 능력자이거나 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아무튼 하관을 가리면 의외로 나아 보이는 이들이 많은데, 어떤 사이트에서는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남녀 마기꾼 대회를 열어 최고 점수자를 가려내기도 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더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이유는 물론 사람의 심리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보는 눈은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눈이 아름다워 보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나은 쪽으로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선지 오랜 마스크 착용에 지쳐 있어서 착용 의무 해제를 고대하다가도 벗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한 관련 뉴스 댓글에는, “그동안 못

난 내 얼굴 가려줘서 좋았는데, 시원섭섭하네요.” 하는 내용이 달린 것을 본 적도 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굳이 얼굴의 안 보이는 부분을 더 낫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평소 미남 미녀를 많이 봐서? 이견 아닌 것 같고…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못한 쪽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머지 부분을 좋게 해석할까? 늘 타인과 비교하고 의식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이니 못생긴 쪽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원인 분석에는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주신 하나의 법칙이자 섭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말하자면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것, 정상적인 것, 이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에도 그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최고의 조합들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멀어질수록 흐트러져 왔는데, 그 틀이 깨어질 때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미인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문화가 뒤틀리면 과도하게 마른 몸 등 약간 비정상성을 예쁘다 칭송하기도 하지만, 시대와 연령과 국적을 불문한 보편적인 미남 미녀의 기준은 대개 비슷하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비슷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예쁘고 잘생기게 봐 달라 한 것이 아니니까 마기꾼은 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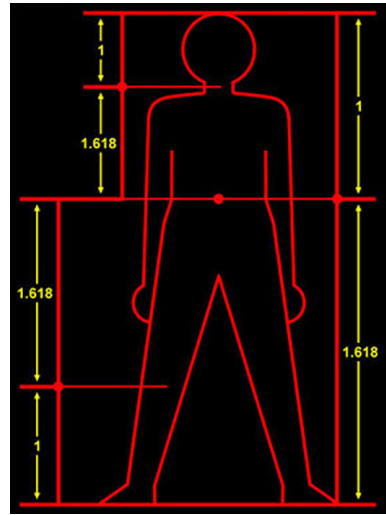
자연의 설계 '황금수'와 '피보나치수열'

황금수 파이(PHI)는 유클리드가 계산한 것으로 한쪽이 1일 때 다른 쪽은 1:1.6180339887...이 되는 수로 자연과 우주 만물에서 발견되는 법칙이다. 네 모로 말하면, 가로 길이가 1미터이면 세로 길이는 1.6미터 정도인 것이 가장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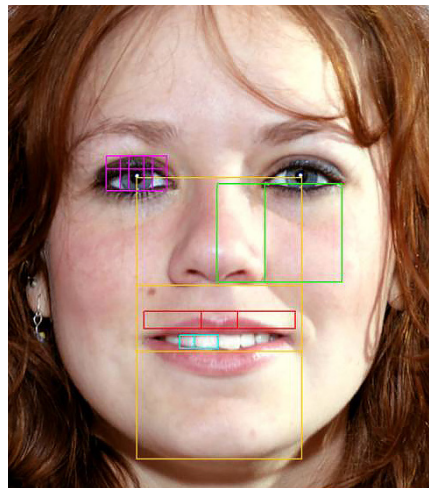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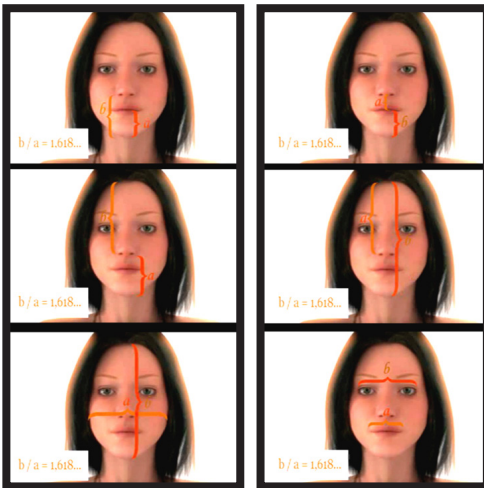
사각형이라는 것인데,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가 파이 수의 텅어리임을 알고 그림으로도 남겼다.

이상적인 몸은 머리에서 배꼽까지가 1일 때 배꼽부터 발끝까지가 1.618...이 돼야 가장 안정적이다. 비율이 좋은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은 이 때문인데, 이 정도를 벗어나 너무 하체가 길면 불편해 보일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드물고, 하체가 길면 길수록 좋다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낯설게 될 것이다.



어깨에서 팔꿈치가 1이라면 팔꿈치부터 쪽 편 손끝까지가 1.618...이다. 머리 위부터 어깨까지가 1이면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1.618... 이런 식이다.

얼굴도 마찬가지. 아래 이미지처럼 얼굴 가로가 1이면 세로는 1.618... 코끝에서 인중을 지나는 윗입술까지가 1이라면 거기서부터 턱밑까지가 1.618... 주요 부분들을 꼭짓점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가로 세로가 1:1.618...이 된다. 물



론 이게 아닌 사람도 많다. 그래서 불편해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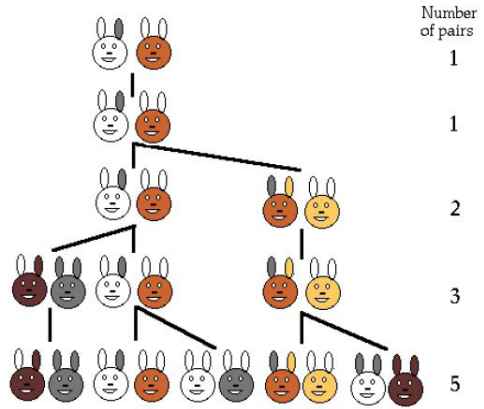
널리 알려진 ‘피보나치수열’이라는 것이 있다. 레오나르도 피보나치(L. Fibonacci, 1170-1240~50)로도 알려진 이탈리아의 천재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사노가 발견한 황금수의 법칙인데 19세기 수학자 루카스가 그의 수학 법칙을 ‘피보나치수열’이라고 명명했다.



수학자 피보나치

이것은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이렇게 흘러가는 숫자인데, 숫자들이 증가하는 법칙은, 인접한 한 숫자가 1일 때 다음 숫자는 1.618...의 비율이 된다는 것이다. 붙어 있는 두 숫자 중 한쪽이 1이라면 다른 한쪽은 1.6배 정도가 된다. 두 숫자는 뒤로 갈수록 황금수에 더 정확하게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위의 숫자들 중 21과 33보다 144와 233이 1:1.618...의 비율에 더 가깝다는 것.

피보나치는 이 숫자의 증가 원리를 한 달 이후부터 새끼를 낳는 토끼가 붙어나는 원리로 설명했다. 시장에서 토끼 1쌍을 사 오면 한 달 후에도 아무 일 없이 여전히 1쌍이다. 그다음 달이 되면 새끼 두 마리를 낳게 되므로 2쌍이 된다. 그다음 달엔 또 두 마리를 낳는데, 지난달에 낳은 두 마리를 더해 3쌍이 된다. 그다음 달에 또 두 마리를 낳는데, 지지난달에 태어난 녀석들이 두 마리를 낳아 5쌍이 된다.



이런 속도로 토끼들이 새끼를 낳는다면 토끼의 수는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피보나치수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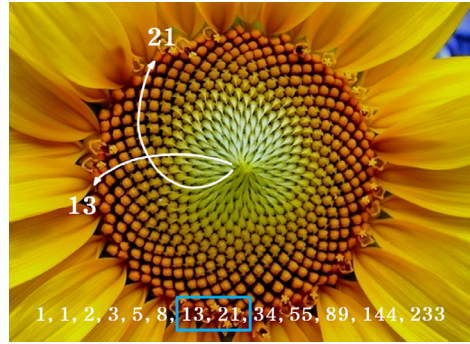
하나님은 땅에 최소 공간에 최대 열매를 주시기 위해 과학적 배열을 고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창 1:29)

거기에 이 숫자의 법칙이 숨어 있다. 피보나치수열은 자연이 수학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여러 번 던져도 쌀 한 줌을 쟁반에 흠뿌려 해바라기 꽃에 박힌 씨앗의 배열처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0이다. 이것을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수학적 0.0000000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의 장난질이지만, 어린아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매년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해내고 있다. 이 숫자의 법칙이 우연히 생겨나고 자연에 새겨졌다는 게 진화론이다.

해바라기 씨앗은 양쪽의 개수가 같은 바둑판식이 아니라 두 개의 길이가 다른 포물선을 그리면서 양쪽으로 뻗어 나간다. 이 선에 따라 심긴 씨앗의 개수는 황금수 파이의 비율을 보인다. 한쪽 선이 1이면 엇갈리는 선은 1.618...이다. 아래 그림처럼 한쪽 선을 따라 13개(1)가 심어졌으면 다른 쪽 선을 따라 21개(1.618)가 심어진다. 피보나치수열의 인접한 두 수이다.



가장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려면 무조건 줄만 맞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서 배워 해바라기 꽃의 씨앗처럼 집

열판을 배치한다. 이런 식의 생체 모방, 자연 모방 공학이 존재하는 자체가 진화론을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



피보나치수열에 따라 배치한 태양열 집열판

딸기에 박힌 씨앗, 파인애플, 솔방울 등이

다 이런 식으로 자라난다. 두 개의 선을 그어 개수를 확인해 보면 피보나치수열의 인접한 두 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1:1.618... 벽지에 그려진 4방 연속무늬와는 다른 방식이다.

광합성을 위한 ‘앞차레’라는 것이 있다. 식물들이 햇볕을 받기 위해 위에 있는 잎을 피해서 나는 현상을 말한다. 둘러나기, 어긋나기, 마주나기 등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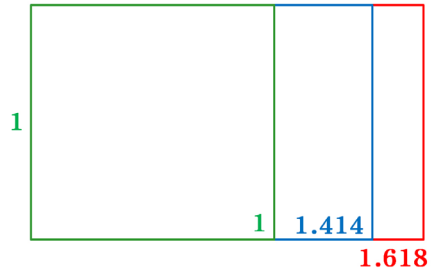
앞차레를 보여 주는 식물과 학생들의 체험활동

으로 잎이 배열되는데, 아이들이 식물원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학습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피보나치수열이 등장한다. 참나무, 뽕나무, 사과나무는 줄기를 2바퀴 돌 때 5장, 미루나무, 장미, 배, 버드나무는 3바퀴 돌 때 8장, 갯버들은 5바퀴 돌 때 13장...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수열에서 하나 거른 인접 수를 취한다.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33...

그늘을 피해서 잎이 나고 자라는 최적의 수학적 계산이 식물에 설계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파이 숫자는 자연뿐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에도 적용된다. A4 용지나 명함, 각종 모니터 화면, 책, 노트, 창문, 휴대 전화 등에 이 1대 1.618 정도의 직사각형 비율이 사용된다. 네모 반듯하거나 너무 길쭉한 것은 상대적으로 사용이 불편하다. 나머지 1:1.4라든지 0.9:1.6(16:9 와이드) 등은 이것을 기준으로 변형한 것이다.



자연에 입력된 적당함과 당연함

이쯤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뭘 당연한 얘길 하고 있어… 정사각은 너무 퍼져서 그렇고, 긴 네모는 길어서 쓰기 불편하니 적당히 쓰는 걸 억지로 의미 부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적당함’이 모든 곳에 설정돼 있는 것이며,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을 보면 불편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도 부정한다. 아무튼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만들어도 워낙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정교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리처드 도킨스(R. Dawkins)의 ‘눈먼 시계공’ 논리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눈이 멀든 손이 없든 일단 시계공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어찌 자연은 이처럼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느냐는 말이다. 그래서 도킨스는 해괴한 소리를 책에 써 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그 복잡성 때문에 이것이 설계된 것이라는 강력한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보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혼란이 올 때마다, 그것들은 결코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계속 상기하며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기막힐 노릇이다. 이것이 종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진리를 들으면 그게 진짜 같다는 강력한 환상에 빠질 수 있으므로 계속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 말이 맞는다는 것을 잊지 마!” 이런 얘기다. 최소한 과학이란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증거도 환상이라니….

이런 엉터리를 추앙하며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벼랑으로 좀비처럼 줄을 서서 가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조차 그것이 참된 지성이라면서 앞다투어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마기꾼은 잘못이 없다. 우리 인류는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아름다움에서 멀고 적게 멀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원형을 보는 눈과 볼 줄 아는 능력이 심겨 있다. 성형을 하는 이유도 이런 포지션의 정상성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 현 상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것에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못해지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점을 보완해 성공하면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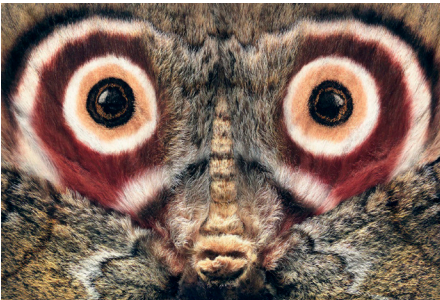
아무리 세상 과학이 떠들어 대도 게임은 끝난 거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됐다는 것은 인정해야 과학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는 여러 존재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모두가 공격하는 오직 한 분, 성경 속의 신이라는 답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제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새로워지면 마스크를 벗어도 모두가 예쁘고 잘 생긴 편안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될 텐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지옥에서 깨닫게 되지 않기를,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㉞

마이크로 월드, 누가 만들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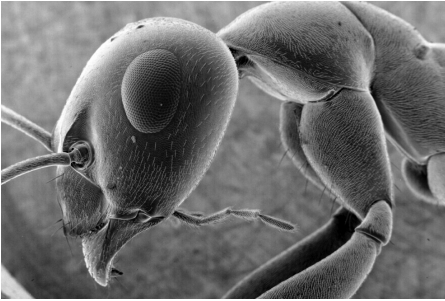
다음은 미국의 모 대학 연구소에서 찍은 마이크로 사진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밀 사진들이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먼저 이 사진을 보자. 너구리처럼 생겼는데, 코의 입체감과 눈동자의 하이라이트까지 포유류처럼 생겼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사는 ‘엠펜러 스페클드 모스’라는 나방이다. 전체를 보면 천적들이 도망갈 정도로 동물 얼굴처럼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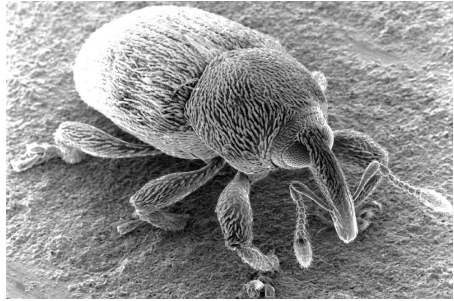


그러면 나방들은 이런 모습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졌을까? 이제부터 짐승의 얼굴 모양을 날개에 새기기로 하자고 후손에게 명령해서 천천히 만들어 냈을까? 자신들의 천적인 새 종류가 포유류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어찌 알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을 못 보게 하셨다. 다윈 시대에

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정교한지 알지 못했다. 마이크로 현미경 따위는 물론 없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 창조의 섭리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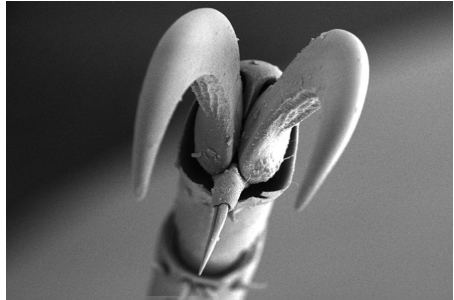
개미. 관절과 잔털까지 너무나 정교하다. 사람이 애써 만든 세밀한 로봇도 자연 발생(?)했다는 개미와 비교가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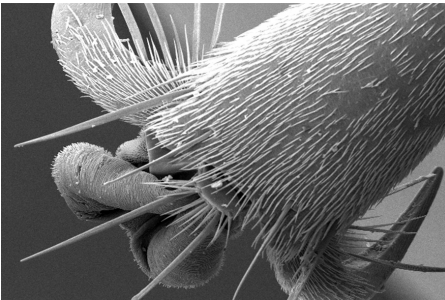
바구미. 사람은 이런 크기의 집먼지진드기를 포함해 매월 한 스푼의 먼지를 먹는다는데,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곤충의 눈알. 낱눈들이 모인 겹눈으로 사물을 여러 프레임으로 끊어서 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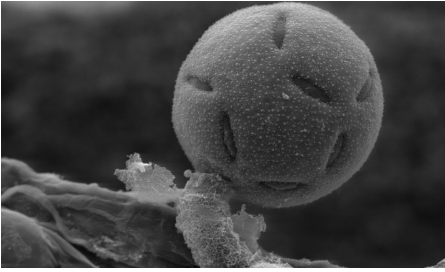
풍뎅이의 앞발. 등산용 아이젠을 닮았다. 벌레들은 아무렇지 않게 벽과 나무를 기어오를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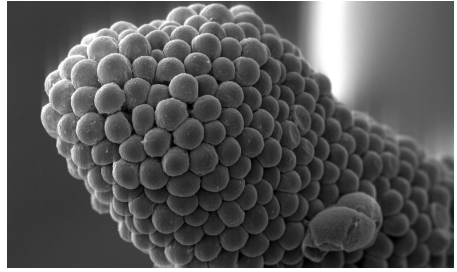
복잡한 기능을 지닌 말벌의 앞발. 파리 같은 곤충은 발로 맛을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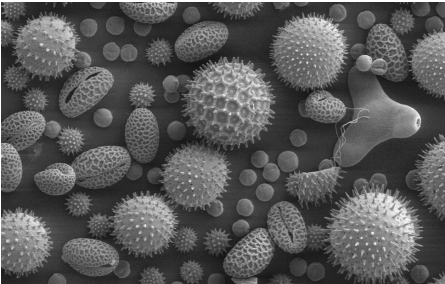
어마어마한 기능이 탑재돼 있는 곤충의 덤이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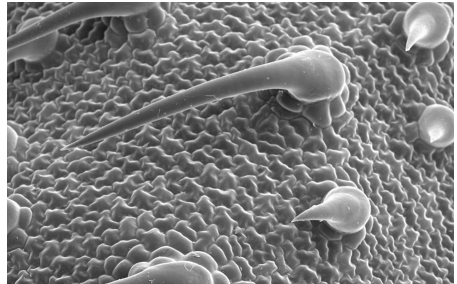
꽃 속의 꽃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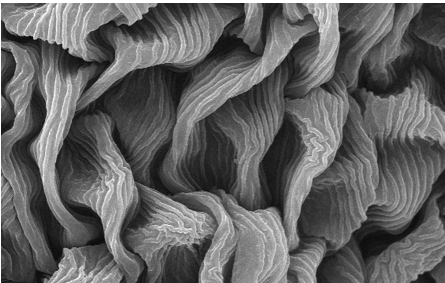
꽃술의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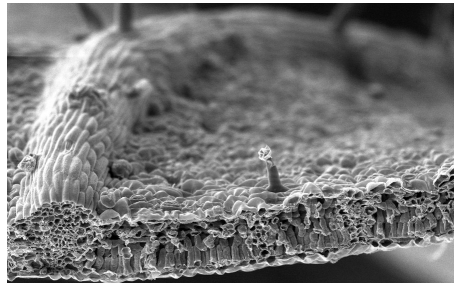
갖가지 모양의 꽃가루다. 그저 고운 가루가 아니라서 코에 들어가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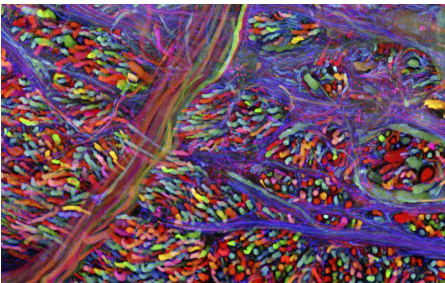
나뭇잎의 뒷면. 한쪽은 부드러운데 반대쪽을 문지르면 거칠어 곤충들이 매달리기 딱 좋은 구조.



토끼풀, 클로버의 표면.



나뭇잎 단면. 잎맥과 광합성 구조가 보인다.



아름다운(?) 실험용 쥐의 뇌세포.



오징어 다리의 빨판 구조.



나비의 날개. 마치 실크처럼 부드러운 재질과 아름다운 컬러로 이루어졌는데, 색채학에서나 배울 수 있는 배색의 조합, 그라데이션 등 놀라운 설계의 흔적과 미적 조화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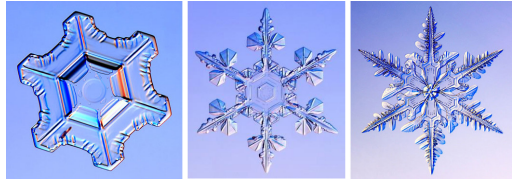
어떤가? 그저 자연은 경이롭다는 말만으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오른쪽은 나노 튜브로 만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다. 가장 고등하다는 인간이 21 세기에 첨단 기술로 애써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생명도 없다. 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면서 생명까지 담긴 저 많은 작품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졌다니, 진화론은 어리석음으로 제 눈을 가리는 학문인 듯하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 1:20) ☸

눈(snow)의 육각 결정과 '눈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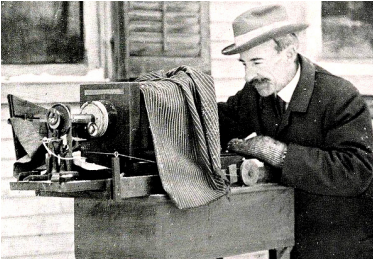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을 잘 보면 눈꽃처럼 반짝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눈은 육각형의 결정을 지니고 있는데, 그 결정들은 도저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조각품 같은 아름다운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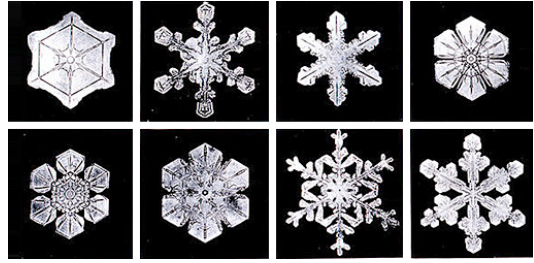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육각의 결정들은 단 하나도 같은 모양으로 겹치는 것이 다 다르다. 온 세상에 내린 모든 눈, 수천 년 전부터 내린 모든 눈의 그 작은 결정들이 하나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인간이 한 사람도 아주 똑같



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각각의 정체성, 즉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 내는 물건과는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하긴 요즘은 마트에서 물건 담는 검은 봉지조차도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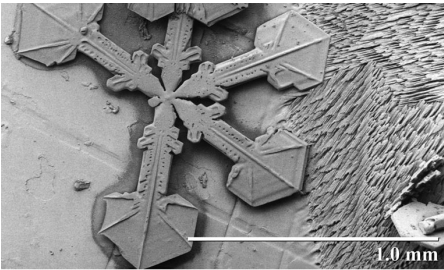
눈의 결정을 촬영하고 있는 벤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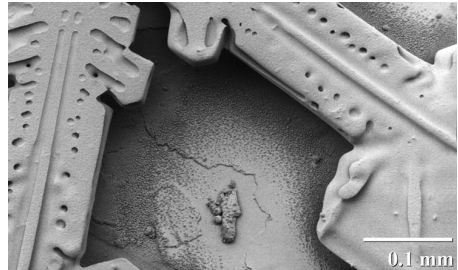
벤틀리가 촬영한 수많은 눈의 형태들.

마다 절단 상태와 재질의 미묘한 차이로 생산 시기와 납품처 추적이 가능해서 과학 수사에 활용되기도 할 정도라니 하나님의 작품이 저마다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1920년대에 처음 이런 결정들을 마이크로스코프로 촬영한 사람은 버몬트 출신의 윌슨 벤틀리(W. A. Bentle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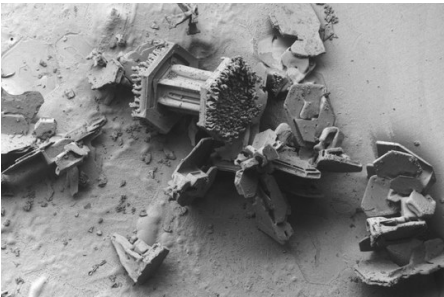
그런데 눈의 결정 모양은 육각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들여다보는 크기에 따라 결정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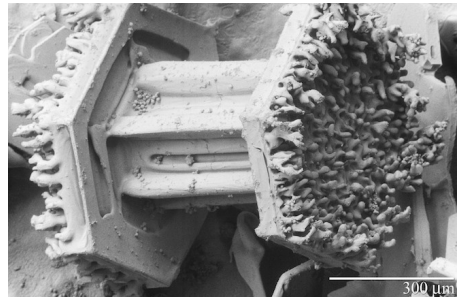
확대한 눈의 결정(아래 흰 선 길이가 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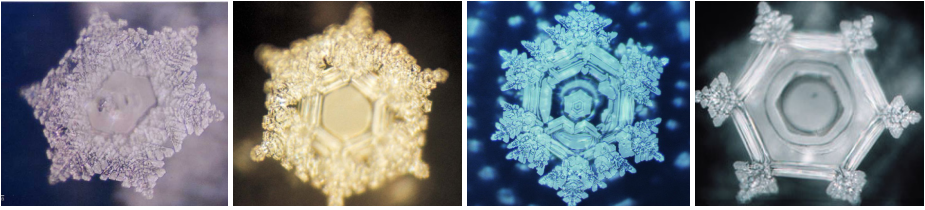
조금 더 확대한 상태(흰 선이 0.1mm).



눈이 녹으면서 결정들이 분해되는 모습.



더 확대한 모습. 마치 테이블 모양 같다.



카메라에 촬영된 물의 육각 결정들.

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육각형의 결정을 보이는데, 어떤 언어를 들려 줄 때 각기 다른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연구 결과다.

그런데 눈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막 생겨났다면 정교한 모양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스키장에 뿌려지는 눈, 즉 사람이 인공 제설기로 만드는 눈에는 저런 결정이 있을까?

만들어지는 눈에는 아름다운 육각의 결정들이 없다. 인공눈은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설질이 천연의 것보다 떨어져 스키를 탈 때의 재미도 덜하고 부상 위험도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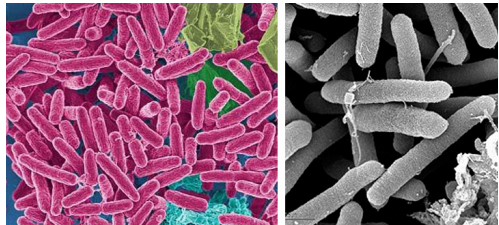
이런 미생물은 봄에 냉해를 일으켜 작물에 피해를 준다. 사람이



인공 제설기로 눈을 만드는 모습.



인공눈은 설질이 떨어져 스키를 탈 때 더 위험하다.



인공눈을 만드는 미생물.

만든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데, (진화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더 아름답고 무해하며 자연스럽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욥기에서 힌트를 주셨다.

네가 눈이 있는 곳간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들을 본 적이 있느냐? (욥 38:22)

그러니까 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곳간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표현, 즉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눈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텐데, 그 답을 더는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운 <눈이 옵니다>라는 동요가 생각난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자꾸 뿌려 줍니다 자꾸자꾸 뿌려 줍니다

하지만 눈은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아무 모양 없이 흩어지는 떡가루가 아니라 아름답고 정교한 결정체들이다.

자, 이제 아름다운 눈이 내리면 하늘을 바라보자. 그리고 신비한 ‘눈의 곳간’을 생각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생각해 보자. ☁

흑인, 백인, 황인은 어떻게 나뉘었을까? (인종의 기원)

교만의 탑에서 흩어진 인류의 역사

노아의 때,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여덟 가족을 제외한 모든 코로 숨 쉬는 생명체가 죽었다. 그때까지는 사람과 짐승 모두가 육식을 하지 않았지만, 식물들도 다시 자라지 못한 시점이었던 홍수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창 9:3).

덕분에 식량 문제는 일부 해결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폐허가 된 땅에서 짐승들과 힘든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했다. 따라서 안전한 피신처가 필요했고, 먹을거리가 필요했으며 (동물도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지만) 자신들을 위협하는 굶주린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피신처와 영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니므롯이라는 강력한 사냥꾼이 주목을 받게 되고, 사탄 마귀의 그림자인 그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것은 물론 다시 홍수 심판이 와도 안전할 바벨탑을 시날 평지에 쌓게 된다. 이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의 약속도 믿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바벨탑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절대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자 반항

이었다. 이런 끝없는 교만에 하나님은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누셨고, 결국 바벨탑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전 세계로 흩어진다. 언어의 혼란이 탑을 쌓는 노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통치 권력과 피지배층 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협동 및 공동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와 단체 생활에 불신과 무질서와 적대감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흩어지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흩어진 이후에는 하나였던 땅이 나뉘게 된다(창 10:25, 대륙이동설). 그 전에는 하나의 기후 아래 하나였던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현존하는 대륙들의 많은 부분이 퍼즐처럼 들어맞는 것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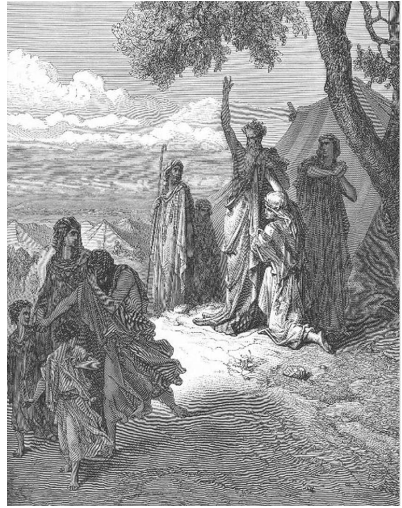
대륙이동설(판게아 이론)에서 대륙 이동 전의 상태를 유추한 세계 지도

노아의 저주에 대한 결과?

대개 오늘날의 백색, 황색, 검은색의 피부로 분류되는 이른바 ‘인종’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술 취해 벌거벗고 자는 노아의 몸을 가려 주지 않은 아들 함은 형제들에게 알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로 가서 덮어 주었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아 흑인이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 황인종과 백인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실수에 대해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며, 셈의 종이 된다”라고 했을 뿐이다(창 9:25~26). 함은 그전에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었으므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인데, 이후 가나안은 스스로도 악행을 일삼은 민족이므로 저주를 받아 마땅했다.

가나안 족속은 후에 셈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도 하고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정복당하기도 했으니 함에 대한 저주는 일단락되었다. 이 부분을 함의 자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아 대대로 흑인이 된 것이고, 흑인은 노예로 팔려 마땅한 저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백인우월주의적 편견이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

물론 이집트와 아프리카 등지의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단지 조상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척박한 땅, 열악한 기후 등의 탓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함의 후손이 남으로 이동하여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에 민족을 이루었으니 그 자체를 저주로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

근친결혼, 기후, 문화적 선호

창세기 10~11장에 나오는 세 아들의 후손 목록을 보면 그들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맏이인 야벳의 후손은 북쪽(유럽)으로, 함의 후손은 남쪽(이집트, 아프리카)으로, 셈의 후손의 일부는 머물고(중동) 일부는 동쪽(아시아)으로 갔다.

그렇다면 노아의 세 아들은 처음부터 각각 흰 피부, 황색 피부, 검은 피부를 지녔다는 것인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은 3개의 대표적인 피부색 뿐 아니라 많은 인류 집단이 존재하는데, 아담은 물론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현시대의 인류가 지닌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후대로 가면서 신체적 특질로 강조된 것이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이동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의사소통에 익숙한 가족들끼리 모여서 맹수들을 피해 이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적은 무리로 격리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근친결혼을 하게 되어 특정한 요소들이 극대화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근친결혼은 처음부터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 가족밖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가인도 누이와 결혼했을 것이 분명한데 당시에는 변형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갈수록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 오늘날에 근친결혼을 하는 민족들을 보면 시각 장애나 언청이 등의 특정 질병이 그 민족 사이에 만연돼 있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기후적인 요소들도 작용을 했다. 전체가 하나의 기후였던 지구는 대홍수로 다양한 날씨를 갖게 되었다(창 8:22). 그러다 보니 흰 피부를 지닌 사람들은 태양이 강렬한 적도 부근에서 살 경우 피부암 발생이 많고 수명이 짧아져 후대에 유전 인자를 전할 기회와 확률도 줄었다.

한편 검은 피부를 가진 이들은 햇빛을 흡수하지 못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추운 극지방에서 살게 되면 구루병(rickets) 또는 골연화증(osteomalacia)에 걸리게 되어 뼈의 변형과 발육 부전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은 북쪽에, 검은 사람들은 적도 부근 더운 지방에 살게 된 것이다. 피부색이 어두운 에스키모나 이누이트 등의 사람들만은 예외적인데, 그들의 주식인 생선에는 비타민 D₃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문화적 선호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서서히 굳어지는 자신들의 공통적 특징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거나, 히틀러가 혐오하던 유대인들을 제거하듯 전쟁을 통해 없애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는 등의 활동이 종족에 따른 흠어짐과 모임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 피로 만들어진 인류는 피부색과 무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부는 남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한 셈계 후손으로 볼 수 있는데, 헨리 모리스 박사의 경우, 중국과 몽골인을 인류의 물질 번성에 기여한 함의 계열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셈계 후손들의 이동 경로인 아시아의 오지에 흩어진 소수 민족들 중에는 우리와 생활 풍습과 언어가 비슷한 이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김치를 담가 먹는 이들도 있고, 색동저고리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이스라엘과 우리만이 장례 때 베옷을 입히는 등 비슷한 점도 많다. 예수님을 일컫는 ‘샤론의 꽃’은 ‘무궁화’이다. 수메르 지역이 원산지인 무궁화는 영어로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이다. 대홍수 직후인 4천여 년 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무궁화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國花)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 단기(檀紀, BC 2333년)는 모든 문명의 발상과 같은 시기이며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행 17: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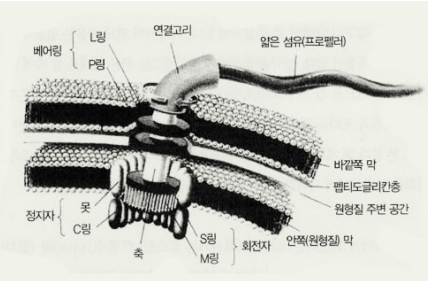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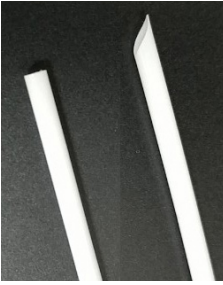
이런 사실들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인류는 한곳에서 뻗어 나왔으므로 당연히 한 피이며 우월한 민족이 따로 없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물론 없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뿌리는 어차피 하나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검은 피부를 지녔더라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백옥같이 흰 피부를 가졌다 해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호수의 거주민이 될 뿐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실생활을 통해 본 '설계'의 당연한 이치

얼마 전 아침에 지하철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계산을 했다. 그런데 앞에 선 젊은 여성이 음료를 계산하고 빨대를 가져가면서 몇 번을 들었다 놔다 하더니, 눈이 나쁜지 코를 박고 자세히 살피고는 그중 한 개를 집어서 간다.

나는 그 여성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요즘 그 편의점의 빨대는 한쪽이 뾰족하게 사선으로 잘리지 않고 일자로 잘린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일자로 잘린 원통은 바닥이 막혀서 음료를 마시기가 불편하다. 한 번은 빨대를 집어 와서 보니, 불량품인지 한쪽이 아예 막혀 있었다. 어떤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에 맞는 처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인식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 빨대를 만드는 것도 저절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사선으로 잘라 낼지 직선으로 잘라 낼지는 만드는 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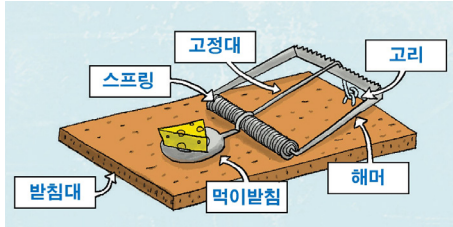
지적 설계(ID, Intelligent Design)는 신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누군가 현재의 생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가 계획해서 만들지 않고는 현재의 상황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복잡한 생물계가 진화에 따라 과거에는 매우 단순하거나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공통의 조상이라면, 어떤 생명의 진화



음료의 바닥을 막지 않는 사선 커팅 빨대는 누군가가 설계한 것이다. 오른쪽의 편모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지만 복잡한 모터를 지니고 있고, 구성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이 불가능하다.

기능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과거로 되돌린다면 지금의 상태로 오는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비논리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흔히 이 원리를 설명할 때 편모 박테리아같이 단순한, 아니 단순해 보이는 것을 제시한다. 박테리아는 아무 생각도 기능도 형태도 없을 것 같지만 이처럼 웬만한 기계보다 복잡한 구성을 지닌다. 이 중에서 한 곳이라도 더 단순했던 과거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아예 지금의 박테리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테리아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모든 기능이 있어야만 온전한 물건이 되는 쥐덫을 예로 들기도 한다. 모든 구조 중 한 가지만 없어도 쥐를 잡는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쥐를 잡는 쥐덫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라면과 컵라면은 같은 시리즈의 상품이어도 매우 다르다. 불에 끓이는 일반 라면을 컵에 넣어 끓는 물을 넣어보라. 불기만 하고 잘 익지 않을 것이다. 사진의 모형처럼 컵라면은 밑바닥에 물이 들어가도록 중간에 걸



컵라면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용 모형

쳐지도록 만든다. 또 위와 아랫부분의 영킨 밀도가 다르다. 면발 자체도 납작하고, 작은 구멍이 승승 뚫려 속이 비어 있고, 일반 라면과 달리 재료에도 전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빨리 익는 것이다.

라면 하나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연이 모조리 저절로 선단 말인가? 그냥 라면이 세월이 지나면 컵라면이 되는가? 누군가 머리를 쓰고,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진화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화는 인위적인 것이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더구나 현상적으로 자연은 퇴화하고 있다. 사람과 생물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대단한가? 로봇을 어떻게 설계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줘야 고장이 나지 않고 철인 3종 경기를 뿔 수 있을까? 사람은 물과 식사만으로 그것을 다 해낸다. 이런 것이 다 저절로 된 진화의 산물이라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리석지는 말아야지, 누군가 인간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 논리적이고 양심적인 것 아닐까?

“불가능을 다 제외하면, 남은 것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정답이다.”

추리 소설의 창시자 에드거 앨런 포가 말한 추론 방법 중 하나다. 범 죄를 추리할 때, 아닌 것으로 확정된 용의자와 증거들을 제외하고 나면, 남은 것이 아무리 황당해도 가장 유력한 범인이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창조... 황당할 수 있다. 믿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남은 것은 역시 창조와 설계뿐이다.** 그런 방식으로 다 가선다면 최소한 창조주를 당장 믿지 못할지라도 무작정 거부하는 그 마음이 ‘논리적인 과학’보다는 심리적인 저항감이자 믿고 싶은 것을 택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신론자들이여, 가장 작은 물건부터 가장 위대한 자연까지 매 순간 들여다 보고 깊이 생각하라. 정답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지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었을 그대 안에 있으리나... ㉞

만물에 새긴 절대자의 서명

어제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 아주 작은 곳인데 연세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염색을 하고 있어서 잠시 기다렸다. 밖은 아직 덥지만 그래도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조금은 살 만하다.

머리를 맡긴 채 아주머니가 미용실 주인 여자와 대화를 한다.

“어제오늘 그래도 아침저녁 바람이 좀 낫지?”

“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인생을 달관한 듯 말했다.

“거 봐. 세상에… 그러니까 거저 된 게 없다니까.”

거저 된 게 없다? 그분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 아주머니는 종교나 과학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냥 살아 보니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절기가 지나면 더위가 물러가고, 때 되면 낙엽이 지고, 때서운 추위에 나무들이 옷을 벗었다가도 새봄에는 파릇하게 되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몸으로 체득할 정도가 되면 염색을 해야 백발을 가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무척 간단한 원리이고 쉬운 깨달음이다. 바람과 하늘과 태양이 서로 대화하며 짝 짓는 것도 아닌데 어찌 광복절이 지나면 열대야에서 서서히 해방되는가? 이것이 그저 자연의 신비인가? 저절로 된 것인가?

생명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 하고 생존을 위해 종족을 퍼뜨리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왜 살아남고 싶어 몸부림칠까? 안 살아도 되는 해와 바람과 구름은 왜 여전히 생명들을 돕는 것일까?

누군가 손을 대야 한다. 힘을 걸어야 작동된다. 진화론에서조차 강력한 생존의 본능이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거저 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절대자에 대한 탐구와 진리의 발견은 바로 모든 것에 순리와 원칙과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간단한 경험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매우 쉬운 일이며,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 한, 모르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만물은 끊임없이 외치며 양심에 호소한다. 이것을 외면하면 그를 살려 줄 존재는 없다. 그가 원하는 무의 세계, 설계자도 절대자도 계획도 없는 절망의 장소로 간다. 그것은 곧 심판이며, 다른 말로는 각자가 제1지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려(?)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조종하거나 꺾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어릴 때 동네의 한 고등학생 누나가 한창 사춘기였던 모양인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난 아빠랑 같은 방에서 자느니 차라리 화장실에서 잘래.”

어느새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니 아버지가 불편해진 것이다. 깔끔한 집안 욕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아빠와 함께 자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아빠는 늘 그대로이고 자식이 아무리 커도 옆에 있으면 좋은 것인데 딸은 어느새 아빠가 불편하다.

그럴 때 멀쩡한 집 놔두고 왜 화장실에서 자느냐고 나무라며 설득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묶어다 아빠 방에 재울 아버지는 없을 것이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독립된 인격체인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도시는 더 더워졌고, 여름은 길어졌지만 가을을 버틸 수는 없다. 그게 순리다.

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 8:22)

그래서 가을철에도 계속 우는 철이 없는(?) 매미는 없다. 다음 출연자는 귀뚜라미다. 이 모두가 거저 된 것인가? 그게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는 바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연과 만물에 새긴, 절대자의 지울 수 없는 서명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싫어서 애써 다른 답을 찾는 사람은 따뜻한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굳이 험한 곳을 자청하는 못 말리는 사람이다.

계절은 또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순리이고, 설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이다. 바람이 변하고 날들이 바뀌기 전에, 늘 겨울처럼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도 바뀌고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다. ☯



2

진화론 반박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딤후 6:20~21)

‘오락가락’ 온라인 과학 뉴스가 가리키는 진실

온라인 포털에는 가끔 과학 뉴스가 뜨는데, 각종 과학 전문 저널에 소개되는 논문이나 기존 언론사의 과학 기사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실로 엄청나게 많은 과학 뉴스 중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은 우주 천문학, 기후 위기, 인류학, 생물학, 의학, AI 등에 관한 것인데, 그만큼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무척 놀라운 연구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 흘러가고 지나간다. 그 소식들이 다 실제로 나타나거나 검증됐다면 지금쯤 세상은 천지개벽이 됐을 것이다. 그 옛날 소년 잡지들에 나오던 과학 기사들이 사실상 공상에 가까웠듯이, 지금 소비되는 뉴스들도 2-3년만 지나면 어안이 병병한 허황된 이야기들이 많다.

물론 모든 기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맞는 것과 틀린 것, 현실성 있는 것과 부풀려진 것들이 혼재돼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분야별로 다 분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렇게 거짓과 진실을 뒤섞어 버리면 결국 불가지론이 되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된다.

이처럼 기존 학설과 과학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뉴스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사실 대부분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작성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나 주장을 아무리 해도 전제가 잘못됐으므로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게 된다. 진화론의 실체를 바로 알고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계속 황당한 주장이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제, 연구 방법, 접근법, 다루는 기존 학설의 오류와 비논리성이相当해서 가치가 별로 없거나 위험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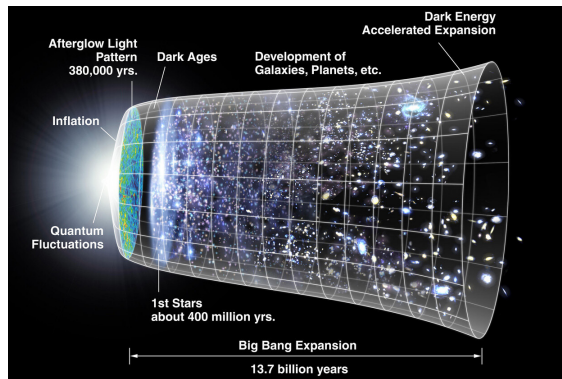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 뉴스들의 논점은 뒤죽박죽이다. 맞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3편의 과학 뉴스는 창조론과 진화론 독자들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왜 그런지 기사 발췌문과 함께 살펴보자.

노벨상 받은 '우주 가속 팽창설', 오류 증거 발견

-연세대 연구진, '우주 가속 팽창·암흑 에너지는 오류' 지적

연세대 연구진이 초신성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우주 가속 팽창설의 오류를 확인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우주 가속 팽창설은 우주의 70%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 결과로 암



137억 년의 우주 역사를 보여주는 모형. 출처 NASA

흑 에너지 존재와 우주 가속 팽창설이 부정되면서, 그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초신성 우주론에 기초한 표준 우주 모형도 크게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24일, 연세대학교 은하 진화 연구 센터 연구진은 “우주론 연구에서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핵심 천체인 Ia형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에 대한 최신 연구로부터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우주 가속 팽창 학설이 명백한 허구임을 시사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뉴스풀]

이 기사는 암흑 에너지에 관한 이론을 반박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가 인정된다면 과거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던 암흑 에너지가 한국의 연구진에 의해 과학계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노벨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대개 노벨상 받은 학자의 이론은 다 신뢰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다고 상이 취소될 리도 없지 않나.

2022년에 네안데르탈인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스테판 파보라는 스웨덴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이 진짜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사람으로 판명 난 존재이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의 모든 유인원은 근거 부족과 거짓으로 이미 과학 교과서에서 다 빠진 상태다.

또한 이런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암흑 에너지를 말하던 사람들이 오류를 인정할까? 다큐멘터리에서는 암흑 에너지 이야기가 안 나올까? 언제쯤이면 그 이론이 뒤집힐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알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같다.

위 기사의 내용도 진화론의 일부를 반박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진화론이므로 다 인정할 수는 없다. 우주에 관해서는 계속 이론과 이론이 엇치락뒤치락하는데,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무슨 이론이든 하나는 정설의 자리에 임시로라도 창조론 대신 버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빅뱅 이론도 많은 과학자들에게 조롱당해 왔고, 20여 가지의 대체 이론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서 건재한 이유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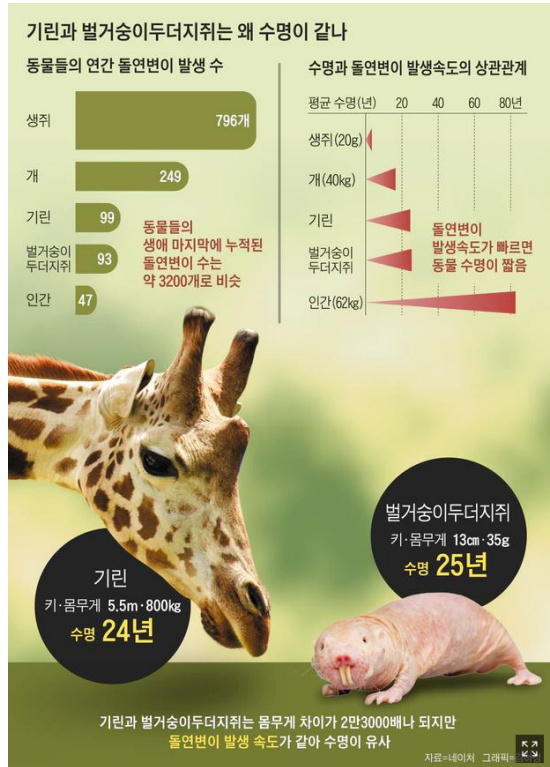
우주에 관해, 별에 관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최소한 우주 과학 관련 뉴스가 우리를 참된 진실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돌연변이 3,200개 생기면 죽는다, 인간도 다른 동물도 똑같더라

-세포 고장 잦으면 수명 짧아지고 고장 느리면 생체 시계도 느려

사람은 80년을 살지만 기린은 수명이 24년에 그친다. 몸집이 크다고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다. 몸무게 90톤이 넘는 북극고래는 268년을 산다. 왜 동물은 수명이 제각각일까. 과학자들이 유전자에서 답을 찾았다.

영국 웰컴 생어 연구소의 이니고 마르틴코레나 박사 연구진은 2022년 4월 1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동물의 수명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세포에 고장이 자주 생기면 수명이 짧아지고 천천히 고장 나면 생체 시계도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린과 벌거숭이두더지쥐는 왜 수명이 같나... 수명과 돌연변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포그래픽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명체는 생애 동안 DNA의 손상으로 죽는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생식 세포에도 DNA 손상이 있을 것이므로 생명체는 다음 세대에 손상된 유전자를 물려주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점점 퇴화한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수명을 연장한다기보다 관리하는 것이며, 복구 메커니즘에 의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체에는 유해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유전자로 복제되지 않게 하는 메커니

증이 있다. DNA 돌연변이 제거로 암 치료에 신기원을 열 수 있다는 또 다른 과학 뉴스가 보도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진화는 오히려 반대를 말하고 있다. 생물체가 엄청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했다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기사처럼 실제 데이터는 진화론의 반대로 관찰된다. 돌연변이는 진화와 생명의 실마리가 아니라 퇴화와 죽음의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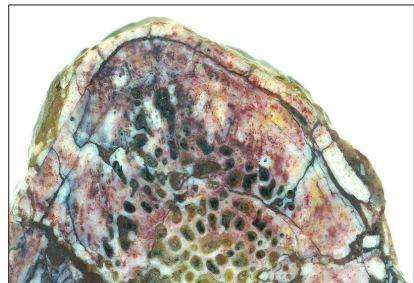
이런 기사는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한다. 그러나 숨어 있는 참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화는 돌연변이 없이 성공할 수 없는데, 돌연변이는 오히려 퇴화의 원인이 되므로 진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다. 독자가 알아채는 수밖에 없다.¹

“8천만 년 전, 2억 년 전, 공룡 단백질 검출 보고”의 의미

-1억 9,500만 년 전 공룡 뼈 화석에서 단백질 흔적 증거 발견 보고

뼈나 깃털이 아니라 단백질 분자도 공룡 진화를 밝혀 줄 새로운 종류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주로 화석에 있는 뼈와 깃털의 미시-거시 형태와 구조를 분석해 공룡의 진화를 추적하는 고생물학 분야에서, 8,000만 년 이전의 공룡 단백질 조각을 검출하고 또 분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전히 단백질 생분자가 그토록 오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선이 다 가지지 않고 있지만, 8,000만 년 전 화석에 이어 1억 9,500만 년 전 화석에서도 단백질 흔적을 찾았다는 새로운 후속 연구가 나와 ‘공룡 단백질 연구’의 가능성을 넓혀 주고 있다. [한겨레]



1억 9,500만 년 전 초식 공룡의 갈비뼈 화석 절단면. 안쪽의 여러 도관들에 단백질 흔적이 보존되어 남아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

1. 33쪽 참고.

오래된 단백질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랜 세월 보존되었을 것이라는 변명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분자는 외부의 활성 물질 혹은 방사성 물질 등의 충돌로 오래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그간의 과학이다. 생명체는 살아서 계속 합성을 하면서 생체 물질들을 유지시키며, 죽은 것은 제 기능을 못하고 썩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메리 슈바이처(M. Schweitzer) 박사가 공룡 화석에서 단백질을 발견한 과정은 미국 CBS 방송의 르포 <60분>에서 소상히 다루었다. 한국의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엔 샘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기존 과학과 다른 결과가 그저 ‘놀랍다’고 말한다. 증거들은 오랜 연대를 부정하지만 긴 연대는 그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랍다.”와 같은 반응이 전부다. 자기 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 다리를 자르거나 늘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식이다.



메리 슈바이처 박사. 공룡 화석에서 단백질을 발견한 그조차 화석 연대 문제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기존의 주장은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멸종했고, 단백질이나 연부 조직은 길어야 100만 년이면 다 광물질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화석들에서 연부 조직과 단백질, 적혈구 등이 발견되는 것일까? 공룡뿐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생각을 고정한 채 그것을 벗어난 결과들은 다 그저 놀랍고 특이한 현상으로만 제쳐 두는 것인가. 이런 태도 때문에 세상에 한번 잘못 전해진 진화론적 지식은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의 굳어 버린 양심에 기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학 뉴스가 얼마나 더 보도되어야 바뀔까? 공룡 진화론으로 연구비를 받는 과학자들과 공룡 영화와 화석 사업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다 죽기 전

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하면 기존의 공룡 학설이 뒤죽박죽이며, 이 기사조차도 진실은커녕 현상조차도 (그들이 늘 말하는 과학대로라도)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상 세 가지 뉴스를 통해 과학계의 현실과 진화 이론 사이의 모순을 소개했다. 아마 과학 지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기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반박하는 이 글은 또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텐데, 요점은 이렇다.

- ① 이 뉴스들은 기존 진화론 학설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② 그러나 기존 학설을 바로잡지는 않는다.
- ③ 이런 기사가 있어도 기존 과학은 변하지 않는다.
- ④ 그러므로 진화론은 진실이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과 지적설계론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독자들께서는 창조-진화 논쟁이나 기독교 변증을 할 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주의 암흑 에너지는 오랜 세월 정설로 통했지만 오류라고 주장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 돌연변이가 많아지면 죽는 것인데 어떻게 진화론은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가?
- 생물의 단백질은 최대 100만 년이면 광물화되는데, 왜 많은 공룡과 생물의 화석에서 단백질이 나오는가?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도 기원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화론만이 진실이 아니며, 오히려 진화론은 거짓과 비과학에 기반한 가설이며 믿음의 한 체계라는 사실이다.

많은 과학 뉴스를 접하면 창조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도 잠시 위축되기 마련이다. 하물며 진화론만 배운 학생들이나 신앙과 진화론을 둘 다 받아들이고 싶은 유신진화론자들은 어떻겠는가?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진화론 뉴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경적 창조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믿음의 체계지만 생물과 자연 현상의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성경은 자주 공격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신적인 논리와 역사로 검증돼 왔다. 반면에 진화론은 미신적이다. 가짜가 참을 이길 수 없듯이 뉴스든 논문이든 수백만 개가 세상에 나와도 결국은 진실을 뒤집지 못하거나 오히려 진리를 입증하고 마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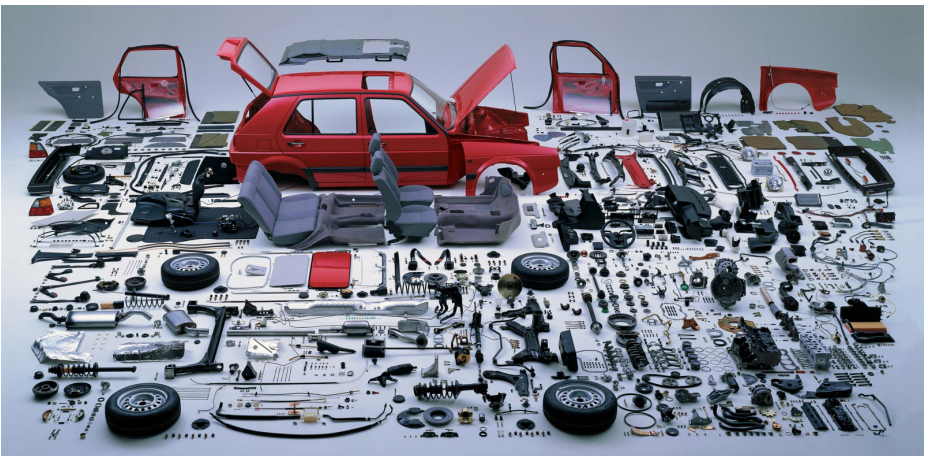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시 119:160) 

자동차와 세포만 비교해도 답 나오는 진화론

인간이 만든 기계와 비교할 수 없는 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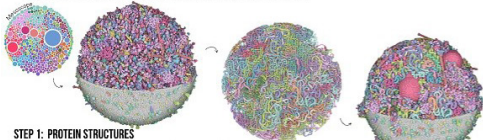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려면 2만 5,000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전기 자동차는 약 1만 5,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굉장히 복잡한 기계다. 자동차는 조금만 결함이 생겨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밀하게 설계되고 조립돼야 한다. 그래서 전문 설계자가 있고,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동차의 복잡성을 인체에 비교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이므로 세포에



Martina Martini¹, Ludovico Airoli¹, Jonathan Barr¹, Markus Cocker¹, Arthur Chien¹, David Goodell¹
¹Department of Integrative Structural and Computational Biology,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San Diego, CA, USA; ²Department of Genetics & Genomic Sciences, New York, NY, USA; ³Department of Biomechanical Engineering, Stanford, CA, USA

CONSTRUCTING A WHOLE-CELL 3D MODEL: THE PIPELINE



STEP 1: PROTEIN STRUCTURES RECONSTRUCTION

Recipe generation: every protein is assigned a structural representation. We used a semi-automated protocol to gather and validate structural data for each protein. Structures were retrieved from structural databases or generated via homology modeling. The final recipe includes 482 protein monomers and 201 protein complexes. The recipe is assembled and curated on online interactive platform Mesoscope (Kubin, 2020). Here, color patterns and ingredients concentrations are assigned.

STEP 2: MODELING THE NUCLEIC ACID ARCHITECTURE

Fibrous structures such as nucleic acids are modeled using a lattice based method (Goodell, 2018). The model includes 580079nt of circular DNA, 97 DNA-associated proteins, transcribing RNA polymerases, growing mRNA, free riboflavin and riboflavin complexed with ribosomes. DNA/RNA lengths and the relative positions of binding proteins are based on data from whole-cell simulations.

STEP 3: SIMULATE THE 3D ORGANIZATION OF THE CELL

The recipe and nucleoid model are assembled and visualized in CellPACK. Recipe components are distributed around the nucleoid and released within a defined cell volume using INCDIA Flex. Ingredients are approximated to beads and subjected to relaxation in order to resolve overlaps and cla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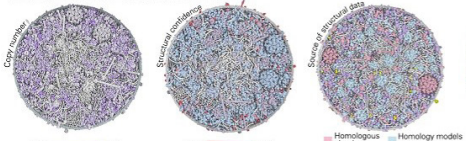
used whole-cell (WCC) simulation data to construct a physical whole-cell model.

Data about cell size, protein concentrations, protein positions on the DNA, mRNA count, ribosome's location on mRNA were extracted from WCC simulations.

Data integration of different data sources was performed through Meso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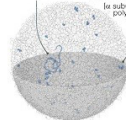
EXPLORING THE CELLULAR MESOSCALE WITH CELLPACK

COLORING INGREDIENTS BASED ON USER DEFINED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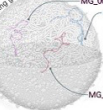
ISOLATE SINGLE GENES/PROTEINS

Gene: MG_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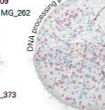


HIGHLIGHT GENES/PROTEINS INVOLVED IN SPECIFIC BIOLOGICAL FUNCTIONS

Protein: MG_177_MONOMER (a subunit of RNA polymerase)



Gene: MG_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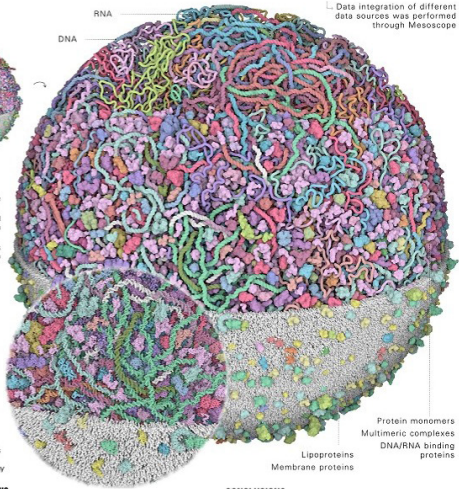


Gene: MG_262



Gene: MG_373

Gene: MG_373_MONOMER (a subunit of RNA polymerase)



CONCLUSIONS

We built the first whole-cell 3D model of a *Mycoplasma genitalium* (MG) cell at atomic resolution by combining data from whole-cell system biology simulation and structural biology.

Our work integrates whole-cell simulations, structural data, homology modeling, bacterial nucleoid modeling tools, data curation methods, and molecular graphics.

We set up a solid workflow that allows us to generate and navigate 3D molecular-scale snapshots of an entire bacterial cell, providing a structural model for all *Mycoplasma* proteins and nucleic acids.

References
 Barr, J., Martini, M., Airoli, L., Goodell, D., Barr, J., Cocker, M., et al. (2021) Whole-cell 3D model of a *Mycoplasma genitalium* cell at atomic resolution. *Nature*, 591(7848), 601-607. doi:10.1038/s41586-021-03119-9
 Barr, J., Barr, J., Barr, J., Barr, J., Barr, J., Barr, J., et al. (2021) Whole-cell 3D model of a *Mycoplasma genitalium* cell at atomic resolution. *Nature*, 591(7848), 601-607. doi:10.1038/s41586-021-03119-9
 Barr, J., Barr, J., Barr, J., Barr, J., Barr, J., Barr, J., et al. (2021) Whole-cell 3D model of a *Mycoplasma genitalium* cell at atomic resolution. *Nature*, 591(7848), 601-607. doi:10.1038/s41586-021-03119-9



입체로 구현한 세포

비교해 본다. 인간은 약 30~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데,¹ 세포 한 개는 또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 그림은 세포를 3D 입체로 구현한 것인데,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도 없는 작은 세포 한 개가 이토록 복잡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세포 한 개의 기전은 세상 어떤 기계와도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다. 세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의 방어, 영양소 전달, 독성 물질과 쓰레기 청소, 자체 에너지 공급, 다른 세포들과 연락, 데이터 저장 등 온갖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와 비교된다.

진화론은 과거에 존재했었는지 증명도 할 수 없는 '원시 바다'의 물에서 어떤

1. 많은 자료에서 인간의 세포 수는 60~70개 조로 나오는데, 최근 연구 결과로는 30~37조 개로 파악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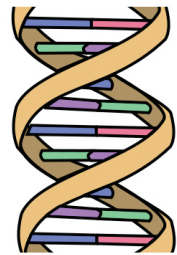
막이 형성되면서 코아세르베이트를 거쳐 세포가 됐을 거라는 폐기된 상상이 외에는 세포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원시 세포’라는 개념은 증거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운전대나 타이어 없는 자동차가 무용지물이듯이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완전해야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저 자동차 부품들이 스스로 결합해 완전한 형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 불가능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이 진화론이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세상이 창조되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아무도 못 봤으니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0%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자동차 부품이 저절로 조립됐다 쳐도 에너지가 없고 운전자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포들이 결합해 이루어진 생물은 스스로 움직인다. 24시간 신체 각 부분이 스스로 기능하며 회복하고 협력한다. 심지어 이 세포들의 결합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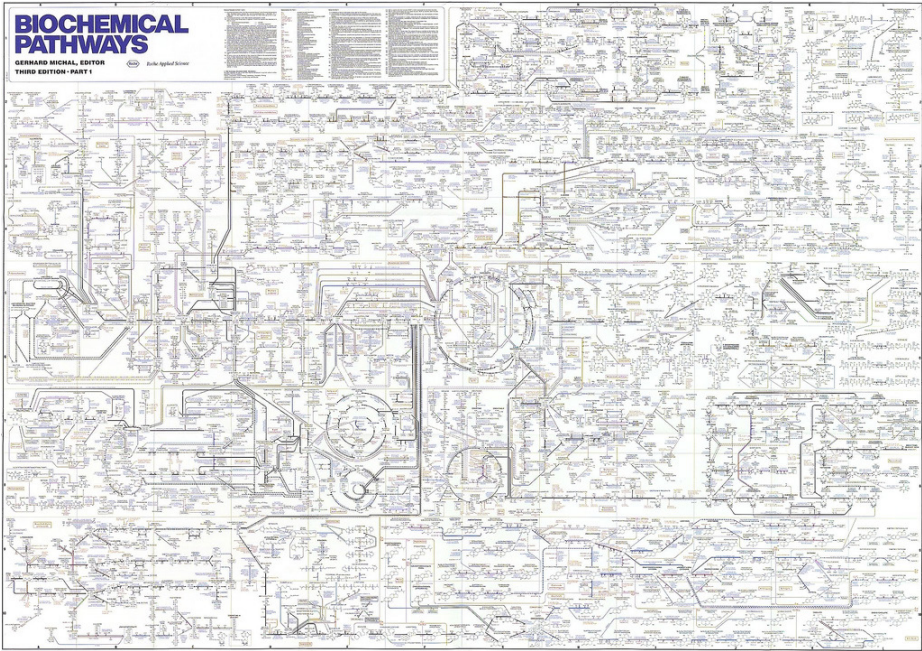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양심 불량’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인체의 모든 대사 과정에 대한 극히 대략적인 경로 지도이다. 각각의 경로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다 표현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할 것이다. 복잡도 자체보다도 이런 설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이처럼 복잡한 구조의 존재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난센스다.



- = Adenine
- = Thymine
- = Cytosine
- = Guan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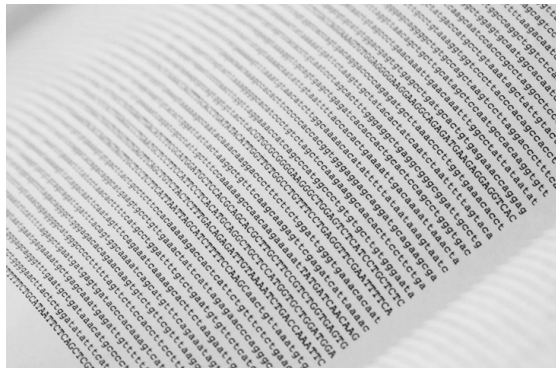
세포 1개의 DNA 유전 인자 지침은 대략적 수치지만 50억 글자에 해당한다. 페이지당 1,000자로 500쪽짜리 책이 10만 권 분량이다. 이 역시 중요한 것은 정보량의 놀라움보다



인체의 활성 대사 과정에 대한 '간략한' 지도

이런 규칙적인 암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 안에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아데닌(A)이라는 4개의 더 작은 뉴클레오티드가 컴퓨터의 0과 1 조합처럼 무한정 조합, 배열해 저장하고 재생한다. 사실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모른다. 그저 신비롭다는 말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만물이 저절로 어딘가에서 폭발로 만들어져 그것이 진화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되는데 수백억 년이면 족할까?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안 된다.



GCTA의 배열로 이루어진 인간 게놈 서열의 한 부분

불가능한 일이 있음직한 일이 되고, 시간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그 불가능성을 더 고착화할 뿐이다. 자동차가 스스로 조립이 되지 않는데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능해질까? 오히려 부품들은 더 낡고 망가지기만 할 것이다.

토네이도가 와서 자동차 부품들이 빙빙 돌다가 척척 조립됐다고 하면 다섯 살 꼬마도 코웃음을 칠 텐데 저 복잡한 세포와 생물은 그들이 말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고, 그 공통 조상은 무생물뿐인 돌가루, 먼지, 가스 덩어리에서 다 나왔다고 한다. 저들은 이걸 믿는 것이다.

작은 알에서 우주가 대폭발했다는 ‘빅뱅’의 그 작은 알(cosmic egg)은 언제 어디서 그 많은 것을 담고 있다가 폭발했으며, 그랬다 쳐도 먼지와 가스 덩어리가 돌다가 행성이 되고 지구가 됐다면 물은 언제 생기고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세포가 생겨나도 스스로 결합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도 설계자와 조립 라인이 있어야 완성차가 되는 것이다.

진화의 증거는 없다. 세상이 우연히 폭발에 의해 시작됐다는 가설은 그들이 서로를 조롱하며 만든 말인 큰(big) 뽕(bang)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대체 가설이 나오고, 정작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데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소비되는 소설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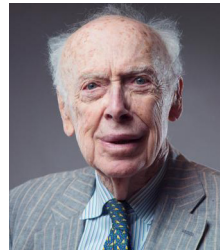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적 설계론까지는 와야 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자가 아니어도 어떤 존재이든 손길이 있어야 가능했음을 인정해야 양심이 있는 과학자요, 지성인이 아닐까. 진실이지만 따를 수 없다면, 거짓이지만 믿고 싶다면 그것은 신앙이다. 진화론이 가설이고 사상이며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게 속을 필요는 전혀 없다. ❸

인간 게놈 권위자의 인종에 대한 편견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J. Watson)은 흑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진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갈라졌는데도 인간의 지능이 똑같이 진화했다고 기대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작 왓슨은 일반 백인보다 월등히 많은 흑인 유전자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의 유전자 중에서 일반 유럽계 인종보다 16배 많은 16퍼센트가 아프리카 출신 흑인 조상의 유전자로 밝혀졌다. 그의 흑인 유전자 비율은 증조부모 중 한 명이 흑인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제임스 왓슨

1953년 프랜시스 크릭(F. Crick)과 함께 DNA 2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은 1988년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의 인간 게놈(genome)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생물학자 중 한 명이었던 그가 2007년에 뜬금없는 인종 차별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왓슨의 주장은

“흑인들은 백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일반 신문의 기사이다.

왓슨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여기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흑인 직원들을 다뤄 본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며 인간 지능의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가 10년 만에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왓슨은 다음 주 나오는 자신의 책 『지루한 사람을 피하라(Avoid Boring People)』에서도 “진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갈라졌는데도 인간의 지능이 똑같이 진화했다고 기대할 어떤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터뷰는 런던 과학 박물관 강연 등을 위해 17일 왓슨의 영국 방문에 앞서 이뤄졌다.

왓슨은 암과 유전자 분야에서 과학적 업적을 인정받아 1962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지만, 성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각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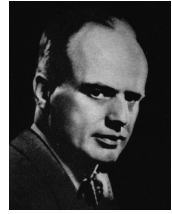
영국 하원 내무특별위원회 키스 배즈 위원장은 <인디펜던트> 17일 자 인터뷰에서 “대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가 이처럼 근거 없고, 비과학적이며 극단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다니 유감”이라며, “과학계가 왓슨의 개인적 편견으로 보이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인종 차별 반대 단체들은 왓슨의 발언이 인종 증오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 2007년 10월 17일 자]

이후 제임스 왓슨은 1968년부터 40년 가까이 몸을 담았던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를 나오게 됐다.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 2007년 12월 9일 자는 왓슨의 유전자 16%에서 아프리카 출신 흑인 조상의 것이 발견됐다고 보도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인류는 모두 노아의 세 아들 부부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겠지만, 인류가 세 부류로 압축되는 뚜렷한 경향이 있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극단적인 인구 축소의 시점이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근래에 와서 매우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한두 세대만 섞이면 인종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류는 한 종류에 불과함을 알게 한다. 아마 온 인류가 섞인다면 노아의 아들 세 부부 정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한편 제임스 왓슨만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녔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우생학자와 진화론자들이 인종에 관해 무지한 발언을 했고, 황당한 혐오정책이 쏟아진 야만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저술가인 1961년에 칼튼 퍼트넘(뜻남, C. Putnam)은 이렇게 말했다.




칼튼 퍼트넘

흑인이 백인처럼 진화하려면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5천억 년에 걸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흑인은 백인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¹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거 없고 무지한 주장이다. 백인보다 뛰어난 흑인도 많고 무능하고 악한 백인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의 외모에 머물지 않듯이, 인격이나 우월함은 피부색에 있지 않다. 이것이 진화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 준다.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하므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약 2:9)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벧전 1:17) 

1. Carleton Putnam(1901–1998); Race and Reason: A Yankee View, p 53, Public Affairs Press, Washington DC, 1961

지상 최대의 가짜 뉴스

요즘 가짜 뉴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사람의 말은 전달하면서 왜곡되기 마련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생산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가짜 뉴스 문제를 다룬 한 기사를 보니 가짜 뉴스 만연 현상을 분석,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정보를 따져 보고 곱씹는 일에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귀찮다는 것. 맞는 말이다. 진리와 정의를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고, 튀고 싶지 않아서다.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면 웬지 안전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 가자.”

“혼자 잘난 척하다 손해 볼지 모른다.”

“멀쩡한 유력 언론사가 설마 뻔한 거짓말을 했겠어?”

이렇게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앞뒤를 잘 따지지 않는 것이다. 다수는 늘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매를 맞아도 같이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무리지어 낭떠러지를 향하는 일이 많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마 7:13~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것은 커트라인이 높다는 뜻이 아니다. 다들 원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만 받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오라고 했지만 소수만이 잠깐의 귀찮음을 박차고 진리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초청은 모두가 받았다.

생명의 문이 좁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면서도 잘 찾지 않는다는 의미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외롭고 힘들고, 비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는 이가 적어서 좁은 문이다. 넓은 길은 핍박받지 않는 길이며 많은 자들이 걷는 안전한(?) 길이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 분석 기사를 보니, 어떤 이가 이런 말로 가짜 뉴스를 찾는 이들의 심리를 설명했다고 한다.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을 부인하는 것은, (창조론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화론이 사실일 경우에 종교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론을 가짜 뉴스에 대입했다. 하지만 이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모순된 말이다. 왜 그럴까?

진화론을 택하고도 종교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많다. 그들은 갖가지 핑계와 새로운 성경 해석을 통해 진화론과 신을 동시에 섬긴다. 오히려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택하면 곧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저 말은 자신들의 심리로 창조론자들을 바라본 결과이다. 저 말은 거꾸로 해야 더 정확한 말이 된다.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부인하는 것은, (진화론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론이 사실일 경우에 창조주 앞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이야말로 지상 최대, 인류 최악의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뉴스다. 진화론도 ‘사실이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탄생한 가설이다. 진화해 나간 과정의 화석도 아예 없고, 관찰되는 사례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정설이고 과학인가? 전에 없던 애완견 품종이 오늘 나오는 것은 진화가 아니다. 그것은 ‘분화’이며 ‘종의 다양화’로서 성경도 인정하고 창조론자들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다.

- 신을 부정하는 데 필요한 뉴스,
- 혹시 신이 있을까 짚짚할 때 믿고 싶은 뉴스,
- 혼자만 속게 될까 봐 불안해서 퍼뜨리는 뉴스...

이것이 진화설이라는 가짜 뉴스, 역사상 최대, 최고의 가짜 뉴스다. 이 거짓은 에덴동산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한 말과 연관이 깊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

이 말과 진화설은 결국 같은 거짓말이다. 창조주는 없다, 안 믿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無)에서 ‘우연히’ 발생해 긴 시간 동안 ‘저절로’ 진화했으므로… 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 뉴스가 가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가짜 뉴스란 말인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듯이, 작은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지만 전 인류를 속이면 과학이 되고 정설이 된다. 그것이 ‘규모’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귀찮아도 따져 보고 검증해야 거짓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죽을 상황인데도 죽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fake news)… 이것이 복음, 즉 굿 뉴스(good news)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속임수요, 지상 최대의 가짜 뉴스다. 🌀

리처드 도킨스 내한, 다수의 '망상' 진화론을 말하다

2017년 리처드 도킨스가 내한했다. 1976년에 베스트셀러 『이기적인 유전자(The Selfish Gene)』¹를 써서 큰 반향을 일으킨 그는 진화론의 한 축인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기독교와도 싸웠지만 화석 증거가 전혀 없는 점진적 진화론을 반대하는 스티븐 제이 굴드 등의 진화학자들과도 많은 논쟁을 했다. 여전히 도킨스는 모두 거부되고 거짓으로 드러나 과학 교과서에서조차 빠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루시) 따위의 화석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강연을 한다.

어떤 주장을 공유하는 무리가 많아지면 하나의 학문이 된다. 세상이 아무리 신학을 거부해도 그것을 믿는 이가 많으면 그것이 정식 대학 설립의 조건이 되고 학술 발표나 학위 수여가 가능해지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부실한 학문도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순간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의 내한을 소개하는 한 뉴스는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2006)에서 그가 한 말을 인용했다.

1. 최근 밈(meme)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유행어나 사진 같은 것이 여러 곳에서 응용되고 확산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개념이다. 모방하는(mimesis) + 유전자(gene)라는 합성어이며, 남을 모방하면서 퍼져나가 것, 유전자의 확산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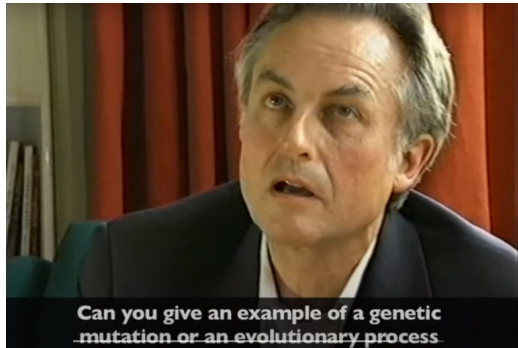
개인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하고,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는 이 말을 기독교를 향해서 했겠지만 기독교의 참된 정체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들도 종교화되는 신앙은 원치 않고 배격한다. 종교화된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그 주변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종교인은 참으로 많으나 신앙인은 적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믿는 이들의 망상은 정말 심각하다. 그들은 어떤 증거도 없이 그 엄청난 사실을 다 믿고 있다. 실로 '다수의 망상' 중 가장 큰 세력을 지닌 것이 진화 사상이다. 이것은 그냥 사상이고 믿음의 체계다. 진화의 증거는 0이고, 진화의 가능성도 0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발화 지점은 다 소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증거들은 창조를 대입할 때 훨씬 설득력이 생긴다.

진화된 종과 종을 잇는 중간 종의 화석, 즉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도 없고, 현재 진화가 관측되지도 않으며, 생명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은 소멸하고 퇴화하는데도 자연이 스스로 선택한 우연 발생과 진화를 믿는다면 그것은 망상... 종교 아닌가?

도킨스는 세계 최고의 진화학자다. 그러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호주 창조과학 기관에서 인터뷰한 영상에서 그는 “진화



진화의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 못하는 리처드 도킨스

의 중간 과정이나 유전적 돌연변이의 예를 하나만 제시해 주시겠어요?”라는 질문에 한참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무 대답도 못했다.

‘도킨스의 굴욕’이라는 이 동영상은 적이지만 보고 있기가 민망하고 안쓰러울 정도다. 중간 종이 없는데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졌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과학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 유전적 정보의 증가가 없이 어떻게 의미 있는 돌연변이가 생겨 새로운 종의 실마리가 되겠는가?

이 세계 최고의 학자는 여기서 카메라를 멈춰 달라고 한 뒤에 생각을 잘 정리해 진화의 ‘가능성’에 대해 장황하게 다시 설명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증거가 없을 뿐 가설은 풍부했다는 증거다.

결국 진화론은 가설이요, 드라마이며, 믿음… 종교에 가깝다.

도킨스의 명성에 속지 말고 그의 저서들을 읽어 보라. 드라마틱한 글밭에 취하지 말고 증거 자체를 찾아보라. 진실을 알고 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가 전제로 깔고 있는 진화가 사실이라는 믿음을 빼고 담백한 증거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 책은 진화가 사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닌 자들을 안내한다. 마치 신학 서적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킨스의 종교는 진화론이다.

세계적 석학이라고 쫓 필요 없다. 그는 천주교의 교황처럼 특정 종교의 수장이나 지도자에 불과하다.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이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미 믿고 따르는 자가 넘쳐 나기 때문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구한 방법 중 하나로, “내가 유전자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자연의 한 개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가정으로 진화의 방향을 예측했다고 말했다. 인간은 이미 지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 수준의 사고와 지능이 없는 존재의 사고력을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유전자나 단세포 동물 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의 설계 흔적 혹은 스스로의 지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과학자이기보다는 사상가이며 문학가다.

다수의 망상... 어느 쪽이 망상인가?

‘사실’을 따라가면 ‘진실’을 만나고, ‘진실’의 뿌리를 찾으면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과 거짓을 몰라 불안하던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종교에 머무는 자는 끝내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태에 머물러도 진리를 알기 어려운 세상인데, 진화설이라는 종교에 빠진 자들이 자유에 이르는 방법은 멀기만 하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 종교와 과학을 구분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진화의 가설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없다면, 망상에 빠져 증거 하나 못 내놓는 노 과학자의 마법에서 영영 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⑧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진화론

찰스 다윈은 자신의 책 『인간의 혈통』에서 ‘자연 선택은 궁극적으로 야만 족속을 제거하고 문명화된 인간 족속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주장한 ‘자연 선택’이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으로, 문명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 없애 지적이고 고등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A. Hitler)는 열정적인 진화론 숭배자로서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종족’이라고 생각하며 학살했는데, 이 행위가 자연 선택의 한 과정이라는 논리로 대중을 설득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유물론’에 기초한다. 어떤 두 개의 물건(물질)이 충돌했을 때 약한 것이 부러지고 더 강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며, 거기에는 ‘죄’나 누구의 ‘잘못’, ‘가해’ 등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일종의 물질로 보는 진화론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신봉하면서 가장 잘 활용한 독재자가 히틀러였다. 그는 자신들의 종족이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 아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독일의 흑역사는 세계인에 큰 상처를 남겼다.

오른팔을 위로 45도 뻗어서 하는 나치당의 인사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

는 유럽에서 금지된 인사
 법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까지 일부 극우주의자들
 은 히틀러를 기리면서 물
 의를 일으킨다.

2018년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식 이름에까지
 ‘아돌프’를 넣은 영국 부
 부에게 각각 5~6년의 실
 형이 내려졌다니 유럽인
 들의 트라우마를 짐작할
 수 있다.

독일은 아흔이 넘은 나
 치 부역자를 지금도 잡아
 들여 법에 따라 엄벌하면
 서 비극적인 과거가 되풀
 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
 울인다.

한편 나치당의 빨간 완장 때문인지, 히틀러를 좌익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치즘은 오른쪽 끝, 극우의 이념이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극우주의
 자들이 히틀러의 생일에 나치 깃발 하켄크로이츠와 일본 제국 깃발인 육일기
 를 같이 들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하는 것이다.

전체주의는 극우와 극좌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일을 두고 자기 쪽만 옳다고 할 때 이런 역사의 오류가 나타나고 독
 재자가 등장한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진화론적 생각이며 유
 물론(물질주의)이다.



“하일, 히틀러(Heil, Hitler)”, 소년들의 인사를 받는 히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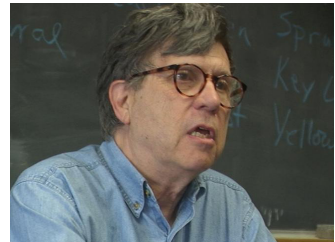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 행진하고 있는 일본 극우 단체 회원들.

하버드 대학의 진화 과학자 리처드 르윈틴(R. Lewontin)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우리의 선제적 전제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직관에 반하고 황당하게 보일 지라도, 유물론적 설명을 도출해 내는 조사 방법과 일련의 개념들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그 유물론은 절대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신적 존재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¹

유물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이처럼 유물론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다. 이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접목할 때 그것은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스탈린 같은 극좌의 지도자



리처드 르윈틴

나 히틀러 같은 극우의 지도자가 모두 독재의 살인마였음을 잊으면 안 된다.

유물론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비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전쟁도 불사하며 학살도 정당화한다. 오늘날 철없는 사람들이, 히틀러가 힘이 있어서 정권을 잡은 것인데 그렇게 나쁜 것이냐고 반문하는 이유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남긴 타산지석의 교훈은 독재적 이념이지만, 그 너머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와는 다른 인간에 대한 증오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제거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사상은 결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진화론, 더 근원적으로는 유물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㉘

1. Richard Lewontin, Billions and billions of demons, The New York Review, p. 31, 9 January 1997.

UFO는 없어도 외계 생명체는 확실히 있다?

잇을 만나면 공개되는 UFO 자료

가끔 각국 정보기관의 미확인 비행 물체(UFO)의 자료가 공개된다. 2020년에도 확인되지 않은 비행 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으로 분류된 세 편의 동영상과 미 국방부 발로 공개됐었다(아래 사진).

이런 미확인 비행 물체 공개에 관한 소식은 이제 의례적인 일이 되었다. 뭘 감추고 싶어서 뒤늦게 선별해 공개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왜 국가기밀인지도 명분이 없다. 진짜 외계의 침공이거나 위협이라면 빨리 공개해 지구인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신속히 국제 공조를 이루어야 할



일이고, 다른 나라의 비행체라도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저런 동영상도 있으니 UFO가 진짜 있다는 것인가? 음모론이나 공상 과학적 상상이 아닌, 자연 현상이거나 확인 가능한 물체를 오인한 것도 아닌, 정말 지구촌 어디에서도 띄운 적 없는 비행체가 있다는 말인가?

상당수의 가짜 증거와 오인, 그리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언들이 대

부분이지만 분명 지구상의 기술로는 해낼 수 없는 비행술과 속도를 자랑하는 물체들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외 조종사들이 목격한 것만도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외계 행성에서 온 지적 존재들일까?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문명이 앞선 어느 별에서 온 생명체들이 탑승한 이동 수단이라는 뜻인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내계인, 즉 지구 땅속에서 올라온 마귀의 줄개들이라는 주장이 성경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1,2}

SETI와 외계 지적 생명 탐사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들은 의외로 놀라운 답을 한다. 오늘의 주제는 천문학자들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많은 UFO의 흔적이 있다지만, 외계에서 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어설픈 전문가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하기도 했던 외계 생명체



국내의 대표적인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 UFO의 증거 중 믿을 만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그리스도예수안에) 참고.
2. 성경에 UFO의 비밀과 해답이 있다(<https://blog.naver.com/woogy68/140179178793>)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이명헌 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외계 신호를 60여 년 동안 추적한 세티(SETI³) 프로젝트의 한국 책임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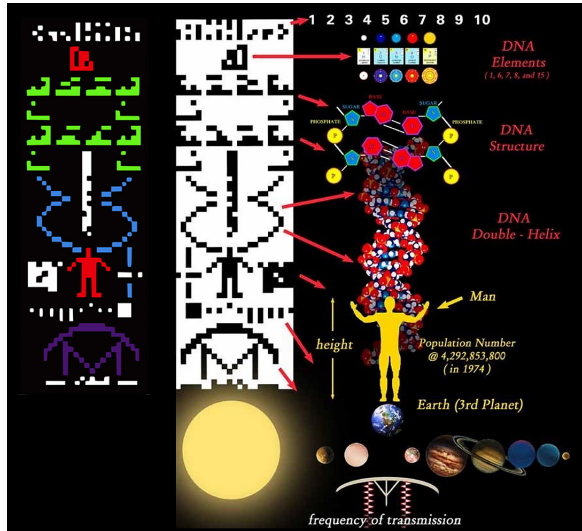


SETI는 영화 <콘택트>(1997)의 원작자이자 『코스모스』의 저자이면서 동명의 TV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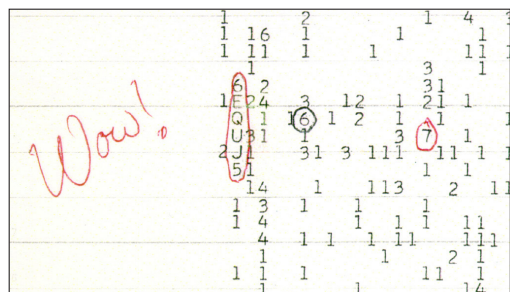
칼 세이건(C. Sagan)이 이끈 유명한 프로젝트로 1960년부터 외계 생명체 탐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관련자들은 지구인들의 DNA와 각종 정보들을 신호로 외계에 쏘아 올리고, 전파 망원경 등을 동원해 외부 유입 신호를 수집해 왔다.

천문학자들은 외계에서 오는 더 많은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수백 미터짜리 전파 망원경의 크기를 점점 넓히고 있다. 곧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을 소유하게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잡힌 신호는 변변한 것이 없었다. 그중 1977년 오하이오 주 립대에서 잡힌 신호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관찰 중이던 제리 이만(J. R. Ehman) 교수가 너무 놀라서 와우!(Wow!)라고 적은 것 때문에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린다(위 사진).



1974년 SETI가 우주에 쏘아 올린 인류에 관한 정보들. 숫자와 DNA, 인간의 형상,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 등을 담았다.



3.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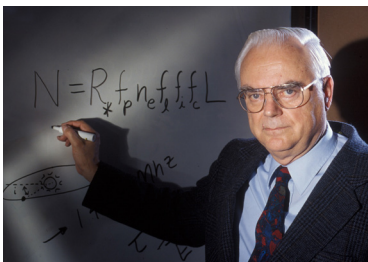
전파 신호는 강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나고 그것을 넘어서면 알파벳순으로 매겨지는데, 그날은 72초간 높은 숫자들과 알파벳이 여러 개 기록됐다는 것이다. 그 전파는 공수좌 쪽에서 잡혔다고 하지만 이후로는 또다시 지금까지 긴 침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런 천문학 쪽의 전문가들이 그토록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도 믿을 만한 UFO는 없다고 말한다. 그 의미는 추론이나 유추, 환상이나 개인적 체험 등이 아니라 명백하게 모두가 수궁할 만한 외계의 비행체는 없다는 의미다. 그들은 UFO가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는 주장에 과학적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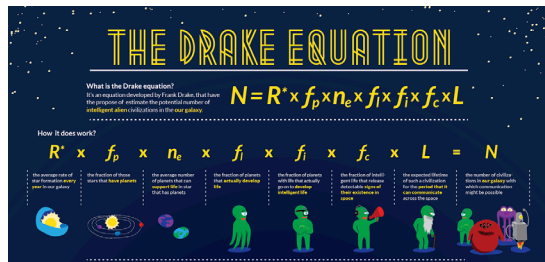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이들은 외계의 지적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한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확신하는 것은 ‘확률’이다. 우주에는 지구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인간이 관측하지 못하는 우주까지 계산하면 실로 천문학적 숫자의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구처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별만 따져도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프랭크 드레이크(F. Drake) 박사는 일찍이 이 확률을 계산해 값을 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이 계산법에 따르면, 외계의 행성 수를 몇 개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수억의 별들이 외계 생명체 생존의 대상이 된다.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



드레이크 방정식을 나타낸 인포그래픽

N = 의사소통이 가능한 은하의 문명 수

R_* = 우리 은하에서 별 형성의 평균 속도

f_p = 행성을 거느린 별의 비율

n_e = 행성이 있는 별마다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평균 행성 수

f_l = 어떤 시점에서 실제로 생명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행성의 비율

f_i = 실제로 지능적인 삶(문명)을 발전시키는 삶을 가진 행성의 비율

f_c = 자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징후를 우주로 방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문명의 비율

L = 그러한 문명이 우주로 탐지 가능한 신호를 방출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것인데, 너무 엄청난 추측과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계산법이다. 이 계산법이나 진화론 자체의 가장 큰 오류는 '전제의 오류'이다. 있었을 것이라는,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계산 결과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외계인, 만날 수 없는 존재지만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많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99.999%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을 찾거나 그들이 지구를 찾을 확률은 0%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든다.

1. 수백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역사는 매우 짧다. 본격적으로 외계인을 탐사한 시기는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명현 박사와 한 인터뷰 페이지

년도 안 된다. 인류는 그 스쳐 가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 있다.

2. 지구는 우주의 한구석에 있는 작은 별이므로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도 주인공도 아니다. 그들이 지구를 알고 있다 해도 먼 우주에서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 지구까지 방문하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3. 지구를 발견했거나 올 의지가 있다 해도 빛의 속도로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워홀을 통해 시공간의 터널을 넘어온다 해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은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지,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비현실적인 추론으로 공상 과학과 차이가 별로 없다. 게다가 우주의 나이와 넓이, 탄생 과정 등에서 현존하는 이론을 불신하거나 다른 이론을 지닌 사람이라면 전제 자체가 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도 외계인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교육된다.

아무튼 그렇다 한다. 일단 그렇다 치자. 그러나 외계인이 지구에 올 수 없고, 발견할 일도 희박하다면서 최근에는 아주 도발적이고 단언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시간대까지 예언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대표



세스 쇼스타크

적인 인물이 SETI 연구소의 세스 쇼스타크(S. Shostak) 같은 사람이다. 그는 2017년 미국 의회 과학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과학자들의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20년 내에 외계인을 찾게 될 것이다. 가능성은 100%, 필요한 것은 자금이

When will we make contact?

2026



Douglas Vakoch
METI International

"My best guess for when we'll detect extraterrestrial life, if in fact we make contact in my lifetime, is by 2026 - just a decade from now"

2036



Seth Shostak
SETI Institute

"I've bet everyone a cup of coffee that we'll find a signal within two decades. If not, I'll have the opportunity to buy a lot of brew"

2046



John Elliott
UK SETI Research Network

"In 30 years, I think we'll have the dish capacity, techniques and computing power, as well as the knowledge of where is best to target"

2066



Andrew Siemion
Berkeley SETI Research Center

"If we haven't detected evidence of intelligent life beyond the Earth in 50 years, it is likely that we are essentially alone in the visible universe"

2116



Gerald Harp
Berkeley SETI Research Center

"My firm prediction is [that we will detect intelligent life] 100 years from now. I'm very confident, since I will be dead by then"

세스 쇼스타크를 포함해 외계인과의 조우 시점을 예상한 사람들. 2026년부터 2116년까지 다양하다.

다. 발견 시기가 문제일 뿐 존재 여부는 확실하다.”

가능성이 아예 100%란다. 그것도 20년 내에 반드시 찾는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금’이라는 거다. 우주 개발과 외계인 탐사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오래전부터 의회를 설득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언제나 국가 예산을 타 내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그런데 세스 쇼스타크는 무엇을 믿고 저런 과감한 발언을 했을까? 그는 1943년생이다. 2017년에 74세였고 그가 장담한 20년 후면 94세가 된다. 그때까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연구비를 받는다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에 대한 책임도 희미해진다. 94세까지 살아 있을지도 의문이고, 살아 있어도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완전히 은퇴한 상태일 것이다.

결국 목적은 돈이다. UFO 자료 공개로 시끄럽던 2020년 2월 16일자 BBC 뉴스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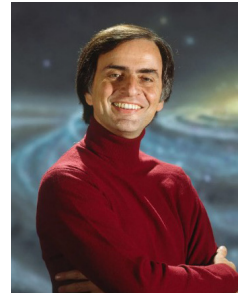
“천문학자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 연구에 공적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천문대의 안토니 비즐리 소장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지적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비즐리

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기금 배분을 기피했던 이 분야에 범정부 차원의 공적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SETI 관련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그들은 외계 생명체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로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안 돼도 그만인 머나먼 우주로 눈길을 돌린 것 아닌가….

UFO도 미스터리로 남겨둔 채 무엇 하나 밝혀낼 수 없다면서 어떻게 무슨 기술로 상상 속의 존재를 만나겠다는 것인가. 단언컨대 외계에는 생명체가 없다. 우주의 모든 이론은 티끌 같은 근거로 거대한 공상의 나래를 편 서사이며 판타지 드라마다.

SETI 설립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 보면, 과학보다는 장엄한 우주에 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희망 섞인 한 편의 시적 상상력임을 알 수 있다. 마치 리처드 도킨스의 두꺼운 책들처럼 자연의 위대함을 공색한 논리로 설명하려는 추론만 가득하고, 그에 대한 증거 제시는 없는 것이다.



칼 세이건

UFO는 외계인의 이동 수단이 아니며,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는 없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오랜 시도에도 허무하고 초라한 결과뿐이자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관련자들의 호기와 단언은 여전하다.

외계인과 UFO 등 모든 징조가 주님 재림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참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참된 것은 바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시도를 방해하며 우리의 시선을 존재하지 않는 곳을 향하게 만들거나,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일들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

거짓말쟁이 소년의 위대한 성공

‘거짓말쟁이’라고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이 믿지 못할 기상천외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소년이 학교 친구들과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돌멩이를 발견했다. 그는 돌멩이를 집어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친구에게 대단한 보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돌을 살펴본 친구들은 “말도 안 돼!” 하며 그를 남겨 두고 가 버렸다.

선생님의 질문에 소년은 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대답을 하곤 했다. 그가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혼을 냈다. 게다가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그의 학교 생활을 알렸다. 아버지가 아들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소년을 자세히 관찰한 아버지는 아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저 상상하기를 좋아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루는 밖에서 놀던 소년이 동전 하나를 주웠다. 그는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자기 누이에게 고대 로마 시대의 동전이라고 말했다. 누나가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보통 동전일 뿐이었다. 화가 난 누나가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 동생이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내 주길 바랐던 것이다. 아버

지는 소년을 불렀다. 하지만 꾸중 대신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말했다.

“얘야, 넌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소년을 감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예뻐하기만 하니 못된 버릇이 생긴 거라며, 저 아이는 커서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고 소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 주었다.

나중에 이 소년은 정말로 나쁜 사기꾼에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

리더십과 처세술을 다루는 어느 책에 인용된 내용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 왜 소년의 아버지는 거짓말을 권장하고 칭찬했을까... 그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난다.

사실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다.

말도 끝도 없이 위대하다? 그 소년은 진화론을 발표할 때까지 특별한 위대함을 보여준 적이 없다. 스스로도 소심하고 평균 이하의 지적 능력을 지녔다고 했을 정도다. 거짓말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저 책의 결론에 따라 진화론은 위대한(?) 상상이고 결국 거짓말이다.

책의 저자도 진화론이 상상력의 산물임을 인정한다. 소년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인재가 될 수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혁신적이고 비범한 상상력이며 거짓말이라는 거다. 그런데... 다윈이 위대하면 거짓말도 장점이 되고 비범함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처세술 책은



찰스 다윈과 그의 누이(1816)

거짓말 많이 해서 성공하라는 것일까? 세상 모든 소년들은 그 소년을 벤치마킹했어야 했던 걸까... 책 참 쉽게 쓴다.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내 생각대로 결론짓는다면 이렇게 쓸 것 같다.

이 소년은 자라서 정말 대단한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봉이 김선달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민망할 만큼 엄청난 사기꾼이 되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선각자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다.

성경은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 마귀라고 말씀한다(요 8:44). 또한 성경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계 21:27). 물론 오직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했다(롬 3:4).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타인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행위 또는 하나님을 두고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

계시록은, 아니 모든 성경 기록은 말씀의 왜곡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난다. 말씀의 왜곡은 하나님이 맨 처음 선언하시고 가르치신 하늘과 땅의 창조 사실에 거짓을 더하는 것도 해당될 것이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잠 30:6)

찰스 다윈은 생명의 씨앗을 창조주가 주셨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스스로 진화해 모든 생물과 인간까지 되었을 것이라는 거짓을 더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년 현상적 창조를 행하신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완전체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

각을 더하니 그것이 거짓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의 대담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쟁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가 상상한 공통 조상 이전의 우주 대폭발과 무생명의 시대까지 진화론으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제 다윈이 그나마 유신진화론자였다는 사실조차 잊히고 있다. 그 역시 거짓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여러 자료에 나타난 다윈은 소심했지만 그리 악한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더 많은 화석이 발굴되면 진화의 중간 종이 나올 줄 알았지만 성과가 없자 울고 싶다는 말을 남겼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죽기 직전에는 자기 연구를 후회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고, 많은 이들이 창조론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의 도구로 걸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다윈은 1809년 2월 12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의 거짓과 상상력을 따라 수많은 인류가 걸려 넘어져 지옥문을 향했고, 오늘도 그러고 있다. 어떤 생명도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건만 다윈의 탄생과 그의 거짓말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마귀의 한 수가 되고 말았다. 본인의 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거짓을 믿는 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어 안락사하게 만든 찰스 다윈. 가룟 유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는 바로 그가 아닌가 싶다.

… 그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막 14:21)

유다는 자기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일을 이룬 자로서 어차피 다가올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십자가 사역의 도구였지만 유다는 멸망의 넓은 문을 여는 단초가 되는 연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비극적이라 할 수 있다. 거짓은 종교를 떠나서 과학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속지 말자. 진화는 다윈 이후로 오히려 더 허구임이 드러난 상상이며 거짓임.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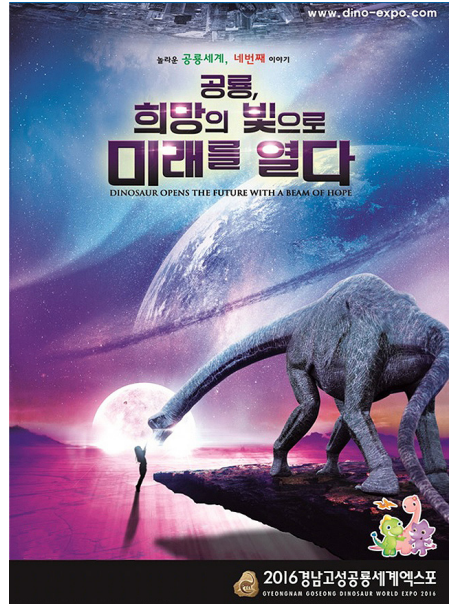
공룡 축제, 판타지에서 깨어나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천 가지 축제 중에 쓸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혹자를 넘어 대박을 터뜨리는 유명 축제는 아주 드문데, 그중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경상남도 고성 의 ‘공룡 세계 엑스포’이다.

이 축제에는 매년 백만 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수도권에서만 경남 지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성공하여 안착한 축제라 할 수 있다.

거듭된 성공으로 많은 예산의 활용이 가능해진 탓인지 시설도 전시물도 업그레이드된다. 이 축제의 흥행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거래 업체와 하부 기관에까지 티켓을 강매하고 압박한 문제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내가 소속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에서 이 축제의 주최 측에 건의를



한 적이 있다. 공룡이 사실은 그리 오래된 동물이 아니며 사람과 함께 살았고, 그 증거들이 무수히 많다... 등등.

물론 예상대로 행사 관계자는 그런 주장을 일축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인지 과학적인지 등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공룡이 얼마 안 됐다고 하면 흥행이 안 된다는 것.’

알 만하다. 그들의 말은 맞는다. 그토록 많은 아이들과 방문객이 이 축제에 모이는 이유는 공룡을 향한 신비감 때문이다. 한 번도, 아무도 만나 보지 못한 집채만 한 동물에 대한 판타지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게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니 아무리 포악하고 사나워도 안전하다.

공룡 흥행의 포인트는 바로 그 ‘오래됐다는 신비감’이다. ‘진실’이 아니라 ‘판타지’인 것이다. 문제는 공룡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식의 ‘판타지’로서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구적 요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학부모들도 조금 더 이 축제를 선호할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이 공룡이니까 말이다. 주최 측으로서는 판타지와 과학이 결합되니 이 이상 좋은 테마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거짓을 즐기는 것이다. 왜 그런가? 공룡의 연대는 모두 터무니없이 잘못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의 탈을 쓴 진화론의 아이러니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참된 과학이면 오히려 더 견고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과학자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A를 B라 해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파된다.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지속되는 이유는 진화론이 하나의 이권이자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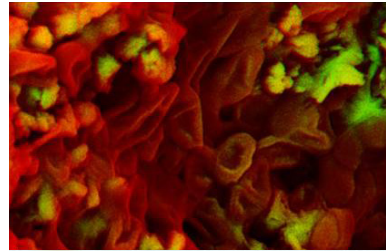
공룡 연부 조직 연이어 발견!

공룡이 최소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시대에 찍힌 발자국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증거도 매우 많다. 다음은 공룡이 중생대라는 허구 속 시간의 동물이 아니라는 일반 언론의 보도들이다. 한국창조과학회 이병수 교수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지만 창조과학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진은 박물관에 전시된 7,500만 년 전의 공룡 뼈에서 적혈구와 연부 조직이 발견된 사례다(BBC 뉴스, 2015. 6. 9).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적혈구가 남아 있으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6,600만 년은 절대 아니다.

이 보도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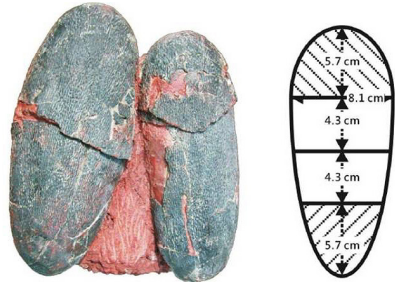
1.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평범한 공룡 뼈들로 실험했고, 8개 중 6개에서 연부 조직이 발견되었다.
2. 공룡의 주요 두 강(classes)에서 모두 채취된, 해부학적으로 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있던 뼈들이었다.
3. 연구팀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4. 주사 전자 현미경(SEM), 투과 전자 현미경(TEM),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법, 집속 이온 빔(FIB) 질량 분석 등을 사용했다.
5. 대조군(controls)으로 토끼 뼈, 섬유가 결여된 또 다른 뼈, 에뮤 혈액, 구리 격자를 사용하여 비교 관찰했다.
6. 두 종류의 분명한 연부 조직, 즉 콜라겐(collagen)과 수축되어 있는 적혈구(red blood cells)를 관측하였다.



공룡에서 발견된 적혈구와 연부 조직

그리고 이제 공룡 뼈에서 연부 조직이 계속해서 발견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부 조직(soft tissue)이란 뼈를 둘러싼 근육과 힘줄, 인대, 지방, 혈관 등을 말한다. 이처럼 공룡의 화석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 이제 ‘화석’이라고 하기에 어색할 정도다.

아직 푸른빛을 띤 공룡의 알 화석도 있다. 이는 복잡한 유기 분자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으로 역시 짧은 연대를 지지하는 증거이다.¹ 1억 9천만 년 전이라는 초기 쥐라기의 공룡알 화석에서도 아직 남아 있는 유기 물질이 발견되었다.²



푸른빛을 띤 공룡의 알 화석

8천만 년 전(?)의 모사사우루스 화석에서도 망막과 혈액 잔여물이 발견되었다.³



망막 등이 발견된 모사사우루스 화석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도 어렵다. 이쯤 되면 화석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화석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격변에서만 생기는 것이다. 서서히 묻히는 화석은 없다. 진흙더미가 급속도로 덮칠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미 종교가 된 진화론은 ‘나 외에 다른 학설을 섞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모든 과학 연구의 기반이 진화론이다 보니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자는 무조건 배척당한다.

그러나 이미 종교가 된 진화론은 ‘나 외에 다른 학설을 섞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모든 과학 연구의 기반이 진화론이다 보니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자는 무조건 배척당한다.

미국의 마크 아미티지(M. Armitage) 박사는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1. <The blue-green eggs of dinosaurs: How fossil metabolites provide insights into the evolution of bird reproduction.> New Scientist, 2015. 6. 1.
 2. <Embryology of Early Jurassic dinosaur from China with evidence of preserved organic remains.> Nature, 2013. 4. 11.
 3. <‘80 Million-Year-Old’ Mosasaur Fossil Has Soft Retina and Blood Residue.> PloS ONE, 2010. 8. 9.

공룡 트리케라톱스 화석에서 연부 조직을 발견한 뒤 자신의 소신대로 4,000년 정도의 연대를 주장하다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노스리지 캠퍼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학교 측은 그의 연구 동기를 문제 삼아 연



마크 아미티지 박사

구 기금 부족을 사유로 해고를 강행했다. 이 대학의 관계자는 그에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종교를 관대하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다. 이제 어른을 믿으면 안 된다. 학생들과 아이들은 공룡의 진실을 직접 알고 판타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크리스천과 양심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고성의 공룡 축제에 가더라도 진실을 알려 줘야 한다.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자”

이 슬로건은 무슨 의미일까? 화석뿐인 공룡이 무슨 희망을 주며, 그것으로 어떤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인가? 이 표어가 고성의 공룡 엑스포가 과학이 아닌 판타지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진짜 희망의 빛을 얻으려면 용기 있게 진실과 진리에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참된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거짓의 축제가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는 창조의 진리를 외면한 모든 사람들이 화석처럼 굳어 버릴 것이다. 아직도 공룡의 판타지를 붙잡고 있는가? 속이는 일을 멈추고 겸허하게 증거를 인정하라. 그리고 아집과 신념의 감옥에서 나와 참된 희망의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⑧

4. 크리스천투데이, 2014. 7. 29.

패륜의 시대가 들려주는 메시지

1

십여 년 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 범죄가 세상을 경악케 했을 때, 인간성의 파괴를 말하면서도 결단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었다.



생활고를 비판해 자녀와 이른바 동반 자살¹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다. 그러다가 게임을 하느라 자식이 굶어 죽는 줄도 모르던 철부지 부부를 보고는 “게임 중독이 진짜 무서운 거로구나” 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들이 멀다 하고 자식을 학대해 죽이고 암매장하는 부모들의 범죄가 보도된다. 말문이 막혀 논평을 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젠 충격을 넘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

-
1. 자녀 살해와 구분하기 위해 썼지만 사실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자살에 동반되는 자녀는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동반 자살’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순화해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너무 말이 안 돼서 인간 자체보다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악마의 사주일까, 정신 질환이 있었던 걸까….

이런 흉악한 일들의 원인은 우선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 대표 주자는 진화론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인간은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자신의 악한 본성을 악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참된 과학으로 가르치면서는 인간성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아이들은 과학을 배우면서 생각한다.

“자신의 본능적 성욕을 못 참고 나를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 내놓은 생물학적 부모가 자기가 못 이룬 출세욕을 채우기 위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눈만 뜨면 잔소리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자…”

말을 적나라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고민이다. 물론 고마움을 아예 모르거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유대감이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단지 부모와 물질의 결합 이상이 아니라니, 생명의 원조인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만 얼마나 더 참아주고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개체에 관대한 것은 비정상적 이타주의적 돌연변이니까 말이다.

부모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다. 생물은 영원히 삶을 영위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분신을 만들어 남기려 한다는 것이 진화론이다. 대체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본능이 생겼단 말인가? 아무튼 부모의 유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생물학적 자손은 돌연변이인지 열성인자 과다인지 내 말도 늘 거역하고, 상태가 별로다. 그리고 나의 생존에 저 유전자는 짐만 된다. 이러다 나까

지 죽게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대도 진화론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판단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신생아도 지능 등 상태 감별 후에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려 노벨상 수상 과학자에게서 나오기도 했다. 그럼 자격 미달이면 죽이자는 것이다. 아기가 공산품인가?

생물학적 정신적 기준에 미달하는 젊은이와 사랑에 빠져 함량 미달의 자손을 낳지 않도록 기준 미달자의 이마에 표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단종법이라든지 열등한 종족의 입국을 막는 이민법 같은 것이 있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히틀러의 대량 학살이 그 엄연한 증거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서구인들의 야만적 아프리카 노예 사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극상류 기득권층인 그들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를 영화 <킹스맨>(2014)에서처럼 빅브라더가 조절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벌어진 것뿐이다. 이것이 진화론이라는 틀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등 동물이든 하등 동물이든 강한 개체가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약육강식의 원리인데 말이다. 인간이라는 한 종의 사회에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법과 도덕’은 최단기간에 최대 진보를 이루는 진화의 거대한 물줄기, 즉 자연의 법칙에는 한없이 초라한 것이다.

2

탁월한 이야기꾼 리처드 도킨스의 논리들은 참으로 그 말장난이 기가 막히게 그럴듯한데, 과학계의 ‘허풍선이 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말하는 논리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책을 통해 거듭나(?) 과학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간증(?)을 하기도 한다.

사실 그의 책은 장황해도 다 그냥 드라마틱한 서술일 뿐 상상 아닌 것이 없고, 과학적 데이터는 자기 식으로 해석한 것 외에는 별로 없다. 원래 사람이란 이런 상상력과 입담에 매료되는 것이며 교리를 싫어하는 법이다. 그런 풍토가 오늘날 알맹이 없이 달달한 기독교를 만들었듯이 과학도 큰 줄기는 실제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허구와 판타지 위에 서 있다.

나는 집필을 위해 본의 아니게 잘 만들어진 도킨스의 주요 저서들을 거의 다 읽어 보았다. 구입하지는 않았고 도서관에서 대출을 했는데, 같은 책이 여러 권씩 구비되어 있고 테이프로 수선을 해야 할 만큼 대출 빈도가 잦은 인기 도서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독교 혐오를 목적으로 한 과학적 허풍을 믿고 감동한다는 뜻이다.



리처드 도킨스

성경이 길어도 진리와 복음의 핵심은 단순하듯이 책은 두껍지만 ‘도킨스 복음’도 간단하다. 유전자가 이기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생**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수단을 쓴다고 한다.

스스로 오래 버티거나 번식을 통해 분신을 남기는 것.

우연 발생하여 진화된 존재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본능을 어떻게 지니고, 분신을 창조해 낼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도킨스의 책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저 ‘놀랍게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설계되고 ‘놀랍게’ 만들어져 운행되는 ‘놀라운’ 자연의 신비라는 것이다. 참 놀라운 과학자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무신론자들의 신이라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 유전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를 쓰고 어떤 짓도 해가며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자연이 유지된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을 보

호하려는 본능,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 등이 다 유전자들의 이기적인 속성이다. 이들 중 극소수는 돌연변이라 자기 분신을 아낄 줄 모르고, 오히려 자손을 돌보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3

실제로 사람은 자기 것을 침해당하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분노한다.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크게 화를 내며 치고받는다. 부당하게 자신이 믿는 진리와 근본을 흔들면 당연히 분노하고 끝까지 싸운다.

현대인들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삶의 벼랑으로 내몰린 경제적 상황에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폭발 직전이다. 자기 몸을 희생해 자식의 삶을 이어 가도록 만들어진 가시고기 같은 창조물은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알고 죄에 물들어 있다.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이기적인 존재들의 프로그래밍은 바이러스가 먹어 자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존재를 죽이고 없애며 응징한다. 자신의 분신조차 예외가 없다.

이런 인간의 악함이 오랜 시간 진화론에 노출되면, 나를 제외한 모든 개체를 하나의 유전자 집합체요 생물학적 타자로 인식할 수 있다. 진화론에는 흠위로 부는 생명의 숨이 없고², 정신과 영혼의 창조를 부정한다. 그들의 바탕이 된 유물론은 모든 만물을 물질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자식을 죽인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아마도 “왜 그들이 중형을 받아야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도킨스처럼

2.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그들은 자연의 법칙대로 행동했으므로, 아니 저절로 발생하여 본능에 충실한 자연의 일부이므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지도 모른다. 그제야 사람들은 진화론의 심각성을 알게 될까?

세상 모든 흉악범이 무죄를 받아도 사람들이 진화론의 실체에 눈 뜨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안은 오직 창조의 질서요 창조주 하나님뿐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과 아집은 이미 지옥의 정죄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눅 11:50~51)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예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셨다. 역사 속에서 창조의 바른 개념을 설명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고, 바보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후예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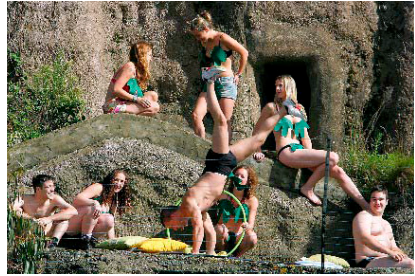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마 23:31~3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이 패륜의 시대가 들려주는 참담한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에 울리기를 바란다. ❸

진화론자들에 의해 동물원에 전시되었던 비운의 사람들

2013년 런던 동물원에서는 사람들을 전시한 적이 있다. 이것은 사람도 동물의 한 종류라는 진화론적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물론 이 사람들이 동물 취급을 당한 건 아니고, 며칠 동안 관람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밤에는 집으로 퇴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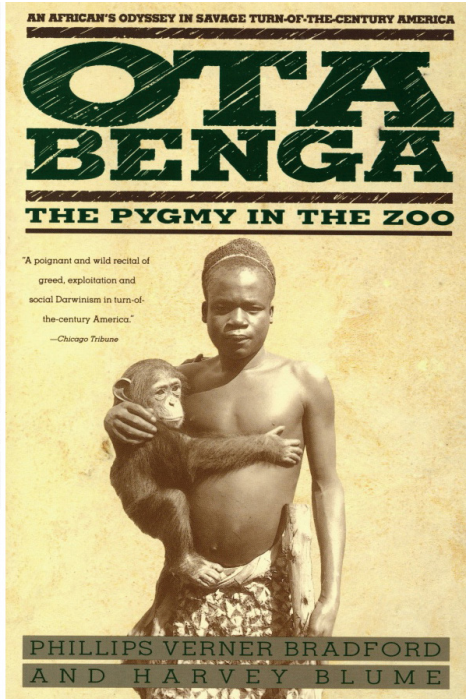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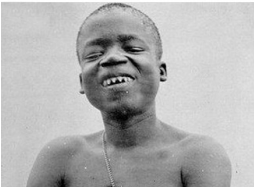
이런 것은 그저 하나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흑인과 특정 부족 원주민을 진화가 덜 된 존재로 보고 동물원과 공연장 등에서 전시하거나 구경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런던 동물원의 인간 전시 퍼포먼스(2013)

1. 오타 벵가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의 한쪽에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사냥해 온 피그미 족 사람들 몇 명이 진화가 덜 된 ‘동물과 인간의



억울하게 잡혀가
동물원에 전시됐던
피그미 청년
오타 벵가와
그를 다룬 책.
왼쪽 하단은
그의 어릴 적 모습.

중간쯤 되는 존재'로 전시가 됐다. 그들 중에 오타 벵가(Ota Benga)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당시 유명한 탐험가였던 사무엘 버너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붙잡아 온 흑인 청년이었다.

만국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오타 벵가는 뉴욕의 브롱스 동물원에 팔려 가게 되었고, 거기서 원숭이 우리 속의 특별 전시실에 갇히고 말았다.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동물 취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자 오타 벵가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점점 성격이 사나워져 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았지만 점점 동물원의 잔인한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동물원 측은 오타 벵가를 풀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나중에 버지니아주의 어느 담배 공장에서 한동안 일했지만 동물원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잡혀간 지 12년이 되는 35세에 자살하고 말았다(1916).

2. 칠레 원주민들

1881년경에는 칠레에서 독일인에게 잡혀가 유럽 동물원에 전시되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카웨스카 부족의 인디언들이 이들은 전시된 지 1년도 못 되어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130년 만인 2010년에 고향인 티에라 델 푸에고로 송환돼 조상들의 땅에 묻혔다. 이들의 얼굴을 보면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고리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과 동일하다.



유럽의 동물원으로 잡혀갔던 칠레 원주민들

인간은 단 한 종류밖에 없다. 어떤 유인원의 피도 인간에게 주입하면 사망한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원주민이라도 혈액형만 같으면 수혈이 가능하고 지적 능력도 동일하다.

많은 오지 부족 사람들을 진화가 덜 된 존재로 여기고 잡아다가 전시를 한 일은 같은 인간끼리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3. 줄리아 파스트라나

불행했던 멕시코 여성 줄리아 파스트라나(J. Pastrana)는 몸에 털이 많고 잇몸이 돌출되는 잇몸 증식증을 지닌 탓에 늑대 인간이나 인간이 덜 된 존재로 오해를 받았다.



줄리아 파스트라나(1834~1860)

당시는 특이한 외형을 지닌 사람들을



아기와 함께 미라로 제작됐던 줄리아 파스트라나(왼쪽). 15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시신.

보여 주는 공연인 프리크 쇼¹가 유행하던 시대였는데, 미국의 공연 기획자 렌트는 그녀를 데려다가 전시하면서 돈을 버는 순회공연을 했다. 그러나 의외로 그녀는 무척 영리했고,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했으며, 춤과 노래와 연기에도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렌트는 지속적인 돈벌이를 위해 그녀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아이는 이틀 만에 죽었고, 그녀도 며칠 후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렌트는 파스트라나를 미라로 방부 처리해 계속 전시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녀는 150여 년 만인 2012년에 멕시코인들의 청원 활동을 통해 고향 땅에 돌아가 묻혔다고 한다. 인간의 사악함이 생명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과 만나 저질러진 비극이었다.

이런 사례들은 진화론이 태동한 19세기 중후반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진화론과 우생학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신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가

1. freak show(기형쇼). 생물학적으로 희소한 무언가를 전시하는 것. 특정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신체 이형을 가진 사람, 장애인, 희귀병에 걸린 사람 등이 전시 대상이 되었다. 참고로 우리말의 '예수쟁이'쯤에 해당하는 기독교인 비하어는 지저스 프리크(Jesus freak)이다.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백인은 더 진화된 존재라는 우월감이 인간의 죄악성과 결합돼 끔찍한 일들로 이어진 것이다. 백인들과 인류는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금도 인종 차별과 잘못된 인식이 많다. 사람을 존귀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이 모든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 올바른 세계관으로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과 동물은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임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목적성도 없는 물질로 모든 것을 풀어 가는 진화론은 굳이 창조론으로 반박하지 않더라도 악하고 부끄러운 인류의 흑역사를 양산해 온 비인간적 가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야만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탈을 썼던 악마들은,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진화론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❷

돼지와 원숭이의 역설: 지능은 외모순이 아니잖아요

돼지에 관한 선입견

대개 '돼지'라고 하면 미련하다, 똥똥하다, 많이 먹는다, 지저분하다, 고기에 불과하다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아무래도 스마트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같은 그래도 속은 착하고 현명하다는 의미로 역설적인 캐릭터가 된 돼지들이 있다. 바로 영화 <꼬마 돼지 베이브>의 베이브와 <샬롯의 거미줄>에 나오는 돼지 월버다. 이들은 외모 지상주의 세태를 꼬집는 동시에 선입견과 편견을 풍자한 주인공들이다.

크리스천에게 돼지는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동물이다. 부정한 영의 군단이 돼지 떼에게 보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일도 그렇고(눅 8:30),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벧후 2:22)', '돼지 앞에 진주(마 7:6)'¹, '돼지 코의 금보석(잠 11:22)'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기 때문이다. 모세 율법에서 발이 갈라진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므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나도 '샬롯의 거미줄' 이야기로 전도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왜 전

1. 관용적으로 '돼지 목에 진주'라는 표현이 종종 쓰이지만 돼지의 목에 진주를 거는 내용은 성경에 없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마 7:6)."

도지에 돼지가 나오느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 난감했던 적이 있다.

성경에 나타난 돼지는 좋은 동물이 아니지만, 우리의 선입견을 뒤엎는 동물이다. 돼지는 정말 미련할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서 돼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이다. 그런데 돼지의 의외성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는 무척 비논리적인 것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통 조상을 두고 가지를 뺀어 진화했다는 동물들은 지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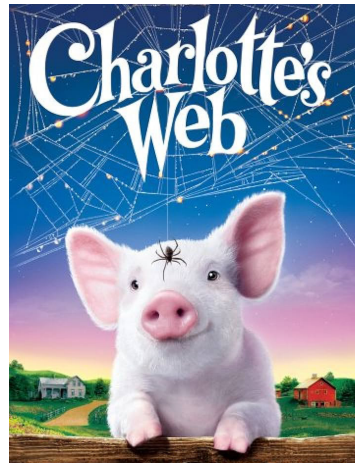
점점 발달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발전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진화했다고 흔히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 다큐에서 침팬지 관찰자가 어느 침팬지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막대기로 깊이를 가늠하는 것을 보고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떠는 것도 보았다. 그러면 인간과 호홉하며 다양한 쇼를 하면서 갖가지 도구를 활용하는 동물들은 무엇인가. 단지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 물 깊이를 잴 것이 그리 대단한가? 훈련은 경험이다. 물에 빠진 경험을 통해 깊이를 가늠하는 것은 동물의 기본 감각이며 그 정도의 융통성은 훈련받지 않은 분야라도 얼마든지 발견된다.

외모는 지능과 무관하다

그런데 돼지의 지능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개 지능은 일부 개들과 돌고래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돼지를 연구하는 이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돼지의 영리함에 놀란다.

간단한 길 찾기 비디오 게임을 조이스틱으로 시켜 보았는데, 개와 고양이와



영화 <살롯의 거미줄>(2006)

원숭이와 돼지 중에서 누가 잘할 것 같은가? 의외로 돼지다. 실험 대상 중 돼지가 1위인 것은 물론 다른 녀석들은 아무리 시간을 줘도 시도조차 못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돼지의 발상 전환 능력이다. 바닥에 빨간 고리를 놓고 그 위에 공을 물고 가서 풀인시키면 먹이를 주었다. 그러자 돼지는 한두 번 시도하다가 빨간 고리의 높이 때문에 공이 잘 안 들어가자 고리를 물어서 공에 씌워 버렸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엄청난 거다. 왜냐하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는 동물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개 공을 넣는 생각 한 가지만 하지, 필요한 결과를 내다보고 그 상황을 역으로 만들어 내는 일은 굉장히 입체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라 한다. 인간 아기들도 좀 자라야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동물의 능력은 등급이 있지 않고 각각 특기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 ‘생각하는 동물’을 주제로 다양한 동물 사진을 찍어 온 사진작가의 작품들이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를 모았다. 마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골똥히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이 사진들 중 가장 볼만한 것은 역시 영장류 동물들이다.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목구비의 구조가 가장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진화론적으로 인간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갈라져 나온 존재임을 보여 주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반면에 고사상 위에서 웃는 것 외에는 별다른 표정을 잡아내지 못할 듯한 돼지는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고깃덩어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원숭이보다 돼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

가 더 영리하고 지능이 진화된(?) 존재라니 이것을 진화의 원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생존 경쟁력이 가장 강한 덕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간보다 쥐나 바퀴벌레가 훨씬 더 생존력이 높다는 사실처럼 모순에 부딪힌다.

침팬지에 관한 판타지

세계관을 진화론에 고정시킨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진화론의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 발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 인정하더라도 다른 논리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명백한 과학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두 발로도 걷고, 무엇보다 인간과 비슷한 표정을 지닌 유인원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수백 가지의 명백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거부하며 죽인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들을 눈멀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미치도록 하셨다(롬 11:11). 진화론자들에게도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시는 것(살후 2:11)은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비웃는 악함 때문이다.

대개 침팬지 유전자의 2%만이 인간과 다르다는 말로 진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단편적인 사실만 언급한 것이다. 인간과 그 거리가 사뭇 먼 한낱 물고기 제브라피쉬도 90%가 인간과 유사해 사람의 질병 연구 등의 목적에 실험용으로 사용되며 대체 장기 활용 목적으로 활용돼 온 돼지도 계놈 지도 완성 결과 75%가 같은 것은 물론 질병 관련한 유사성이 많아 연구가 활발하다. 심지어 바나나와도 60%가 비슷하다 하고 식물들과도 유사하다고 한다.

한편 성경은 식물을 생물로 치지 않는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식물은

그저 유기적 성장체인데 한마디로 그 재료가 같기 때문에 유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유사성 속에서의 불규칙성은 진화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그들이 유독 침팬지와 유사성만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강한 미혹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그들의 형벌인 셈이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만물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동식물의 능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다른 생물과 인간의 유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며 동물은 동물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내려갈 뿐이다(전 3:21).

육기 말씀처럼, 자기 알을 밟아 깨뜨릴 정도로 무심한 타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듯 동물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욥 39:14~17). 인간과 동물의 존재는 그 근본이 다른 것이며 동물은 인간이 다스리되, 최소한의 윤리를 지니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육식을 허락하신 뒤부터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남용은 안 될 것이지만 말이다. 과도한 동물 보호는 착한 일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조롱하는 일이다.

돼지의 경우 종자돼지 한 마리가 약 7년의 가임 기간 동안 평균 140마리 정도를 낳는다. 한 번에 10마리 정도를 낳지만 기네스 최다 기록은 27마리이다. 생후 8개월부터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돼지의 수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파동이 생겨 돼지고기 품귀 현상이 있다가도 1년 반 정도면 돼지 사육 두수가 평소 수준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은 만물에 그분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심어 놓으셨다. 모든 지식은 진화론적 논리의 순서대로 정렬돼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민

고자 하는 이들이 기껏 만큼의, 딱 그만큼의 해석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그들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가 창조과학을 말하고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이유는 단지 마음에 두려움을 지니고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확실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의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너희에게서 떨쳐 버리라. …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겔 18:31)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의 의지로 돌이킬 때에만 하나님께서 참된 과학을 볼 수 없게 하는 강한 미혹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이다.

돼지는 그 영리함에도 불구하고 ‘돼지 앞에 진주’라고 할 만큼 충분히(?) 미련하다. 그런데 돼지가 의외로 영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련함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이미지를 빗대어 비유를 든 것이면서 외모와 실체가 불합치되는 역설을 그 동물 속에 담아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유인원도 마찬가지다. 사람 같은 표정, 마치 인간의 과거 모습일 것만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돼지만도 못한 지능을 가진 명백한 모순들….

이들 존재는 진화론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외모와 본모습을 지닌 창조물이며, 교만한 마음이라는 눈가리개를 쓴 사람만 걸려 넘어지는 기막힌 역설이 아닌가 싶다.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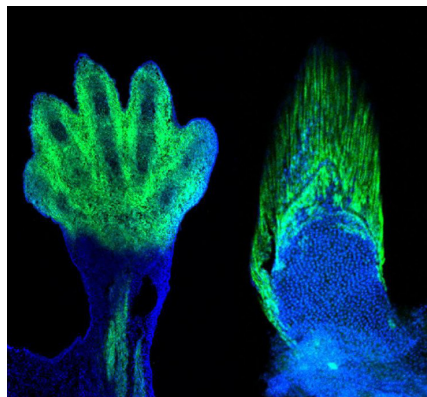
물고기 지느러미가 손으로 진화했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NASA(미 항공우주국)는 주머니 받거나 서로의 빈 자리를 채우며 사람들이 참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과학 뉴스를 터뜨린다. 이번에는 <네이처>에서 ‘진화의 증거’를 내놓았다. 제목이 아주 대담하다.

“물고기 지느러미가 손으로 진화… 실험으로 확인”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손발가락과 손·발목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를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최신 호에 실린 이 연구 논문은 물고기의 지느러미 줄을 형성하는 세포가 육지 동물의 사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줬다.

육지에 사는 포유류의 팔다리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에서 서서히 진화해 생겼다는 학설은 관련 화석 형태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지



사진=시카고대 슈빈 실험실

만, 지느러미 부분이 어떻게 손발가락이나 손목으로 변화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인간과 쥐에서 손발가락이나 손목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유전자에 주목했다. 이들은 실험동물로 흔히 쓰이는 열대어인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Cas9)를 사용해 사지 형성과 연관된 이 유전자를 제거해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후 이들 제브라피쉬를 번식시킨 결과, 가슴과 배, 그리고 등의 지느러미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있는 부분에 부드러운 뼈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느러미 끝부분에는 딱딱한 뼈가 남았다.

이는 지느러미의 부드러운 뼈의 구조가 점차 진화해 인간의 손발가락이나 손·발목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를 이끈 나카무라 테츠야 박사는 “물고기가 육지 동물로 진화한 메커니즘(기전)을 해명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8월, 서울신문]

이 기사를 보면 대개 뭔가 밝혀졌나 보다 하거나 아무튼 진화에 근거가 있나 보다 할 것이다. 특히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사를 싫어하겠다면서 고소해한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잘 읽어 보면 이 기사가 얼마나 낚시성 글인지 알 수 있다. 기독교를 떠나서 말이다.

1. 입증이야, 진전이야?

일단 이 기사는 실험으로 진화의 증거를 입증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잘 읽어 보면 입증한 게 아니다. 기사 맨 밑에 보면, 이 연구를 이끈 박사는 “물고기가 육지 동물로 진화한 메커니즘(기전)을 해명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증했다면서 뭘 ‘해명’하고 또 무엇이 ‘진전’인가? 관찰도 아니고 진화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입증한 것이 결코 아니다.

2. 화석을 통해 진화가 알려졌다?

기사 중에는 황당한 이야기가 또 있다.

“육지에 사는 포유류의 팔다리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에서 서서히 진화해 생겼다는 학설은 관련 화석 형태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지만…”

화석 형태의 연구를 통해 그런 ‘학설이 알려졌다고’ 되어 있지만, 대개 이런 문장을 보면 무언가 밝혀졌다거나 확인했다는 정도로 오인하기가 쉽다. 하지만 화석은 현재 관찰되는 모든 생물과 똑같은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다.

화석은 무진화의 증거다. 화석은 그들이 3억 년 전 것이라고 주장해도 지금과 똑같이 생겼다. 진화의 중간 단계는 전혀 없다. 이것은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 고생물학자의 보고인데, 웬만한 진화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다윈 이후 고생물학자들은 다윈이 예견했던 점진적 진화 과정을 거친 전형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형된 화석종들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대부분 실패했으며, 반박의 여지가 없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화석에 나타난 종들은 실상은 여러 시대의 지질 연대를 거치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종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나일스 엘드리지(N. Eldredge) / 뉴 사이언티스트(1986)

대부분의 (화석)종은 불변하며, 이러한 무진화 현상이 오랜 기간의 지질 연대 층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모든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 이유는 화석종의 불변성이 무진화에 대한 증거가 되어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윈의) 이론과 (상반되므로) 흥미 없는 연구 결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너무도 광범위한 화석종의 불변성은 당황스러운 실상이며, 결국은 무진화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 스티븐 제이 굴드(S. J. Gould) / 내추럴 히스토리(1993)

종의 불변성은 진화의 부재를 필연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진화학자들은) 이러한 진화의 부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다. 고생물학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진화의 부재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흥미롭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 굴드 & 엘드리지/ 네이처(1993)

가장 저명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이다. 더 말이 필요한가? 심지어 <네이처>에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로 발굴된 화석에 어떤 변화도 없었으며 추가된 진화의 증거는 없었다. 이미 세상에는 모든 개체의 화석이 다 발굴됐고, 중간 종은 한 개도 없었다. 그리고 진화가 사실이면 변이 중인 중간 종이 보통 개체보다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고생물학자 굴드(왼쪽)와 엘드리지. 점진적 진화론을 부인하는 이들은 진화론자지만 모든 화석은 종의 정지를 보여준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3. 유전자 조작 결과가 진화라니??

뉴스를 잘 보면 그냥 자연 상태를 관찰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에 손을 댄 것이었다. 자연 선택이란 누가 손을 안 대도 스스로 필요에 의해 진화하거나 도태되는 개념인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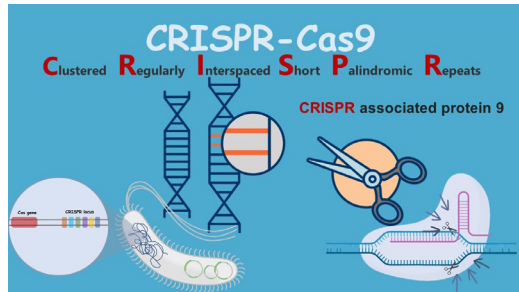
그들은 실험동물로 흔히 쓰이는 열대어인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른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해 사지 형성과 연관된 유전자를 제거해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들 제브라피쉬를 번식시킨 결과, 가슴과 배, 그리고 등의 지느러미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있는 부분에 부드러운 뼈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느러미 끝부분에는 딱딱한 뼈가 남았다.

유전자 가위 기술(유전체 편집, CRISPR/Cas9)은 무엇인가(그림 참고)?

인간 세포와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교정(genome editing)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 부위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한다. 유전자 가위는 쉽게 말해 ‘지퍼(DNA)’가 고장 났을 때 이빨이 나간 부위(특정 유전자)만 잘라 내고 새로운 지퍼 조각을 갈아 끼우는 ‘유전자 짜깁기’ 기술로 불리기도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유전자 가위

저런 결과를 얻기 위해 누군가 손을 댄 것이다. 심지어 아직 낫설 정도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유전자를 제거하고 작동하지 않게... 한마디로 고장을 낸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자연



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그 옛날의 진화를 ‘입증’하는 ‘실험’이라는 말인가? 유전자를 제어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치자. 그렇게 기존 물고기들과 기능이 달라진 녀석은 돌연변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제 기능을 못 해서 도태되거나 사라질 확률이 훨씬 높고, 그것을 손으로 쓸 정도로 더 나은 종이 될 수 없다. 돌연변이는 늘 진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고기는 다른 곳은 안 변하고 지느러미만 손이 났나? 다른 기관은 어떻게 났나? 그러면 손 달린 물고기는 왜 화석으로 발견이 안 될까? 다 진화했는데 손 대신 지느러미만 아직 남은 포유류 같은 건 없을까?

유전자 가위를 쓰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저절로 변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유전 정보가 아주

조금 변화했다면, 그 녀석은 바뀐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자의 극히 일부가 변형되어도 번식을 하면 다시 원래 설정된 제브라피쉬가 나온다는 것이다. 내가 근육을 아무리 키워도 내 자식은 근육맨으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유전자 조작까지 하면서 진화를 입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화, 증거, 입증, 실험, 확인, ... 이런 말을 쓰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다.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뒷일은 뒤, 어차피 창조 vs. 진화는 논쟁인데, 반칙 좀 하면 어떠냐는 것 같다.

진화론자들에게 페어플레이를 기대할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논문과 기사를 아무 말 수준으로 마구 쓰면 안 되지 않나? 욕을 먹어도 창조론만 흠집 내면 된다는 건가? 서울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도 광고 효과가 벌금보다 훨씬 낫다는 식이다. 결국 정신 챙기고 눈 부릅뜨고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진화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㉞

스마트폰 많이 해서 뒤통수에 뿔이 난다고?

눈에 띄는 과학 뉴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다. 외신을 받아쓴 이 뉴스는 스마트폰 관련 기사가 늘 그렇듯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일수록 두개골의 뒤통수와 목뼈가 만나는 지점에 마치 뿔처럼 뼈가 돌출된다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젊은이들 머리에 ‘뿔’ 만든다?

젊은이들의 두개골에 ‘뿔’이 자라나고 있다는 내용의 학술 논문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생활 습관이 결국 뼈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바꿔 말하면 현대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최신 기술에 대한 골격적인 적응이라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호주 선샤인코스트대 연구팀이 “두개골에 자라고 있는 뿔 모양의 뼈(노란색 화살표)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제시한 자료. 워싱턴포스트 캡처

사실 호주 퀸즐랜드주(州)의 선사인코스트대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는 지난해 발표됐다. 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현대 생활은 어떻게 인간의 뼈를 변화시켰는가’라는 제목과 함께 영국 BBC 방송 보도에서 인용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호주 언론들은 ‘머리의 뿔’, ‘휴대폰 뼈’, ‘이상한 돌기’ 등의 이름을 붙여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다른 외신들도 해당 논문 내용을 앞다퉈 소개하는 중이다. [한국일보 등]

이쯤 되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처럼 보이고, 공신력 면에서도 흠이 없어 보인다. BBC가 보도하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이 인용했다니 언론 기관으로 이 이상의 확실한 출처는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0여 개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용 보도했다. 수많은 언론 중 10여 개는 많아 보이지 않으나, 문제는 이들이 연합뉴스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사이며, 대다수가 뉴스를 소비하는 포털 메인에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전 국민에 노출된 셈이다.

쏟아지는 기사들 중 하나로, 누군가의 주장이나 특정 사례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공식 과학 뉴스로 보도되면 독자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차 아이들이 모두 저런 뿔을 달고 다니기라도 할 것처럼 걱정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진화의 징조나 과정으로 인식된다는 점이었다. 댓글들은 바로 그런 인식들을 보여 준다. 맨 뒤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간단히 소개했지만,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진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다니 놀랍다.”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군.”

“개독들이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들도 지식이 있다면 저런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 IT 강국에서, 한국 사람들 뒤통수 몇 번만 만져 봐도 알 일이나까 말이다. 일단 물어뜯고 보는 거다. 믿기 싫은 창조론, 째째한 창조자를 외면할 거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니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명백한 가짜 뉴스

이런 기사를 접하면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그거 봐라. 진화는 부인할 수 없다. 과학을 무시하고 창조만 주장하니 기독교가 욕먹는 거다.”

“난감하네...”

“정확한 뉴스인지, 진짜 진화의 증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과정의 연구인지 몰라도 확인이 필요하며, 진화의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사실 나도 이 뉴스가 가짜 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라고는 생각 못 하고, 지역적인 일을 부풀린 것이거나 편향된 연구일 거라 생각했다. 진화 현상은 물론 전혀 아니지만.

몇몇 매체가 팩트 체크를 했다. 한 언론사가 논문 저자 2명 모두와 직접 연락한 결과, 연구의 핵심은 ‘나쁜 자세로 뼈가 돌출된다’는 것이고,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는 것은 직접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뿔’이라는 표현은 언론이만 들어 썼다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나쁜 자세의 예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언급했을 뿐이며, 애초에 스마트폰 사



용 행태에 관한 연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BBC가 “논문의 저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과몰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각해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젊은 사람의 두 개골에서 뿔이 자라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 논란이 있는 후 기사들은 반론을 반영해 수정되었다. 애초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도 소개되었지만 주목받지 못했었다.

다만 일각에선 이 연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NYT는 “연구에 활용된 엑스레이 자료들은 지압 클리닉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실험자들은 이미 목 부위에 문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토대로 낸 결론을 일반화하는 건 무리라는 뜻이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데이비드 랭거 박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엑스레이 사진을 봐 왔지만 이런 것(뿔)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해당 연구팀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화 자체가 가짜 뉴스

이 뉴스는 의도된 조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명백한 오보,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신인류가 등장한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설령 집단적으로 머리의 한 부분이 솟아오른대도 진화와 연결할 일이 아니다.

생물체의 변화는 같은 종 안에서의 외모적 다양성이며 종을 달리하는 변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아무리 형태가 달라 보여도 한 종류는 끝까지 그 종류일 뿐이다. 외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착시를 부르는 것이다. 잘못된 전제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보일 뿐이다.

‘획득 형질’의 유전은 없다. 새로 획득한 특성은 자기 것으로 끝난다는 거다. 사람이 다쳐서 팔을 잃었다고 팔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듯이, 아무리 신

체에 변형이 생겼어도 자식이나 후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남아 오지의 한 부족은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 어려서부터 목에 쇠고리를 끼운다. 나이가 들면 왼쪽의 여성처럼 목이 길어진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다시 보통의 목을 지니고 태어난다.



목에 평생 고리를 끼우는 한 부족의 여성들. 노인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목 길이는 현저히 다르다.

나이 든 여성의 긴 목이 유전된다면 뒷하리 어릴 때부터 고리를 끼우겠는가. 이 부족의 전통은 오랜 세월 이어졌지만 진화는 없었다.

스마트폰 머리 뺨 뉴스가 퍼진 과정은 정말 무책임하다. ‘기레기(기자 + 쓰레기)’라는 모욕적 신조어가 부당한 훌륭한 기자도 많지만, 함량 미달의 기자도 부지기수이며 ‘유아 낫 언론’(?)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는 언론사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고 이런 반복되는 가짜 뉴스 사태를 기자 개인의 역량과 양심에 호소할 수도 없다. 마감에 쫓겨 받아쓰고, 베껴 쓰고, 인용하는 관행에,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가 계산되는 온라인 뉴스 시스템이 한몫을 한다. 말하자면 콘텐츠가 시장주의와 만나 선정적이고 기형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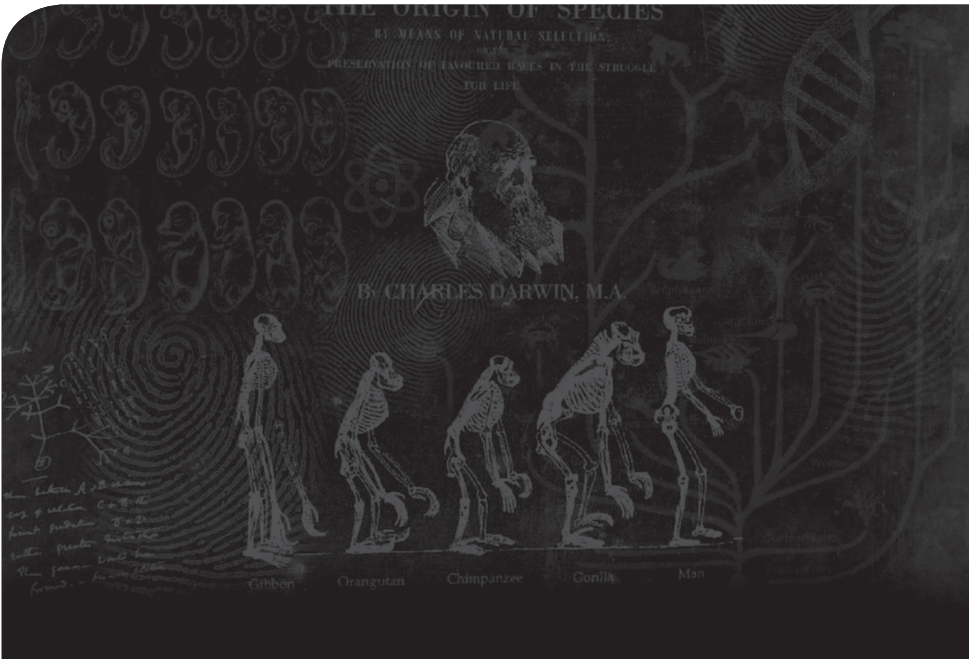
과학 기사도 이와 비슷하다. 연구비로 살아가는 과학자와 연구 기관의 손끝에서 논문이 나오고, 이런 논문들은 언론의 구미에 따라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요즘 모든 뉴스는 일단 의심해 보고 몇 가지 과정을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 특히 우주와 생물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나 학설을 말하는 과학 뉴스는 상당 부분 거짓과 억측과 자의적 해석이 담겨 있다고 보

면 될 것이다.

오보는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기자는 오명을 얻지만 불신자는 생명을 잃는다. 한 편의 기사가 영혼의 중대한 선택을 방해한다면 쓰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읽는 자가 모두 불행한 일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한 만큼 진화의 부재도 명확한 것이다. 기사를 퍼나르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독자들이라도 알아야 한다. 최소한 크리스천들이라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나온 게 언젠데 뒤통수에 빨이라니, 진화론자들은 이런 가짜 뉴스에도 반색이지만, 진화는 개뿔... 그 어디에도 진화는 없다. 논문에도, 신문에도, 그리고 현실에도. ❷



유신진화론 비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갈 1:6~7)

유신진화론자들의 적은 누구인가?

일반 과학을 존중해야 한다?
무지해서 창조론을 고집한다?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 진지한 기독교인도 많다. 다만 세상의 창조와 과학적 사실들은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방식에 가까우며, 성경은 그것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씨앗이 진화된 것이라든지, 창조의 6일이 진화론의 단계들에 부합한다든지, 아무튼 성경을 과학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성경 전체를 신화나 압축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은 다 사실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 등 초자연적인 것도 다 믿지만 창세기만은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1)

그들은 창세기뿐 아니라 이런 말씀도 사실로 믿지 않는다. 창조론자와 유신진화론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엿새 동안에’를 진짜 6일로 보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되면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유신진화론을 중심으로 큰 줄기를 나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창조론 ◀ 유신진화론 ▶ 지적 설계론 ▶ 진화론

이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관점에서, 즉 성경이 맞는지 진화론적 과학이 맞는지의 순서로 배열하면 그 자리가 바뀐다.

창조론 ◀ 지적 설계론 ▶ 유신진화론 ▶ 진화론

이처럼 유신진화론자는, 신을 믿지 않지만 진화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연은 어떤 절대적 존재의 거대한 설계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지적 설계론자들보다 더 진화론에 가까이 있다.

정말 의아한 것은 **유신진화론자들의 태도**다. 그들은 창조론자들이 기독교를 망치고 성도들을 무지로 이끈다고 생각해서 맹렬히 공격한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기독교를 가짜로 취급하는 진화론자들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개 창조론을 공격하고 진화론을 감싼다.

그들이 하는 대표적 주장이 창조과학은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다. 이런 것이야말로 논리가 없을 때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인데, 안식교가 이단이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오류인가? 그들이 성

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금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환영해야 잘하는 것인가?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것이므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집단이 아니다. 진화론에 대한 반박은 유일신교인 이슬람에서도 다루는 일이며, 종교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는 일이다. 과학적 오류가 있는데도 불문율처럼 정설로 통하는 진화론의 허구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들과 신앙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매사를 바리새인처럼 바라보고, 그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치면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불신자요 기독교 혐오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진화론을 옹호하는 것인데, 누가 더 잘못된가? 그런 말장난에 속아선 안 된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딤후 1:20)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과학일까? 성경과 진화론은 양립할 수 없다. 사실 과학 자체도 창조론에는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증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창조과학 역시 모든 답을 제시할 수 없으며, 진화론이 없었다면 창조과학도 필요가 없다. 자연은 그냥 그대로 놀랍고 정교하게 창조된 것을 인정하고 느끼며 감사할 대상일 뿐이다.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려는 것은 믿음을 빼앗기는 이들을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에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없다. 최근에는 무언가 진화가 가능하고 그 사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중 두드러진 것은 현상에 맞게 용어와 이론을 바꾸는 수법이다.

어떤 사람은 ‘퇴화’도 진화인데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자연도태를 포함한 자연 선택의 개념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자연이 스스로 갈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니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진화



스티븐 제이 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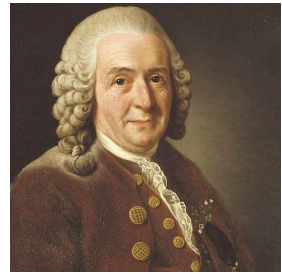
의 개념이 아주 폭넓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일반에서 ‘진화’를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하니 말이다.

여러 번 언급한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저명한 진화론자였다. 그의 글과 논리는 설득력이 있지만 증거와 거리가 멀고, 현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진화라는 정해진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인 것 같은’ 설명들이다. 진화론은 해석 놀음이다. 굴드는 그런 풀이에 일가견이 있는 일종의 기술자라는 인상을 준다. 굴드이든 도킨스이든 한번 그들의 책을 읽어 보라. 증거는 없고 증거일 것이 분명하다는 유추를 설명하는 데 그 두꺼운 페이지를 다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진화는 판타지라는 것이다.

굴드는 뺨권이 뒤뚱거리며 걷는 불편해 보이는 동작이 오히려 추운 환경에서 살기 위해 최소한만 움직이도록 퇴화한 것이라면서, 이 역시 진화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이 등장할 때마다 진화론은 다시 써지는데, 그래서 굴드는 다윈식 점진적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와 대립 관계에 있었다. 둘 다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싸운 셈이다.

최근에는 종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은 ‘종(種)’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이 다르고, 진화론자가 다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 다르며, 학자마다 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일상에서 쓰이는 말 중에 종족, 종자, 종류 등이 있는데, 무언가 단순히 구분할 때도 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신조어 중에 ‘종특’이라는 말은 ‘종족 특성’의 줄임말인데, 어떤 부류나 국적 등의 무리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르는 것으로 대상을 다소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것 같다. 관종이라는 말도 ‘관심 종자’를 줄인 것으로 관심병에 걸린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보통과 다른 자기만의 습성을 지닌 사람을 일컬을 때 ‘종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분류학에 따라 생물에 학명을 붙인 스웨덴의 생물학자 린네

과학에서 ‘종’이라고 하면 대개 린네(C. von Linne)의 분류 체계에 따른 것을 말한다.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계문강목과속종(界門綱目科屬種)으로 나눈 이명법(二名法)에 따라 학명이 만들어진다.

계(界)	문(門)	강(綱)	목(目)	과(科)	속(屬)	종(種)
Kingdom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Species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도 ‘종(種, species)’인데, 변이를 일으킨 생물을 다룰 때 등장하는 흔한 개념이다. 일단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면 종이라 표현하고, 변종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라 하면 변이를 일으켜 기존의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종이라는 뜻이지만 어차피 같은 부류의 바이러스다.

사람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나눌 때도 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세 가지로만 구분할 수 없는 무수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의 종류일 뿐이다. 개들도 수많은 품종으로 만들어지고 또 믹스되지만 한 종류다.

그런데도 과학계에서는 “나방은 워낙 다양해서 수만 종에 이른다”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종이 출현하고, 그 종들이 변이되고 또 늘

어나는 것을 보면서 종이란 때로 바뀌고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성경이 말하는 '종'은 교배의 장벽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인류의 편익에 따라 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는 종류(kind)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로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창 1:11~13)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창 1:21)

종류란 노아의 방주에 쌍쌍이 타고 내렸던 바로 그 동물들이다. 왜 종류대로 암수 짝을 맞춰 태우라고 하셨겠는가? 당연히 홍수 이후 다시 땅을 채우도록 하신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부부였듯이, 노아가 부부였듯이,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부부였듯이 짐승들도 짝을 지은 것이다.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두 마리가 네게 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창 6:20)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창 7:14)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은 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 8:19)

이것이 종류다. 교배의 장벽, 이것을 뛰어넘은 생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볼드체, 밑줄,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치하거나 반복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과학이라는 말장난으로 창조의 법칙을 훼손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연 법칙이며 과학의 법칙이다. 이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면 자연에는 온갖 해괴한 잡종 동물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변해 가는 중간 과정의 모습들이 화석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모두 오늘날의 모습 그대로 발굴되며, 시조새로 불리는 것이나 공룡 따위처럼 멸종된 것들이 조금 특이해 보일 뿐이다. 이런 것조차 너무 개수가 부족해 진화에 관한 상상의 나래를 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방주에 탄 종류들을 현대의 이명법으로 어떻게 분류할까... 사실상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계는 없다. 일단 흔히 말하는 ‘종’은 아니며, 대개 그보다 넓은 과(科, family)나 강(綱, Class) 정도에 해당하는 구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좁은 의미인 종(種, species)으로 보면 종 안에서의 분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물이 몇 종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오해를 일으킨다. 종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종 안에서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으로 ‘종간 진화’가 아니라 ‘종내 분화’이다.

종이 근접하면 강제 교배는 가능하다. 말과 당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노새

(mule)가 되고, 얼룩말(zebra)과 말(horse)이 새끼를 낳으면 조스(zorse)가 된다. 사자와 호랑이는 라이거(liger)를 낳는다. 그런데 그 새끼들은 다 불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손은 없다. 설령 자손이 태어나도 결국 부모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종이 될 것이 없는데도 거기서 대가 끊겨 버린다.

그런데 일반 과학에서는 종 안에서 분화된 것들을 다 새로운 종이라고 부르니 혼동이 생긴다. 최근에는 이런 꼼수가 더욱 기승을 부려 중간 진화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부풀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유신진화론자들은 이 용어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무언가 논하거나 반박하려면 서로 용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창조론자들 중 일부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창조론자들 사이에서 종종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진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에게, 현안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면서 종교적 주장만 밀어붙인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진화론자들이 하는 것과 논리가 똑같다. 자기들의 과학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면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세계적 석학이나 과학 저널들을 들먹이면서 말이다.



얼룩말과 말의 잡종 조스(zorse)



외계인과 인간의 잡종을 다룬 영화 <스피시즈>(1995). 종의 개념은 성경의 종류 개념과 달리 다양하게 사용된다.

진화하는 진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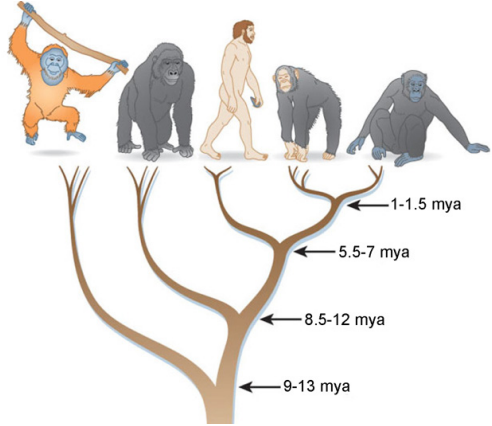
유신진화론자들의 적은 누구인가?

문제는 진화론이 계속 진화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하나가 아니다. 매우 많은 이론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뀐 것에 발맞춰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비난이다. 예를 들어 다윈 시대에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했던 자들이 현대에 오면서는 원숭이가 가지를 치면서 다양한 유인원을 거쳐 사람도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 원숭이가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론이다”라고 축약해서 말하면,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 주먹구구라고 비난하는 식이다.

그렇게 이론이 바뀐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든 그냥 진화하든 다 그냥 허구에 거짓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무의미한 것인데, 자기네들이 말을 바꿔 놓고 우리를 탓한다.

용어를 바꾸면 개념이 바뀐다. 성(sex)을 젠더(gender)로 바꾸면 제3, 제4의 모든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혼을 시민 결합이라고 부르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논점을 바꾸면 전선을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 일본 땅인 것처럼 되고, 리앙쿠르암이라고 부르면 임자 없는 바위섬처럼 인식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중’의 개념을 교배의 장벽이 아닌 외모의 분화나 기능의 다양화까지 이동하면 완전히 논점이 달라지고, 기존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새롭게 밝혀진(?) 과학도 모르는 뒤처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루며 창조론



원숭이가 바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가지치기를 했다는 유인원 진화의 계통도

을 조롱하는 커뮤니티와 유신진화론 유튜브 채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속고 있다.

이런 일을 비유로 말하자면, 자기네 이론으로는 골이 죽어도 안 들어가니까 **골대를 잔뜩 넓혀 놓고** 싸우자는 꼴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골을 막아야 하나? 도대체 왜? 그런 식의 반칙으로 나오면 우리도 골키퍼를 두 명, 세 명 세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들의 룰을 따르다가 더 많은 것을 양보하는 동안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영혼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기꾼이, 자기가 한 일은 범죄라기보다는 장난이나 애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 범죄가 장난과 애교가 되면 무죄가 된다.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장 홈그라운드에서 자기네 규칙대로 다투자는 것이고, 유신진화론자들은 거기에 응해 경기를 뛰면서 창조론자들에게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 격이다.

원래 가장 아픈 것이 내부에서 이탈한 자의 공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사람, 안에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정치인이 가장 골칫거리다. 그런 정치인들은 정적들에게 크게 환영받는다. 그런 사람이 누구의 편일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조직보다 자기 이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진화론자들이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 역시 어느 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어느 편에서도 욕먹기 싫은 사람이며,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회색분자라 할 것이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처럼 창조론 쪽에서 나가 진화론의 편을 들면 창조론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들이 맞는 말을 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유신진화론자들의 공격은 기독교 내부를 향한다. 만일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텐데, 창조론자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 자기들이 대신 부끄러워하고 있다.

아무튼 창조론이 말하는 종의 경계는 교배의 장벽이다. 나머지는 모두 분화이며 종내 다양화로서 과학에서 소진화라고 부른다. 먹이나 환경이 바뀌면 새의 부리도 바뀐다. 이것을 열심히 관찰한 것이 다윈의 핀치새에 관한 보고다. 다시 먹이가 바뀌면 부리는 또 돌아온다. 이것이 무슨 진화인가. 단순한 적응이자 변화에 불과하다. 사람도 식생활이 바뀌면 체형도 바뀌고 발육도 달라지며 머리 색깔이 바뀌기도 한다. 요즘 서양인들을 보면 흑인인지 히스패닉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도 많고, 피부색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화가 아니다. 기후에 적응하고, 외세를 차단하면서 응집되고 굳어진 인종간의 육신적 특성이 재차 섞이고 풀어진 결과다.

끝으로 기억할 것이 있다. 모든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성도들을 제일 많이 죽인 것은 무신론자나 이교도가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이었다. 로마 가톨릭이 죽인 개신교인은 대략 6천~7천만 명이라지만 사실상 숫자를 기록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것도 성경 번역자나 지식층을 본보기로 무척 많이 죽였다. 또한 개신교 국교회에서도 많은 탄압을 했다. 순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가해자들이 과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이었을까?

사람은 그의 친구보다 적이 누군지 살펴보면 더 확실히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구의 칭찬을 받는지 보면 그의 정체가 드러난다. 물론 유신진화론자들 가운데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독 신앙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들 방식의 신앙을 가지려면 진화 이론을 인정해

야 하고, 그에 맞춰 성경을 달리 해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그런 과정들이 거의 모든 교회의 배교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원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와 진화 같은 기원 과학은 어떤 쪽도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¹ 어차피 다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 편에 서면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의 편에 서서 과학을 부연 설명해야 한다. 무신론의 편에 서서 성경과 창조론을 애써 부연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창조론자들은 더욱 외로워질 것이다. 기독교의 붕괴와 함께 성경과 창조론과 모든 건전한 신앙들은 세속화되고 더 인기 있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소수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용기를 잃거나 자신들이 가는 길을 의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우직하게 붙잡는 성도들의 승리를 확신한다. ❸

1. 창조론자가 모든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론이 실험 과학이 아닌데도 마치 밝혀진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28쪽 참고). 또한 진화론 진영의 과학자들의 훌륭한 발견과 다양한 성과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구들을 통해 기원을 왜곡하고 진화를 단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이다.

지성에서 어긋난 영성으로?… 이어령의 창조관과 성경관

이어령, 학자로는 훌륭하지만 신앙인으로는?

이어령(1933~2022) 선생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석학이자 문학가로 나 역시 이분의 팬이었다. 멋진 글솜씨와 낭만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 세상의 법칙을 꿰뚫는 예리함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늘 돋보이는 훌륭한 분이다. 노년에도 첨단 매체를 활용해 젊은이들보다도 더 명민하게 집필하며 사색했는데, 여러모로 대단한 시대의 지성이라 생각한다.



그 옛날 검정고시를 할 때, 『축소 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부터 나는 이어령 선생을 알았고, 여성 잡지사에 다닐 때도 글들을 접했다. 그러다가 1990년 그가 노태우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되었는데, 예상 못한 신선한 임명이었다. 다른 많은 업적이 있겠지만 가장 놀란 것은 종로와 광화문 등을 ‘낙엽의 거리’로 지정해 떨어진 낙엽을 쓸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당시 정동제일교회 맞은편 구 신아일보 건물에서 일하던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낙엽을 굳이 안 치워도 되네. 도

심에서 노란 은행잎 더미를 밟으면서 다녀도 큰일 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발상의 전환’이 되었다. 지금은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비가 있는 그 네거리를 이리저리 오가며 가을마다 즐거웠던 기억이다.

이어령은 불신자였다. 하지만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딸(이민아)이 목회자가 되고, 먼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실명이 치유되는 등의 은혜를 체험한 뒤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열림원, 2010)라는 책이 그 고백을 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분의 이야기는 교계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령 선생은 생전에 말기 암 투병 중에도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여전히 글을 쓰며 최후까지 유언 같은 책을 남기고 싶다고 했었다.

고개를 가웃거리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왜 문제 삼으려는 걸까. 나는 실명 비판을 잘 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타인을 대놓고 비판할까 싶기도 하고, 실명 비판을 하도 많이 당해 봐서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남을 비판하다 보면 사실 관계나 전후 말을 다 자르고 왜곡하든지 악마의 편집을 할 수 있으므로 역으로 비난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거론되는 공인의 공개된 동영상이나 뉴스에 언급될 정도로 사실이 확실한 부분은 인격적 비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언급할 수 있다.

이어령 선생은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과 몇몇 저서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했다. 해석과 믿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그는 양화진문화원이 2010년경부터 진행한 당시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와의 대담 ‘양화진 목요 강좌’에서 삶과 신앙과 종교에 대한 견해를 밝혔

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도 많다. 설득의 귀재인 만큼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한국 교계가 유신론적 진화론에 몰들어가는지, 왜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창조과학회가 조롱을 당하는지 알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

양화진 목요 강좌의 일부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졌고, 동영상 클립들도 있다. 일련의 강좌에서 이어령 선생은 창조관과 성경관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진화론)과 창세기가 다른 것을 보면 갈등을 느끼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고 신앙적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크리스천투데이(양화진문화원)

처음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믿는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6일 창조와 갖가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불신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비논리적인 성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한 단계 도약이며 성숙한 자세라는 거다.

1단계: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배우고, 성경에는 한 점의 틀림도 없다고 배운 대로 믿는다.

2단계: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과학을 배워 보니 저절로 모든 것이 생겨나서 차츰 진화해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을 알게(밌게) 된다.

3단계: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하다

가 교회와 신앙을 떠날 수 있다.

4단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과학을 받아들인다. 성경은 모순이 많아 보이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극복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경을 맹신하거나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신앙, 말하자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맹목적 믿음이라는 얘기다. 과학에 비추어 이해가 안 가도 믿으라니, 성경이 무슨 세뇌와 정신 승리의 대상이라는 말인가?

종교와 과학, 싸우지 말고 서로 참견 말기?

이어령은 창조 진화 갈등의 해법으로 스티븐 제이 굴드의 노마(NOMA) 원리를 다시 꺼낸다. 종교와 과학의 ‘교도권 분리’를 주장한 것으로 굴드 역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저명한 진화학자다.

‘노마’는 논오버래핑 매지스트리아(NO overlapping MAgisteria)의 앞글자들을 딴 것으로 과학(자연 분야)과 종교(윤리와 도덕 분야)는 서로 탐구하는 영역이 달라 오버랩되지 않으므로 간섭 말고 제 갈 길을 가자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다. 하지만 이 말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일 때만 가능한 논리다. 기독교를 종교라 하는 것은 세상의 분류일 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다. 이는 마치 부모님께 하는 당연한 도리와 행동을 ‘노인 공경’이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이며 기본값이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실질적인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것들도 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서 멀리 떠나 남처럼 사는 자들

이 아버지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자식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이 어찌 그들에게 동조해 논쟁이나 설득을 하지 말고 서로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자고 할 수 있다는 건가. 그건 자녀 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결국 남의 편에 서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부인하는 일이다.

이어령 선생은 교회에서 과학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럴수록 고립된다는 거다. 하지만 교회가 과학을 말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성경이 신화의 세계가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떨겠는가? 세상에서는 지금도 진화론만을 정설로 배운 아이들이 심적 갈등을 느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과학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과학을 받아들여 사회에서 포용력 있다고 인정받으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을까? 그것은 기독교의 미덕이나 소명이 전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눅 6:26)

그렇게 교회가 과학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가 진화론을 인정하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계속 다닌다면 그것은 사교 집단으로서, 혹은 창조주로서는 아니지만 현금 내고 착하게 살면 복을 주는 여타 종교들과 비슷한 신을 섬기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빛을 잃은 상태다. 또한 성경도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보편적 진리가 아닌, 교회에 들어온 자들끼리만 통용되는 주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교회로 하여금 과학을 품으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노마 원리라도 위배된다. 왜 과학은 교회를 철저히 배격하는데 교회만 과학을 품어야 할까?

진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증명할 수도 없다

양화진 목요 강좌의 '종교' 주제에서 이어령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

최초의 종교가 어둠과 빛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초기 형태에 속하는 원인(原人)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합니다. 독일과 터키 접경 산골짜기에 호모사피엔스보다 먼저 멸종된, 인간과 거의 똑같은 원숭이보다 진화된 네안데르탈인들의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원숭이가 죽으면 매장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뒤 슬픔이 남고 나도 저처럼 죽는다는 걸 알면서, 정말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는 죽은 자를 매장했다는 거지요... 그 무덤에서 꽃이 나왔습니다... 선(善)과 의(義)와 미와 진리를 지닌 마음에서 먹지도 못하는 꽃을 죽은 자에게 바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종교와 인간의 시작입니다.

- 『지성과 영성의 만남』 중에서

가만히 들어 보면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가? 인간 스스로 종교가 필요하다고 자각했다면 아담은 누구인가? 원숭이에서 진화하는 과정으로서 언급한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진화학계에서도 현생 인류로 분류되는 존재로 과학 교과서에 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어령 선생의 시대에는 배웠던 지식이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이 인용한 노마 원리의 주창자 굴드는 수많은 화석 데이터를 직접 연구한 고생물학자로서 그 자신은 다른 진화 방식을 말하지만 점진적 진화론, 즉 기존의 화석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은 전혀 관측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석)종은 불변하며, 이러한 무진화 현상이 오랜 기간의 지질 연대 층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모든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공

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 이유는 화석종의 불변성이 무진화에 대한 증거가 되어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윈의) 이론과 (상반되므로) 흥미 없는 연구 결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너무도 광범위한 화석종의 불변성은 당황스러운 실상이며, 결국은 무진화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 내추럴 히스토리 논문 '코델리아의 딜레마'(1993)

그런데도 이어령은 진화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그토록 명민한 사람이 신앙은 받아들이면서도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는 신앙을 가진 뒤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라는 평가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창조론자가 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은 감수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제발 교회에서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았다든지 하는 이야기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맹수들이 방주에 탔겠느냐거나, 무엇을 먹고 1년을 버텨왔느냐는 창조과학 초기 입문자들이 할 만한 기초적인 반문을 한다. 이미 답이 오래전에 나온 것들이며, 세계적인 학자이면서 창조론자인 사람들이 증명한 것들인데 말이다. 맹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이 그때까지는 초식성이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며(창 9:3), 천년 왕국에서 재현될 세상이다(사 65:25).

딱 한 번 창조? 분화와 진화를 혼동한 개념

기독교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떠받드는 일이다. 가난한 서민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아한다. 그러나 부유층이나 유명인이나 지식인이 되면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며 극진히 대하고, 또 홍보에 활용하며 과시한다.

신앙의 이력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신앙 초년기에 선불리 교계의 스피커가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세상 이치를 깨우쳤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도 질릴 정도로 많은 학식을 지녔지만 핵심을 짚어 내지 못하는 모습은 크리스천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도올이 개종해 세례받고 기독인이 된다면 어떨까? 모두 열광하며 그의 학식을 칭송하는 것은 물론 서둘러 기독교 방송 무대와 강단에 올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옳은 말을 하게 될까? 사도 바울처럼 전에 쌓은 그 많은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까?



도올과 비교해 미안하지만, 이어령 선생도 내가 보기에 기존 지식들을 하나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학이라는 지식을 하나 더 얹은 듯한 느낌이다. 아니 오히려 그 학문들을 소프트웨어 삼아 기독교를 재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그가 기독교와 신앙에 관해 쓴 글들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진화론은 다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물들, 하나님의 창조 정신 속에서 태어난 자연물들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진화하며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 『지성에서 영성으로』 중에서

찰스 다윈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유신진화론자였다. 후대 사람들이 진화 생물학을 우주와 연결해 빅뱅과 우연 발생으로 연결했을 뿐 다윈은 신이 공통 조상이 되는 어떤 씨앗을 창조했는데 진화를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이어령 선생도 하나님이 ‘딱 한 번’ 창조하신 뒤에 진화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것이 맞다. 하지만 이어령이 말하는 그 ‘딱 한 번’과 6일 창조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세포나 물질 같은 공통 조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각 창조물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다산(생육)하며 번성한 것이다. 그것을 종의 다양화 또는 분화라고 하며, 과학에서는 ‘소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대진화’로 분류하는 중간 이동이나 진화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인종이 다양하고 생김새와 크기와 피부색이 천차만별이지만 한 종류로서 서로 수혈이 가능하지만 다른 종류의 동물과는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이것은 정해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 번 종류대로, 종류 안에서만 발달하며 땅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창 1:25)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내용이다.

양날의 칼과도 같은 ‘이어령식’ 표현력

이어령 선생의 통찰력은 방대한 지식과 그것을 융합하고 편집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평소 느낀 단점 아닌 단점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단적인 사실들을 비약해서 제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성급함을 설명하면서, “대다수 한국인이 사탕이 녹을 때까지 못 기다리고 깨뜨려 씹어 먹는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빠른 이해를 돕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 사실 하나로 전체를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게 한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끌어와 귀납적으로 잘 푸는데, 설득에 성공하면 통찰력이 되지만 실패하면 ‘재담’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비약적 설명이 성경에 적용되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성경의 사실들, 특히 창세기의 기록들을 사실로 보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는 실제로 특정 구절이나 성경 속의 사건들을 기존 과학과 역사의 틀에서 설명하는 시도를 많이 했다. 아담이 창조된 날 밤을 겪으면서 다 끝나는 줄 알고, 새날의 개념을 알지 못해 두려워할 때 종교가 탄생했다는 식의 설명은 함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력이라는 무기로 성경의 사실성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진화의 긴 연대를 압축한 거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 순서가 진화론과 똑같지도 않지만 말이다.

이해가 가는 것은 믿고,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못한다면 성경과 기독교가 무슨 소용일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안 하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된다.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며, 우리는 기독교를 붙잡을 필요조차 없게 된다.

이해가 가는 것은 믿고,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못한다면 성경과 기독교가 무슨 소용일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안 하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된다.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며, 우리는 기독교를 붙잡을 필요조차 없게 된다.

물론 모든 유신진화론자들도 창조의 6일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처녀 탄생과 부활은 믿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진화론으로 성경을 풀 정도면 과학적으로 처녀 탄생이나 부활은 불가능한 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며, 그 역시 창조의 6일처럼 상징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식의 생각이 가장 뿌리 깊은 이단인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 사상과 같은 것이다.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2~3)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다. 믿기지 않기로 치면,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어디선가 무엇이 생겨나서 물질을 이루어 생명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 첫 공통 조상 세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그것이 저절로 더 나은 것으로 진화를 거듭해 사람이 되어 말도 하고 생각도 한다는 것이 더 기막힌 기적 아닌가?

더욱이 어떤 생물종이 다른 종으로 변천하는 흔적은 전혀 없는데도 그것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게 훨씬 더 큰 믿음 아닌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정말 이동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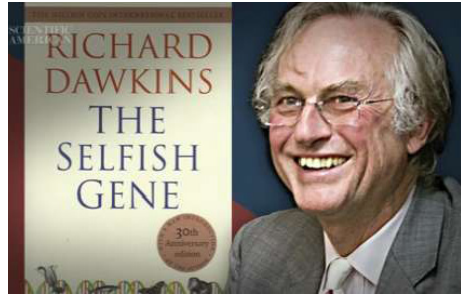
이어령 선생은 이런 글도 남겼다.

DNA,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 특히 『이기적 유전자』를 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나는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긴 거죠. 왜? 몇 조가 되는 세포 조직이 하나하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도킨스 같은 사람이 DNA 법칙 등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 대신 뭔가 위대한 힘이 아니면 아귀가 맞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 『지성과 영성의 만남』 중에서

이 말처럼 이어령 선생도 분명 신을 믿으며, 지적 설계를 믿고 있다. 그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 ‘신’은 ‘하나님’에서 ‘하느님’이 되고, ‘막연한 절대 신’이 되었다가 ‘위대한 힘’이 된다. 그것은 대지의 신 가이아나 심지어 외계인으로까지 변모할 수 있으며, 리처드 도킨스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만물을 조화롭게 만든 진화하는 힘으로서의 ‘눈먼 시계공’이 되는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절대자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책 『이기적인 유전자』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누구 밑에 있는 창조물이 아니며 홀로 계신 존재 자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출 3:14)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두려운 신 하나님이니라. (신 10:17)

한두 편의 글로 한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의 글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우려스러운 점을 개인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짚어 보았다.

빌리 그레이엄도 훌륭한 사역자 같았지만 유신진화론자였고, 그런 부정적 오픈 마인드로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몰라도 천국에 간다는 공개 발언을 통해 배교 행위까지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어령 선생은 10여 년 전 책에서 자신을, 아직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문지방에 있는 자'라고 소개했다. 그때는 신앙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니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사망 직전까지의 자료들을 보면 그는 노년에도 여전히 문지방에 머물렀거나, 오히려 지성에 영성을 혼합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른 법이니 사람은 문지방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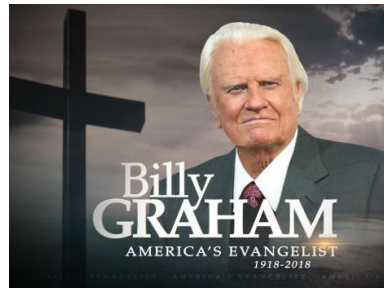
지성에 영성을, 더 큰 것을 작은 것에 억지로 옥여넣으면 반드시 기형이 되고 일그러진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어령 선생도 부디 참된 영성에 그 탁월한 지성을 담아, 혼란의 시대를 비추는 복음의 스승이 되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대로 떠나고 말았다. 이제 판단은 성도들의 몫으로 남았다. ❷

빌리 그레이엄의 또 다른 오류, 유신진화론

그는 왜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나?

빌리 그레이엄(빌리 그래함, Billy Graham, 1918~2018). 요절하지 않고 100년을 누린 타인칭 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는 세계 크리스천의 멘토로 존경받고 있다.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의문이 남아 있다. 어째서 자기 입으로 명백한 배교를 하고, 복음의 핵심을 부인한 자가 여전히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것



은 몰라도 활자와 영상으로 남은 1997년의 배교 선언만 보아도 게임은 끝인데, 어떻게 20년 넘게 크리스천 리더로 남을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로만 남고, 신학과 복음이 변질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인지 분별하기 싫어하는 탓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무척 복음적인 것 같은 빌리 그레이엄은 부흥회의 연단에서만 힘 있게 외쳤을 뿐 그의 사상은 실로 기독교라 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대중은 정치인의

깊은 생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철학 같은 건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 이익에 반하는가 아닌가, 내 집값, 내 아이 교육에 어떤 이득을 줄까, 나와 같은 종교인인가 등등만 보고, 연설 때 하는 핵심적 모토만을 기억한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던진다. 이처럼 빌리 그레이엄 부흥회의 홍보 영상 같은 것을 보면 그의 입에서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것만으로 일생 동안 그에 관한 이미지를 결정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레이엄 목사의 삶과 족적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그의 사상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크리스천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그가 추앙받은 또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유신진화론자였다. 한마디로 열린 생각의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느슨한 성경적 사고가 근본주의를 싫어하면서 중간 지대에 머무는 크리스천들의 입맛에 맞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함축된 범우주적 신앙…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더 큰 절대 신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타 종교를 통해, 우리는 이 길을 통해 거기에 이를 뿐이라는 프리메이슨 사상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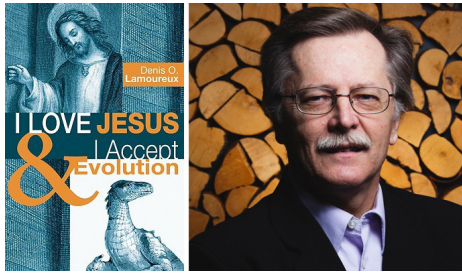
빌리 그레이엄이 프리메이슨의 고위급 멤버였다는 말은 서류를 보지 않은 이상 음모론이라고 말해도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의 말과 행보는 전형적인 프리메이슨 사상임이 분명하다.

데니스 라무르와 3가지 유신진화 학설

유신진화론은 매우 복잡하다.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물과 기름을 섞으려니 부연 설명이 많고, 난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학자나 견해별로 성경과 창조를 인정하는 양도 각기 다르다. 그중에서 극단적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데니스 라무르(D. Lamoureux, 1954~)라는 사람이 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 진화 과정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학자로 아담은 창조에

관한 상징일 뿐, 실존 인물이 아니라
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전에 신학자 김모 교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 중 라
무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
다. 라무르는 강경한 유신진화론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그 한계점, 즉 성
경과 많은 부분이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데니스 라무르와 그의 저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
한다,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진화론적 창조론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것이 성경의 시작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보듯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3장을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의 기본적인 기
록으로 이해해 왔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2장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되는 인류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고 믿어 왔다.

이러한 진화론적 견해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들이 창
세기의 앞부분을 문자적인 역사적 서술로 종종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
고 가장 날카로운 어려움은 인간의 죄와 육체적 죽음의 기원과의 관계를 설명하
는 일이다. 창세기 3장, 로마서 5장과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이 세
상이 온 것은 아담의 창조와 그의 원죄 이후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에 대한 이 기독교적 관점은 화석의 기록이 인간이 등장하기 수억 년
전에 죽음이 존재하였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고 주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진
화론적 창조는 우주적 타락(cosmic fall)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다. 따라서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은 기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매우 부자연스러
우며(unnatural) 반직관적인(counterintuitive)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¹

1. Denis O. Lamoureux, I Love Jesus & I Accept Evolution, p. 31.

한마디로, 유신진화론은 성경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상충이다. 다음은 이를 논평한 김 교수의 글이다.

라무르는, 인간이 선행 인류에게서 육체적으로 진화를 이룬 결과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인간이 선행 인류의 진화 가운데 어느 때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신비로운 사실로 남기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라무르가 소개하는 세 가지의 유신진화론 형태이다.

1. 진화론적 인류 일조설(Evolutionary monogenism)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선행 인류들 가운데 한 쌍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이 쌍을 제외한 다른 선행 인류들은 다 멸절이 되었으며, 현행 인류는 선택받은 선행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오늘에 이른다는 주장.

2. 특정 시점의 인류 다조설(Punctiliar polygenism)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선행 인류들 가운데 한 그룹 또는 모두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멸절케 하신 것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아담과 이브를 여러 명으로 해석함.

3. 점진적 인류 다조설(Gradual polygenism)

선행 인류들이 진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타락의 양상이 점진적으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견해. 이것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아담과 이브도 없음.

재창조론이나 깎 이론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들인데, 이 셋 가운데 라무르 자신은 3번 ‘점진적 인류 다조설’을 수용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1번 ‘진화론적 인류 일조설’의 지지자로 빌리 그레이엄을 언급한다.

진화론에 열려 있는 빌리 그레이엄의 고백

자,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을 배신한 것뿐 아니라 창조론까지 부정했다는 것인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복음과 진화론은 상극이기 때문.

오늘 과학과 경전 사이에는 전혀 충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의 책입니다. 물론 나는 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이 진화 과정에 의해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그가 살아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²

그렇듯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 믿을 뿐 성경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안 보고 참고 사항으로만 보는 것은 불교인, 이슬람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네 해석을 하면서 성경도 일부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성경에서 인류가 생각해 온 기원의 관점을 참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적 성경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말씀(Word)이신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요 1:1)’을 믿느냐는 질문이다. 내가 곧 말씀인데 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니, 이런 귀

2. Billy Graham: Personal Thoughts of a Public Man, 1997. pp. 72-74

변이 어찌 신앙이며 참된 과학이냐고 물으신다.

빌리 그레이엄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데 진화론을 받아들인들 그게 무슨 상관이나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치 라무르의 저서 제목처럼, 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어차피 본 것도 아닌데 해석의 차이일 뿐,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한다. 나 술 좋아해, 근데 예수님 사랑해.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예수님 사랑해. 나 성경 안 읽고 진화론도 믿어. 근데 나 예수님 사랑해.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인류를 창조했을지 어떻게 아느냐, 안 봤으면서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무한한 상상도 단지 상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보지 않은 것, 불가능한 것,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른 더 큰 기적을 상상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은 맹목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뜻하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리라 믿고 일단 말씀이 지시하는 쪽으로 몸을 옮기고 머리를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어차피 유신진화론으로 가도 해석과 입증은 불가능한데, 굳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좁은 머리로 일부 밝혀냈다고 주장하면서 발휘한 서사적 상상력을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과연 잘했다 칭찬하시겠는가.

빌리 그레이엄처럼 긴 연대의 지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대해 열려 있는 기독교 학자들은 적지 않다. 글리슨 아처(G. Archer), 마이클 베히(M. Behe), 노먼 가이슬러(N. Geisler), C. S. 루이스(C. S. Lewis), 프랜시스 웨퍼(F.

Schaeffer), C. I. 스코필드(C. I. Scofield), 리 스트로벨(L. Strobel) 등이다. 이들은 탁월한 저술가이면서 크리스천 리더들이다. 보수적 신앙인도 있고, 진화론과 싸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부정하고 세상의 과학이 추정하는 긴 연대를 믿는다면 성경을 견고히 세우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교회가, 창조론이,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같은 배교자는 재평가되고 실체가 알려져야 하지만,³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짧은 연대의 창조론과 성경 무오성,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❷

3. <Foundation>지 1997년 5~6월호에 게재된 빌리 그레이엄과 로버트 쉐러(R. Schuller) 목사의 대담 중에서.

그레이엄 :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무슬림 세계에서나, 불교도 세계에서나, 기독교 세계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백성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으므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빛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쉐러 : 뭐라고요? 지금 박사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그레이엄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조론을 표방하는 신(新)유신진화론자들

1. 유신진화론 vs. 신유신진화론

요즘 교계에 진화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들은 유신진화론자들이다. 늘 말하지만 ‘진화론’ 앞에는 무엇이 붙어도 결국 진화론이다. 그런데 요즘 늘어나는 유신진화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포장하고 선전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 참 과학
- 합리적 창조론
- 솔직한 기독교 신앙
- 편협하지 않은 균형 잡힌 과학

그래서 그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나름 의식을 지닌 신앙심 깊은 분들도 있다. 그중 한 부류가 창조과학을 하다가 지구와 우주의 연대 문제로 동료 박사들과 결별하고 따로 단체를 만든 양모 박사다. 그가 하는 단체 이름이 ‘창조론 오픈 포럼’이다. 명칭부터가 진화론이 아니다. 창조과학자들의 업적을 폄하하고 성경과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이름

이 창조론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들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계 과학자들이 매우 많다.

그러면 이들은 기존의 유신진화론자들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흔히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원시적 형태의 창조였고, 이후 진화적 방법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든지, 6일 창조는 긴 이야기의 압축이며 진화적 긴 연대의 각 부분을 상징한다는 ‘날-시대 이론’ 같은 것이다. 이들 역시 자신들을 진화론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과 최근에 퍼지는 유신진화론은 이처럼 조금 다르다. 그래서 자신들을 합리적 창조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외치는 요즘의 진화론자들은 구분상 ‘신(新)유신진화론자’라고 부르고 싶다.

최근 이들을 대부분의 기독교 언론들이 인용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존의 창조과학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무지한 믿음 정도로 생각하는 폐단이 늘고 있다.

어떤 이론이나 세력의 등장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싸움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쪽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다른 쪽이 득세하고, 그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공세를 펴서 주도권을 되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누가 더 세력이 큰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이며 진리에 가까운가가 문제일 것이다.

2. 이것은 과연 과학의 논쟁인가?

기이한 것은, 기존 진화론이나 지적 설계론, 오래된 유신진화론과 신유신진화론, 그리고 창조과학 모두 과학계에서 전혀 뒤쳐지지 않을 학위와 연구 성과와 직함을 지닌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두루 포진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물의 생성과 발달에 대해 탐구하는 ‘기원 과학’은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유추하는 ‘해석 시스템’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이 아니라 ‘종교’이다.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싸워 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 어떤 종파, 심지어 이단에도 멀쩡한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믿음’이기 때문이다.

기원 과학을 말하는 다양한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만물의 생성과 발달 과정에서 신의 개입 정도를 평가한다.

- **진화론:** 저절로 생겨 자연 스스로 선택해 발달했다.
- **지적 설계론:** ‘저절로’는 비논리이므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지적으로 설계했다.
- **유신진화론:** 신이 진화적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창조했거나 공통 조상 창조 후 그것이 스스로 진화했다.
- **신유신진화론:** 원론적으로 신의 창조가 맞지만 성경(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을 경계해야 하며 진화론도 상당 부분 과학적이므로 일부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창조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특별 창조하여 완성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했을 뿐 중간 진화는 없었다.

진화론자들은 신의 개입 정도에 따라 과학에서 더 많이 배제하지만, 신을 제외하기 위해 비논리를 채택한 그들이야말로 사이비 과학의 기수이다. 그들과 문자주의적 창조론 사이에는 이 둘을 섞은 다양한 하이브리드가 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한 방식인데, 본인이 창조론자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모두 믿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100%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창조론자로 자리매김된 경우가 허다하다.

3. 창조에 소요된 기간 문제

이런 갈등은 반드시 ‘연대 논쟁’으로 번진다. 지구와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얼마 동안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신유신진화론자들은 잦은 공격을 통해 ‘6일 창조’와 ‘짧은 연대설’이 비과학적이라며 문자주의적 창조론자들을 비웃고 공격한다.

조금 더 진화론에 전향적인 한 출판사는 심지어 본격 유신진화론 책을 번역해 기독교인들의 서평까지 모집하면서 창조론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학자들을 깎아내리고, 창조과학을 연구한 역사 자체가 짧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이론의 역사가 신빙성에 비례한다면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훨씬 역사가 짧다. 또한 현대에 밝혀진 수많은 이론은 주장의 역사가 짧으니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과학의 발달은 늘 진화론을 증명하기보다는 그것의 허구성을 드러냈으며, 성경을 신화에서 사실로 바꿔 왔다. 짧은 연대를 말하는 문자주의적 창조론의 입증도 현대로 올수록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다.

중대한 과학 이론의 상당수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부터 완성되거나 밝혀졌다. 이론의 역사가 연구의 누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 종 화석 단 한 점도 발굴하지 못한 진화론의 역사는 길어질수록 오히려 굴욕과 불완전함만을 가중시킬 뿐이니 따져 봐야 자기들 손해다.

이런 공격 자체가 그들의 과학적 빈약함을 보여 주며, 그들이 사랑하는 오랜 연대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다. 오래되면 지구도 생성되었을 것 같고, 오래 되면 우주도 설명 가능할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를 아무리 늘려도 우주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논쟁의 문제는 설명 불가능한 믿음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에 놓고 난도질하면서 자신들은 과학을 다루고 있다고 우기는 데 있다.

창조를 완성한 기간인 ‘6일 창조’는 성경에 등장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는 것은 상징이 아니고, 긴 연대의 압축도 아니

다. 그 증거로 하루 24시간을 사는 인간에게, 인간이 알아듣도록 명백하게 선포하셨다(출 20:11).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의 '옛새' 중 하루를 십만 년으로 보거나, 오랜 기간을 상징적으로 옛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성경은 대부분 신화이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복음과 구원 관련 구절은 진실이라고 할 것인가? 자기 신앙에 필요한 구절, 목회에 필요한 내용은 진짜이고, 이런 구절은 뭔가 다른 의미라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면 이 때에 뭔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옛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가?

아무리 말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한 단어, 한 구절이 틀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6일 아니라 6천억 년이 흘러도 우주는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6일, '옛새'라고 하신 것인가? 비유의 문맥이 전혀 아니다.

4. 지구와 우주의 나이, 연대 문제

인류 연대는 흔히 제임스 어셔의 계산에 근거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아담의 생일까지 산출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하나님은 큰 사건의 날짜 자체를 따지는 일을 경계하신다. 그 문제로 인해 큰 동요가 날 수도 있고, 보고 나서야 믿는 자들을 경계하여 확인이 아닌 믿음을 판단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이 이루어질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고 계산하는 것 역시 금지하셨다(마 24:36).

6천 년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세상을 유지하시고 천 년 동안은 만물이 회복되는 세상이 온 다음 무궁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선부른 단언은 금물이며, 하나님은 때로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므로 모든 것을 알려는 자체가 오히려 무지한 자가 되는 길이다.

신유신진화론자들은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무척 길게 내다본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6천 년은 어불성설이며 무지한 주장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렇게 믿는 것을 맹신이며 비과학이라고 손가락질한다. 심지어 창조론자들 중에도 ‘6천 년’과 ‘옛새’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겉으로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긴 연대를 믿기도 한다. 겉으로라도 정확히 말하면 좋은데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거나 듣는 대상에 따라 연대 문제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도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모두를 다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자 무식자와 아인슈타인도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자기가 안다는 것도 참고 자료나 기존 연구 자료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떤 과학자도 애초에 자기 두뇌만으로 알게 된 것은 없으며 모두 기존 지식에 기대어 이론을 펴는 것인데, 과학에 관한 글을 써도 어떤 과학자는 인터넷을 참고하고, 어떤 과학자는 논문을 참고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느 과학자들의 글이라도 단어를 뽑아 검색하면 이미 밝혀진 많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심지어 문장째로 활용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사실은 기존의 과학이 잘못되면 모든 과학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과학의 연대 문제는 고도의 현대 기술과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등이 연결돼 있다. 그것들은 과연 건전하며 얼마나 ‘사실’일까? 예컨대 천문학에 있어서 조작 논란이 잦은 NASA의 활동을 전면 의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틀어질까?

5. 결국은 성경 논쟁에 도달하는 과학

기-승-전-경(經)이라고 할까... 모든 진실에 대한 논쟁은 결국은 성경과 믿음의 문제에 도달한다. 특히 ‘성경의 무오성’ 논란에 다다른다. 성경이 하나님

이 주신 것이고 그 원본과 현재의 성경 모두에 오류가 없다면 논쟁도 필요 없고 게임은 간단히 끝난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하는 문제부터 원본은 진실인데 그것은 지금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남아 있는 사본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별하고 후대에 남긴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이 역시 게임은 끝난다. 뭣하러 서로 싸우나?

결국 우리 모두는 100%의 진화론과 100%의 창조론 사이의 수많은 구간 중 하나에 서 있는 것이다. 각 구간에 머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중 하나의 핑계가 '과학'이다. 진화론자부터 창조론자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신 32:4)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드러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택하는 자들보다 더 나쁘다. 겉을 꾸며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심어 불신자를 양산하며, 그리스도인 없는 교회와 교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미 6:11)

그들이 세상을 재고 연대를 측정하는 잣대는 사악한 저울이며 속이는 추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아신다.

속이는 자는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시 101:7)

그러나 성경 전체를 진리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설령 자신들이 누군가를 속였다 해도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옛새 동안에’처럼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이 인간에 의해 훼손된 것인지 어찌 아는가? 어떤 두려운 말씀도 ‘성경의 부분적 오류’ 뒤에 숨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온갖 수단으로 성경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모르면 진리는 점점 멀어져 간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느 누구도 ‘기원’에 관해서는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많은 과학자들과 창조과학자들을 만나고, 강의를 들어 보고 글을 읽어 보았는데, 그들이 기원에 대해 말할 때는 모두가 모호하며, 결국 어떤 논리에 의거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매번 느낀다.

결론

어떤 기원론이든 그 근거라고 주장하는 과학적 증거는 매우 많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우주 생성 6천 년을 모두가 납득하도록 입증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먼지와 가스 덩어리가 스스로 모든 것이 됐다는 비과학을 입증할 것인가?

이 둘은 물론 그 사이의 다양한 혼합 이론들조차도 각각 대학을 설립해 가르쳐도 될 정도의 많은 이론을 지닌다. 모두에게 답이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답이 없다는 뜻이며, 상대방의 믿음을 뒤엎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서로 모를 바에는, 나는 성경을 믿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원에 대해 그토록 힌트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과학자들의 기원 논쟁은 우유가 몸에 좋다 나쁘다, 비타민이 어떻다 하는 식의 건강 정보와 다르지 않다. 좀 지나면 달라지는 ‘어, 그래?’ 식의 상식들… 성경을 그 정도의 선에 놓으면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모두 앞치락 뒤치락하면서 진리는 물 건너가고 논쟁만 남게 된다.

신유신진화론은 치밀하고 스마트해 보인다. 과학도 끌어안고 신앙도 포기

하지 않는 영리함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속는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을 믿는 우직함은 ‘바보 이반’의 미련함 같고, 아무리 그가 옳다고 해도 선뜻 따르기는 좀 모양 빠지는 무지한 길처럼 보인다.

자신들은 현명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들은 흡사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적군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아군에게 등을 돌리고 뛰쳐나간 엘리트 협상 부대원들 같다. 그러나 적군조차 이들의 모호함에 고개를 가웃거리고, 그들은 아군의 활동에 큰 부담으로 남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신을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친히 옛새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전하기 위해 힘쓸 바에는 말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온갖 이론을 동원해 말한다 해도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결국 불신을 선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딤후 3:14)이란 반드시 이해가 되는 사실이거나 자로 재서 ‘확인’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각자 검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맹목이 아니다. 창조과학조차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말씀에 늘 부합되지는 않지만 기독교 변증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할 뿐이다. 하물며 진화론을 돕는 이론은 결단코 합리적 창조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신 22:10)

소와 나귀는 걸음이 달라 함께 쟁기질을 할 수 없다. 혼합 이론은 가증한 것이다. 모두에게 합리적이기 위해 어차피 갈라질 땅에 양발을 디디고 우아하게 서 있어 봐야 머지않아 자기 가랑이만 찢어진다. 함께 갈 수 없는 것과 손잡지 말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time)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world)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느니라. (전 3:11)

기원은 '시간'의 학문이다.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 특정한 세상(world)을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안에서만 사고하고 알아야 할 것만 알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한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때(time)에 이루어진 일을 자기 마음속의 '세상'에서 상상하고 풀어 보려 애쓰다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과학으로 열심히 탐구하되 탐구가 불가능한 지점을 알고 겸허히 인정하며 말씀을 믿어야 한다. 기원 과학은 교만이 만든 학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의 논쟁은 더욱 다양해져서 문자주의적 창조론자들을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성경 무오성의 논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 증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뒤섞어 버리는 이론과 사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흔들림 없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고정해야 할 것이다. ⑧

종교 다원주의와 과학 다원주의

유신진화론이 주목하는 과학의 정체

기독교 신앙이 종교 다원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댄 지 오래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쩍 고개를 드는 현상이 있다. 나는 그것을 내 멋대로 ‘과학 다원주의’라고 부를까 한다. 이렇게 불러야만 지금 말하려는 그 현상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타 종교나 무신론과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같은 교계라고 부르는 곳에서 서로 싸우고 공방을 벌이는 일이 많아졌다.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과학 다원주의자들도 근본주의를 문자주의라며 공격하기 바쁘다. 그들은 우리를 같은 편으로 여길까? 솔직히 그 답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묘하게도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들의 공격과 내용이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같은 편으로 보인다.

이 길에 들어설 때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고립되어 가는 것이 두렵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믿었던 주변 사람들까지 다 돌아서는 것 같아 답답하다. 과학적 증거 면에서 전혀 위축될 일이 없는데도 조금만 진화론의 공격을 당하면 그들에게 훨씬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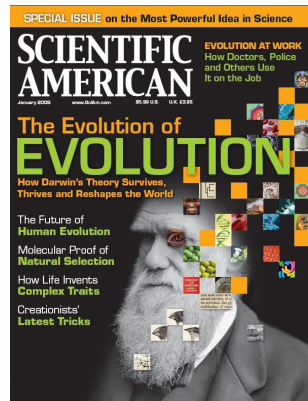
이른바 ‘과학 다원주의자’들의 최근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 창조과학은 부실하다.
- 문자적으로만 풀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다.
- 진화론과 진화학자들의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
- 하나님을 문자에 가두면 안 된다.

일단 창조과학은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역사도 짧고, 부실하다는 공격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만 할까? 아예 거짓 위에 지은 성이 진화론인데 감히 누구의 부실을 말하는가? 수적인 열세로 연구 결과가 적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 그것으로 진화가 증명된 일은 아예 없으니 연구 사례가 많은 만큼 더욱더 부실한 가설이 진화론이다.

창조과학이 2스트라이크 1볼이라면, 진화론은 삼진 아웃제로 애초에 퇴출감이다. 진화론은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이미 경기를 뺏 수 없는 상태인 사이버 과학이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밝혀내도 그것이 진화를 입증하는 사례로 쓰이니 새로운 업적 자체가 죄악을 쌓는 일이다. 사실은 게임 상대로 두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그것이 만연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거론하면서 피차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두 진영의 연구 환경은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창조과학은 연구자가 훨씬 적고 연구할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화론자들은 의도적으로 창조과학자들을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내몰고 있다. 다윈 탄생 200주년인 2009년에 특집호를 발간한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축하 글은 진화론자들의 전략을 보여 준다.



진화론 진영은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었다. 진화론 분야에는 엄청난 연구비와 압도적 연구 인력이 있고 대학, 연구소, 연구 단체, 학술지, 정부 행정 계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므로 반진화론이 오는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았다.¹

이것이 페어플레이인가? 그런데도 저들은 오류와 조작과 거짓으로 과학을 난도질해 놓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 지금도 폐기된 유인원의 이름을 외우며 믿는 사람이 있고, 각종 계통도와 조작된 자료를 참된 과학으로 알고 신을 부정하며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대한 선택적 믿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풀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있다. 그러나 문자를 문자적으로 풀지 않으면 무엇으로 풀어야 하나? 문자를 학문이나 환상이나 사람의 머리로 풀어야 하나? 그것은 코란은 코란대로 존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맘의 말이 법이 되는 종교, 성경은 있으나 그것의 의미를 재정립해 새 교리를 만들어 공표하는 교황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누구의 학문, 누구의 환상, 누구의 머리로 재정립할 것인가?

문자는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지닌다. 문자는 기록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역사서의 문자를 바꾸려는 자들에게는 의도가 있다. 유언장의 자구를 변경하려는 이들에게도 의도가 있으며, 어떤 법을 바꾸려는 자들에게도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자가 지니는 특수한 명확성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고는 불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바꾸고, 신학자들이 자꾸 성경의 단어를 바꾸며, 각기 입맛에 맞는 버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의 많은 방식 중 문자를 택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다윈주의

1. Scientific American, January 2009, pp. 78-85

자들은 문자가 고대로부터 있었으니 어떻게 하다 보니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자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다. 구전이나 환상이나 다른



어떤 도구도 문자만큼 정확하게 공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계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들은 도대체 성경의 어디까지가 문자이고 어디부터가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문자로 계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우리의 생존이 달린 복음만 문자적으로 보고 다른 것은 영적으로 보자는 것인가?

구원은 필요하니 십자가 사건만 사실로 본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아무 효력 없는데 어쩔 것인가? 그분이 처녀 탄생 안 했으면 죄인이라 속죄의 능력이 없는데 어쩔 것인가? 그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고 거짓말이면 그분 자신이 죄인인데 복음이 아무 것인가? 그분이 사람을 통해 기록된 성경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며, 오류도 없고 영원무궁토록 보존된다 하셨는데 이게 다 거짓이면 복음을 비롯한 모든 것이 허구가 된다. 모두 한줄기라 건질 것이 한 단어도 없게 된다.

죄는 단 하나만 남겨도 구원을 못 받는다. 완전함이란 그런 것이다. 하나라도 불완전하면 그것은 전체가 불완전한 것과 종류가 같은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복음은 받아들여도 다른 문자는 거부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인데(요 1:14) 이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말씀보다 신학자와 과학자를 더 믿는다. 그들은 이해가 가는 것만 믿는다. 각자의 선호하는 것과 마음에 드는 것을, 즉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성적인 신앙이라고 착각한다. 문자가 있는데 그것을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한다.

그들은 계산서와 각서, 차용증, 계약서는 당연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서,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 언약의 문서를 마음대로 해석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면서, 신이 있다면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 신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든 우리를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보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문자에 갇히셨는가?

근본주의밖에는 없던 시절, 성경이 거의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던 웨슬리와 무디와 스펀전의 시대에는 최소한 지금처럼 신학과 종교가 타락하지는 않았다. ‘성경 다원주의’가 기독교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때보다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더 많은 성경이 나왔는데, 왜 우리의 영성은 한결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하는가?

성경의 문자에서 떠나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왜?

그 문자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이다.

문자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인간이 머리 좀 컸다고 문자를 가볍게 여긴다니... 하나님이 문자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해방시켜 드려야 하나?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이다. 내 심장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지만 문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런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적용해 우리를 재단하고 심판하실까?

“나는 우주에 존재했고 무소부재한 신인데 너는 왜 모르느냐, 만물에 계시던 나를 어찌 모를 수 있는가.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움직일 수 없는 문자로 모든 것을 알려 주셨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유와 비유와 상징까지 문자로 대입시키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문자주의에 대한 거부는 결국 영지주의식의 뜬구름 잡는 교리 이외에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지만, 창조과학에서도 일부 수정되거나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일은 과학계 전반에서 흔한 일이다. 창조과학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탐구의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교과서와 과학의 기틀 자체를 새빨간 거짓으로 구축해 놓은 자들에게는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만 호들갑이다.

어떤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공룡의 짧은 나이 증거의 발견에도 인간과 공룡은 함께한 적이 없다면서 고대인들의 그림도 알 수 없는 괴물이라고 한다. 정교한 조각과 점토상조차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와 정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말인가? 박물관에 진열된 공룡 화석에서 단백질이 나오고 아직도 푸른색을 띤 알 화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쥐라기와 백악기를 말할 수가 있나?

과학의 사대주의자들

아무리 봐도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크리스천이라면서 적들의 편에 서는 자들이여... 이쪽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면 되고, 부실함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함께 애쓰는 것이 정답 아닐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창조과학에서 오류가 나오면 고치면 된다. 또한 그것이 부동의 정답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런 현상이 성경과 부합되며 진화론보다 훨씬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같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실수 하나 발견하면, 그것 보라고 유식한 척 가르치려 들면서 적들의 언어로 무장한 채 공격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역사 속 사대주의자들이나 가나안의 정탐꾼이 떠오른다.

“그들은 우리보다 큰 자들이요.”

“우리의 과학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석학이며 과학계의 주류란 말이요.”

“고대의 기록인 성경으로 과학을 말하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아집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그들은 많이 알고 흠이 없으며 대단해 보였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 없음’이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우리에게 ‘과학을 모른다’ 하면서 자기네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알아서 곱씹어 ‘믿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모순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유연하고 겸손하다는 것이다. 아주 멋있다. 지성인으로 품도 잡고 신앙인으로 존경도 받는다. 인기를 얻는 데는 예로부터 이 이상이 없다.

성경을 과학으로만 다루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밖에서는 과학도 없다.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 안에서, 한길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괴상해 보이는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가?

그런데 어찌겠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결국 그런 자세로는 말씀 하나하나 모두 부인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보는 그들이 도달할 곳은 성경 다원주의이며 종교 다원주의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모든 선택의 문제에 O와 X를 대입해 보라. 중대한 문제일수록 답이 극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의 길은 결국 길이 없다는 것이며 길을 모른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길이 없고, 길과 진리이신 주님을 가르쳐 주는데, 정답이 하나라고 하면 웬지 촌스럽다는 사람들… 그 여러 길을 분주히 살피기 전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각자의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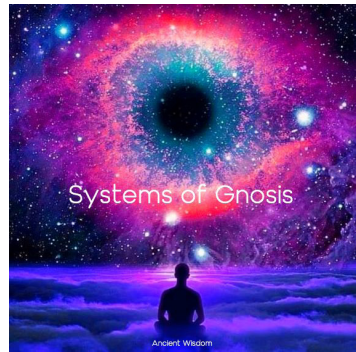
21세기의 영지주의 ‘유신진화론’은 기독교가 아니다

다 안다는 자들

“유신진화론은 21세기의 영지주의입니다.”

얼마 전 반진화론 학술 단체에서 한 목회자가 한 말이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문자적 창조론자들은 이 생각에 동의했다. 얼핏 생각하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의 주변에 머무는 이단적 사상들은 모두 그 맥이 같다. 진화론도 물론이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gnosis)라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했는데, ‘앎’이라는 뜻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들을 아그노스틱(agnostic)이라고 하는 데 반해 그노스틱(gnostic), 즉 영지주의자들은 다 안다는 자들,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인 것이다. AD 2세기경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렇다.¹



1. 출처: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루비박스)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고, 무엇이 되었으며, 어디에 있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탄생이란 무엇이고 갱생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다.”

- 테오도투스

“신이랴든가 창조, 그 비슷한 문제들에 관한 연구는 그만두라. 너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아 신을 찾으라.”

- 모노이무스

결국 영지주의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신이란 없다는 것이나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 따위가 잘못됐다는 생각 같은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알면 신을 안다’는 것이 가장 심오한 과정이라고 한다. 그들의 문헌에 등장하는 예수는 신이나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 지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구루나 스승에 불과하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이 기독교 이단이나 분파가 아니라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자신들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기독교 사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화 사상은 창조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누구였고, 어디에 있었는지, 탄생과 갱생까지 안다는 학문이다. 진화론은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오늘날뿐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시대에 존재한 비밀 교의이자 다른 복음이었다.

비논리의 학문 체계 '진화론'

그래서 아무리 신을 인정한다고 해도 유신진화론은 기독교가 아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유신진화론은 ‘유신’보다 ‘진화론’에 방점이 있다. 요즘 많은 기독교 식자들은 문자적 창조나 6일 창조를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들에게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은 많은 이들에게서 진화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능가하는 스승들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인도자들은 학식이 높다는 자들, 유명한 자들, 신앙적으로도 신실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로 인식되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다. 최근 이런 것을 전파하는 목회자와 학자, 유튜브 채널이 늘고 있고, 관심이 높아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영지주의에서는 성경의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창조라든지, 처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 승천 등등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수님 시대는 물론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이들의 주장은 크게 힘을 얻기도 했는데, 그들을 가장 배격한 것은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다.

유신진화론이 영지주의와 상통한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가설이자 사이비 과학인 진화론에 오히려 성경을 맞추기 때문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신화이자 긴 시대의 압축이고, 어디부터는 역사라면서 성경을 재단하기도 한다.

진화론을 사이비라고 단언하는 것은 진화론에 입각한 그들의 발견과 연구가 다 가짜라서가 아니라, 기원에 대해 단정하는 논리가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명의 메커니즘을 아무리 밝혀내도 전제가 잘못돼 있으므로 거짓에 기반하는 셈이다.

불가능한 우연 발생과 자연 발생,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논리 등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 불합리한 가설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철학이나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이 과학이라고 단정하며, 그 이외의 생각들을 비과학이라 하기 때문에 사이비라는 것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뜨거운 바다가 넘실대도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인데 말이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 진화론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진화적 방법으로 이루셨다고 믿는 것이 유신진화론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화적 방법을 기록하시지 6일 창조를 말씀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은 못 믿겠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감안해 성경에 거짓을 기록했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하나님은 못 믿는데 과학자들의 가설은 믿을 만해서 그 가설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니,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헛똑똑이들의 사고 체계

1. “내가 너를 낳았다.”
2. “너는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부모님은 너를 낳았다 하는데 부모와 떼어 놓으려는 훼방꾼들이 하는 말을 믿는 아이는 유신진화론자들의 생각과 비슷한 면이 있다. 탄생의 신비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엄마의 배에서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 두 번째 설명이 훨씬 그럴듯하다.

“어떻게 아기가 엄마 배 속에 생겨나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설명이 훨씬 그럴듯해.”

그때 고모도 이모도 이웃 사람도 전부 거들며 “그래. 너 주워 왔어.”, “내가 봤어.”, “나도 봤어.” 이러기 시작하면 아이는 더욱 흔들리며 이른바 ‘교량 밑 습득론(?)’을 진실이자 과학으로 믿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꼬마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결혼식 동영상에 왜 너는 없었는

지 물으면 온갖 그럴듯한 설명을 한다. 그때 화장실에 갔었다든지, 자고 있었다든지 등등... 왜 자신이 거기 존재할 수 없는지는 생각할 줄 모른다. 이런 수준으로 바람과 같은 인생의 한 지점을 살면서 뭐든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헛똑똑이의 교만이다.

그렇다고 유신진화론자들이 기독교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만만한 신앙인들이 아니다.

나는 거래하는 출판사 편집부로부터 출간 여부를 결정할 원고 자문 요청을 종종 받았는데, 과학적 난제나 논쟁적 신학의 주제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물론 나에게만 의견을 구해 결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제법 면밀히 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덕분에 그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올 뻔한 책들이 무산되거나 군소 업체로 가게 된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런 꾸준한 검증을 통해 다행히 그곳은 유신진화론이 틈타지 못하는 출판사로 자리를 잡았다.

내가 반대 의견을 낸 저자들에게 아무 감정이 없지만 종종 철저한 유신진화론 형태의 원고들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유신진화론을 신봉한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신실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지에 더 놀랐다. 상반되는 개념을 섞으려니 말이 장황하고 논리가 복잡한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경이 부정하는 진화론을 굳이 기독교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에 말문이 막혔다.

진화론자들의 우상인 리처드 도킨스는 신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외계 생명 기원설은 믿을 수 있다고 했다. 다윈 진화론에 의해 설명 가능한 과정이라면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류로 가득한 진화론은 유일한 신뢰의 통로다. 설명할 수 없고 증거가 없는 불가능한 방식이 진화론인데, 이것으로 설명 가능한 것만 믿겠다. 유신진화론자들이 하는 일도 이런 것이다.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규정한다.

찰스 다윈은 외계 같은 건 모르는 일종의 유신진화론자다. 생명의 생성이나 기원을 말한 적이 없고, 신에 의한 공통 조상 같은 씨앗을 시작으로 퍼져나간 생물학을 말했을 뿐이다. 더 좁은 체계인 다윈 과정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신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머리로 기독교를 ‘만들어진 신’으로 이해하고 단정하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은 성경과 상극이다

얼마 전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에게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유신진화론자들도 학계에서는 창조과학자들과 어차피 같은 학자들인데, 그들이 창조과학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수준이 진화론자들을 능가할 정도라 같은 교계에서 불쌍사나운 다툼을 벌일 수도 없고 해서 무척 난감하다는 이야기였다.

일부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조과학에 대한 공격과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의 적은 누구이며, 그들의 정체성은 대체 무엇인가?

‘안다’는 뜻의 영지주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1~3)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기록하던 때는 1세기 중후반이다. 사전적 의미로 영지주의는 1세기 후반에 태동해 한때 융성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영지주의는 앞

서 살펴본 대로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는 에덴동산부터 마귀에게서 전해 내려온 것이며 근대에 신지학의 형태로 나타난 뉴에이지 사상과 비슷하다. 뉴에이지 사상의 주요 강령에 '진화론'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 왜 과학을 빙자한 마귀의 길에 서는가? 마귀의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요이 1:7~8)

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설득당하는 자들은 당장 돌이키기를 바란다. 세상 학자들은 당신들의 선생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 창조라 쓰고 진화라 읽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화론의 뿌리인 균일론에 따라 같은 속도로 세상이 이어져 주님의 재림도 추상적인 암시이거나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여긴다(벧후 3:3~5).

믿음은 믿는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 신앙에는 과학이 필요 없다. 창조과학도 영터리 과학인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 잠시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도 믿고 진화론도 믿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자적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며 가르치려 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상 지혜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결국 참된 지혜는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고전 1:19)

유신진화론은 특정 부분의 성경을 부정하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들이 득세할수록 성경은 약화되고 참된 기독교는 무색해지며, 교회 생활은 근엄하고 우아한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그 효과가 온 교계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흥과 회복을 말한다 해도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유신진화론’은 결코 기독교와 섞일 수 없는 그릇된 사상임을 기억하자. ❸

유신진화론자 팀 켈러의 위험한 창조론

21세기의 C. S. 루이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폭 넓은 인기를 누리거나 호감을 얻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그것은 아마도 호불호가 적은 스타일에 대중성을 지닌 경우일 것이다. 가수나 배우나 어떤 문화 예술인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팀 켈러(Timothy Keller)

얻으려면 너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선호할 만한 활동을 해야 한다.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라면 어떻게? 큰 영향력을 지닌 채 교계 전반에서 인기를 얻는 사람은 대개 날선 이야기나 고집스러운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 모호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쪽의 지지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하기에 빌리 그레이엄이나 릭 워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다 그릇된 신학과 목회의 길을 걸었다.

이미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도입된 개신교에는 (개인적으로) 기대할 만한 신학자가 별로 없다. 물론 유명한 사람은 많다. 그들 중에서도 돈

보이는 사람이 팀 켈러(1950~2023) 목사다. 미국 리디머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는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수식어로 불릴 만큼 통찰력과 대중성을 지닌 저술가이면서 설교자이고, 많은 독자와 팬을 거느린 지도자였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등 베스트셀러도 무척 많고, 방한한 적도 있다.

팀 켈러는 유신진화론자다. 전형적으로 창세기 앞부분(1장과 2장)을 상징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서는 이런 생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성경적인 내용이라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

창세기 앞부분이 상징이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메시아 사상은 정면으로 반박된다. 첫 사람 아담이 신화이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신화가 된다(고전 15:45). 그런데도 유신진화론자들은 늘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구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모든 성경의 초자연적인 부분은 다 믿는다면서 창세기 앞부분은 못 믿겠다고 한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다 창세기 앞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은 왜 상징으로 주시고 다른 부분은 왜 사실과 역사로 주셨다는 것인가? 3장부터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2장까지의 아담과 이브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또한 아담은 족장으로서 그 수명까지 기록된(창 5:5) 분명한 인격체다.

이런 불건전한 사상에 담력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과학밖에 없다. 그것도 세상에서도 다 인정받지 못하는 진화론이라는 사이비 과학이다. 이 하찮은 가설을 인정하기 위해 애써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며 멋대로 재해석하고 재단한다. 그들은 여리고의 함락, 노아의 홍수를,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이적을,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가? 그것은 진화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그런 기적들도 다 설명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상징이나 신화적, 묵시적 서술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차마 그렇게 까지는 말할 용기가 없지만, 창세기 앞부분만은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에 함께 맞설 동지들이, 그것도 저명하고 내로라하는 석학과 신학자들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 팀 켈러 같은 사람은 든든한 뒷배경이 된다. 혼자만 창세기 앞부분을 부정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말한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켈러의 성경관과 과학관

〈크리스천투데이〉는 팀 켈러 사망 직전인 2023년 3월에 열린 기독교학술원 제41회 영성 포럼의 내용을 “팀 켈러, 창세기 1~2장 사실로 보지 않는 유신진화론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팀 켈러를 비판한 인사들의 발언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팀 켈러는 창세기 1~2장을 역사적 사건이 아닌 비유·풍유·시·문학으로 본다. 켈러는 바이오로고스 재단의 유신진화론을 수용,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 생각이나 관심사를 그들에게 덧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켈러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의 자연적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루) 24시간의 6일에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켈러의 관점은 구약 유대교 전통과 정통 복음주의 창세기 이해에서 벗어난다. -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

켈리의 문제 해법은 그의 문제의식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는다. 그는 신앙과 과학의 같등이라는 문제의 해법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론의 가설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불가능에 가깝다는 과학적 판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오류가 있는 진화 가설에 의지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교훈을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한다면, 결코 정당한 해법일 수 없다. 오히려 진화 가설을 붙들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정당한 신앙적 태도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진화의 같등은 피할 수 없고, 이 같등은 도리어 정당한 일이 된다.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병훈 교수

그런데 이런 포럼에 참석하는 분들 중 여러 명이 이쪽 분야에서 만난 분들이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쳐 가거나 아는 분들이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들 중에는 애매한 창조론자나 하이브리드 창조론자들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이들에 대해 잠깐 논해 본다.

창조론과 진화 가설의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면 직함과 전문 용어들에 압도되어 이쪽에서 주장하면 이쪽 사람 같고, 저쪽에서 주장하면 저쪽 사람이구나 하게 된다. 그런데 면밀하게 보면 교도소 담장을 건듯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 하나 마나 한 말속에 자기 고집을 숨기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유신진화론자를 창조와 진화 사이의 박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창조론과 유신진화론 사이의 박쥐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구분이 어렵다. 사람이 지지를 얻든 욕을 먹든 색깔이 분명해야 하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애매한 것은 역겨운 것이다. 주님도 이런 자들의 줄타기가 역겨워서 토하여 내고 싶다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계 3:16).

그들의 특징은, 창조를 믿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자 그대로 믿는 사

람들을 ‘문자주의’라고 비난한다. 이 선동이 적당히 먹혀들기 때문이다. 근본주의, 문자주의, 유일주의 등의 프레임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들은 또 성경이 말씀하는 짧은 연대를 믿지 않고 긴 연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진화론과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 모두를 무시하고 낫잡아 보기도 한다. 창조가 맞지만 창조과학자들의 수준은 믿을 수 없고, 자신들은 창조론자라고 온갖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유신진화론자는 아닌 척한다.

이런 분들의 강의도 들어 보고 질문도 해 봤지만 명쾌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다는 듯 문자주의를 탈피해 더 나은 창조론을 펼치자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모두짜기를 하면서도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비난받는 것은 싫은 사람들이다.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또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경고와 권면은 무시하면서 세상 과학자들의 조롱은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과 동행하기 위해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과 공존하고 동행하라고 말씀하실까?

팀 켈러는 과학 시대에 공존을 말하지만 과연 진화론이 지배하는 과학이 기독교의 정신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과학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탐구하는 귀중한 도구지만 세상에서 왜곡된 과학은 그 자체로 인본적이며 어떤 면에서 반역적인 것인데 말이다.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면 기독교의 신비를 바탕으로 한 신앙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과학이 하나님의 일들을 반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science)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딤후 6:20)

초자연성과 기적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거부하는 것이며 불완전한 내 눈과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 자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과 말씀 보존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성경을 점점 더 파괴하고 개악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그들의 경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팀 켈러는 어떤 책에서 예화로 외경도 인용한다. 그것이 성경 66권 중 하나가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은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예화는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외경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성경관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본 중에서 외경이 제외되고 지금의 66권이 추려졌지만 정경은 그 여러 사본들 중에서 사람이 묶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창세기 맨 앞의 두 장을 대하는 태도**다. 그의 저서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¹ 6장은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 낸 것 아닌가”라는 주제를 반박하고 있는데, 애매한 입장으로 전형적인 유신진화론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진화 과학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성경 설명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면충돌’이 전부라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1. 두란노, 원제 The reason for God(2017)



이 말부터가 진화를 과학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다. 진화는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며 과학을 참칭한 사이비다. 늘 말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과학 법칙이 다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신비로움의 근원이 우연 발생이며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비과학이므로 해설이 잘못된 상상이라는 뜻이다.

더러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자연선택을 이용하여 단순한 유기체가 온갖 복잡한 생물로 발전하게 이끌었다고 믿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진화 과정을 침해하지 않고 그 정점 역할을 한다.

아무리 가정법이지만 이런 관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인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팀 켈러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담고 있는데, 성경도 책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필요를 말한다. (시편은 시로, 누가 복음은 역사로 받아들이듯이) “역사적인 내러티브는 역사로 읽어야 하고, 시적인 심상은 은유로 살펴야 한다는 데는 독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장르를 쉽게 분간하기 어렵고 저자가 어떻게 읽히길 바라는지 선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들이다.”라고 바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크리스천, 심지어 영감을 ‘철석같이’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오가는 본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4장과 5장,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관계와 같은 부류라고 본다. 짝을 이루는 이 본문들에서 한 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다른 한 장은 그 일이 갖는 신화적인 의미를 예찬하는 시나 노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창세기 첫 1장은 역사라는 것인데, 또 말이 바뀐다.

창세기 1장 역시 시가의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담긴 의미와 놀라움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2장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는 설명이다.

창세기 1장도 시가의 속성을 지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설령 그렇다 해도 시가는 다 사실이 아닌 것을 추상적으로 그린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시편이 시가라고 해서 거기 등장하는 사건들이 비유이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현실에 없던 사람들이었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실제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생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한 생생한 역사다.

그러면 팀 켈러는 명백한 역사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6일 창조를 말씀하신 이 구절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십계명은 인정하는데 이 부분만 쏙 빼서 상징이나 시가적 요소라고 할 것인가?

이는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1)

또 그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믿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성경의 일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나머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논리다.

그러면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상징이나 신화나 예찬과 시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결국 믿어지는 것은 문자로 받아들이고, 믿기 어렵거나 소위 과학과 위배되는 것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역시 모든 것은 대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귀결된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있지만, 무신론자들이 만든 궁색한 진화론의 방법이 아니면 창조를 완성하실 능력은 안 되는 분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1장의 의미와 진화의 본질 양면에 걸쳐 제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세부 논의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창조는 세부 논의가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함께 했다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믿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요 1:1~3)

그런데 팀 켈러의 적은 팀 켈러 자신이다. 하나의 모순된 주장을 하면 또 다른 모순이 자신을 공격하기 마련이다. 그는 같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 성경의

기적들을 사실로 믿을 수 있다며 - 거짓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며 - 성경을 옹호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다”는 명언(?)처럼 팀 켈러의 창세기 1~2장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지만 창조는 이루어졌다는 식이다. “진화론은 받아들이지만 창조 신앙은 안 버렸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는 같은 책 7장의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서 성경 속 기적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 신앙에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걸려 비틀거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중략)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사건들과 가르침을 알고는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이들이 대다수다.

지금 비틀거리는 것은 누구 애길 하는 건가?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인가? 이 부분은 성경을 가리지 말고 다 신뢰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말이다. 6일 창조만 빼고 다른 기적은 다 사실이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재능과 카리스마가 있어도 하나님을 전 존재로,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성경의 일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나머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논리다.

앞 장에서 쓴 이 부분과 완전히 다른 논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

들이 넓은 스펙트럼으로 많은 이들의 인기를 얻는다. 유수 언론들은 그의 책을 칭송하고 베스트셀러로 올린다. 하지만 팀 켈러의 정체성은 그의 저서에 달린 화려한 기독교 리더들의 추천사로도 알 수 있다. 그중에는 빌리 그레이엄도 있다.

인기와 명성이 가리는 진리

세계적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선 안 된다. 그들의 명성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 리처드 도킨스가 그 정도로 저명하지 않았다면 그의 궤변이 지금처럼 통했을까? 찰스 다윈은 자기 논리에 자신이 없어서 20여 년이나 <종의 기원>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를 만나고 난 뒤에야 공동 발표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에 스스로도 놀랐다. 궤변에 대한 담력이란 동조자와 추종자가 생길 때 커지는 법이다.

설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전한 진리에 열광할 날이 올까? 진리는 큰 인기를 얻기 어렵고, 늘 모함받으며 왕따당하기 마련이다. 진리는 불편하다. 근본적인 것을 사수하면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사회적 매장과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면 어리석은 고집불통, 시대에 뒤떨어지는 자로 조롱당한다. 편리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사람의 존경과 사랑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사람이 져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죄에서 건짐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함께 천국까지 누리게 된 자들이 땅의 영광과 칭찬과 박수갈채까지 받으려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음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훼방하는 무리와 끝없이 싸우셨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위선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분의 계획을 부인했기 때문이었다.

팀 켈러의 통찰력이나 저술은 대부분 탁월하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많은 이들을 실족시키면 헛일이다. 엄청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어도 자기가 가는 곳이 낭떠러지이면 그 많은 이들을 자기 영향력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일에서 수고해 놓고도 명분 없는 세습, 물질적 성적 타락 등으로 자기 업적을 안고 추락해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큰 지도자의 추락은 후유증이 크다.

팀 켈러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이미 사망했지만 그 위험성은 더 클지도 모른다.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위험에 많은 이들이 중독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옳은 말이어도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면 죽는 줄 모르고 죽어 갈 수도 있다. 차를 망가뜨리는 가짜 휘발유는 대부분의 진짜 휘발유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성경 불신자로 만드는 것은 화려한 통찰력에 섞인 유물론적 과학 숭배이며, 그런 위험에 눈을 가리는 것은 그의 외모, 즉 명성이다. 그러나 그 명성은 동시대 크리스천들의 추앙과 열광이 만든 것이니 유구무언이요, 창조 신앙이 저물어가는 이 시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❸

신학대학 교수 징계 시도와 유신진화론 논란

한 번은 겪어야 할 예정된 논란

2024년 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서울신대(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A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를 시도한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 6월 4일, 징계위원회는 A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반드시 한 번은 터질 일이었고, 변화하는 기독교의 단면을 보여 주는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보니 2017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포항공대 교수를 임명했을 때, 그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라는 사실과 그의 성경적 믿음을 두고 마녀사냥 수준의 비판이 일었던 일이 겹쳐 보인다. 그러나 그때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믿음을 문제로 삼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였다면 이번에는 유신진화론을 믿는 교수를 신학교가 징계하려는 시도라서 성격이 다르고, 직무 관련성도 확연하다.



CTS

유신진화론을 믿는 교수가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나는 처음에 이 뉴스를 얼핏 보고, 창조과학자를 탄압하는 기사인 줄 알았다. 워낙 많이 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에서 유신진화론을 공식 반대하는 신학대학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부천). 출처 : 더미션

이 사건은 학교가 유신진화론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지만, 이런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슈가 된다는 면에서는 신학대학들의 창조 신학 붕괴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현대적인 번역의 영어 성경들이 나오고, 풀러신학교 등 미국의 기라성 같은 신학교들이 하나 둘 성경의 무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주의로 무너져 간 일을 떠올리게 한다.

기독교 대학의 생물학 교수들도 일반 대학들보다는 그 수치가 낮지만 상당수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1907년부터 발행한 미국 칼빈대학의 공식 학생신문 차임스 매거진이 북미 지역 150개 대학 포함, 세계의 기독교 대학 185개 이상으로 구성된 기독교대학협의회(CCCU) 생물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63%의 교수가 진화론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고, 37%만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¹

1. 기독교 대학 교수들의 대부분은 창조가 아닌, 진화를 가르친다. - 제리 버그만, 한국창조과학회

하지만 이는 여러 이유로 회신을 받지 못한, 응답률 23%에 불과한 불완전한 조사였다고 하니, 응답 없는 77%는 조사 기관의 특성상 아무래도 진화론에 더 가까운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서울신대는 생물학과가 아니라 신학과의 문제지만, 세계 기독교 대학교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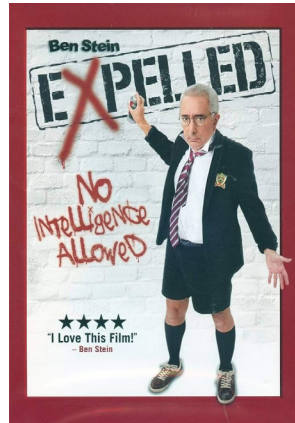
진화론 같은 비논리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학문을 받아들이는 교수를 신학대학에서 용납한다는 것이 과거였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러나 이미 그런 사람들이 대학가에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반갑기도 하면서 더 놀랍다는 것이다. 징계 조치 자체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확고한 입장을 지닌 신학교가 존재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신선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유신진화론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 진화론보다는 낫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유신진화론자들은 무신 진화론자들보다 더욱 창조론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자신들이 더 나은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이며, 더 포용적이고 개념 있는 체한다. 성경을 떠나서 일반 과학으로도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가설인데, 세력이 커지자 아예 교계를 접수하려 드는 실정이다. 유신진화론은 적군보다 더 위협이 큰 존재로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서울신대의 징계에 무조건 박수를 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도 보장하시는 부분이고, 누가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식의 징계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보복이 일어날 수 있고, 사상 검열 수준의 일들이 칼자루를 쥔 사람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다. 이미 이번 조치가 횡포로 비쳐, 많은 여론은 징계를 받은 교수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기보다는 징계 자체를 강자의 억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추방 : 허용되지 않은 지성〉(2008)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의 진화학계에서 창조론이나 창조과학에 이득이 될 만한 증거를 연구하려는 학자를

보이콧하는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설령 어떤 교수가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연구하려고 해도 그 방향이 진화를 부정하거나 진화론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면 연구비 삭감 등으로 손발을 자른다.² 역으로 이런 일을 교계에서 쉽게 행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반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추방(Expelled)>

신학대학은 진리의 마지노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일괄 적용할 수 없는 때가 있다. 바로 그 연구 기관이나 학교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표방하는가가 문제일 경우다. 과학은 사실 그대로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므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데도 배척하는 진화 학계의 태도는 횡포가 분명하다. 그러나 실험 과학이 아닌 기원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므로 신학대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교수를 대하는 입장은 그 종류가 다르다.

늘 말하지만 진화론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다 진화론이다. 진화를 인정하기 때문인데, 이는 성경과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유신+진화론’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모순적 개념이다.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을 장차 한국 교회의 성도와 청소년을 가르칠 목회자로 길러 내는 것은 신학교의 직무유기다. 진보적 기독교 매체들과 대부분의 일반 언론들이 학교의 조치를 비판 일변도로 다뤘는데, 학교 측 반론은 마지못해 약간 소개하는 정도지만, 다음 해명으로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2. 110~111쪽 참고.

학교 쪽은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신학대 이사장은 “일반 대학에서는 유신진화론을 가르쳐도 되지만, 목회자를 길러 내는 신학대학에서 유신진화론을 가르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교수 임용 때도 교단 신학에 따르겠다고 서약했으니 약속 파기”라고 밝혔다.

자, 어떤 일반 대학에서 자기 신념대로 창조론을 가르치겠다는 교수가 나오면 교수의 소신으로 용납할 것인가?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신학대학은 진화론을 용납하라는 것인가? 직무 관련성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조를 믿는다고 트집을 잡던 언론이 왜 교육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대학의 일을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인가. 해당 교수의 강의가 얼마나 그런 문제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을 신학대학이 용납하는 것은 더 큰 논란거리일 수도 있다. 학교는 설립 취지와 신념에 따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왜 개인의 생각을 제한하느냐는 항변이 가능하고 타당하지만, 그 신념을 개인으로 갖는 것과 교수 자격으로 갖는 것은 다르다.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커도 공적인 입장에서 학교와 교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많은 뉴스가 이 사건을 각자의 시각으로 보도했고, 많은 인사들이 기자 회견과 성명 발표 등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A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학교 측이 학문적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규탄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A 교수가 창조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은) “A 교수의 주장은 하나님은 오로지 자연 진화를 통해 창조하며 이는 자연선택, 약육강식, 중간 대진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며,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개입하지 않고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며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속의 신학적 교리들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며 신학적인 입장도 밝혔다.

특히 “A 교수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창조의 순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조 기사의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단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A 교수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파워

과학에 무지하고, 성경에 무관심한 결과

이번 논쟁은 물론 단순히 창조-진화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체 과정을 보면 학교 측의 징계는 너무 늦게 논의가 된 측면이 있고, 세력 다툼이나 감정적 충돌에 학생 모집 등 이권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차피 터질 논쟁이었다. 이런 논쟁을 계기로 창조 신앙이 보수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널리 퍼진 유신진화론이지만 앞으로 더욱 그 영역은 커질 것이다.

그나마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갖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진화는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잘못 아는 일이다. 서울신대의 한 은퇴 교수가 쓴 입장문 중 한 대목을 보면, 그 무지에 기가 막힐 정도다.



서울신대 A 교수 징계의결 철회 요구 공동 기자회견. 출처: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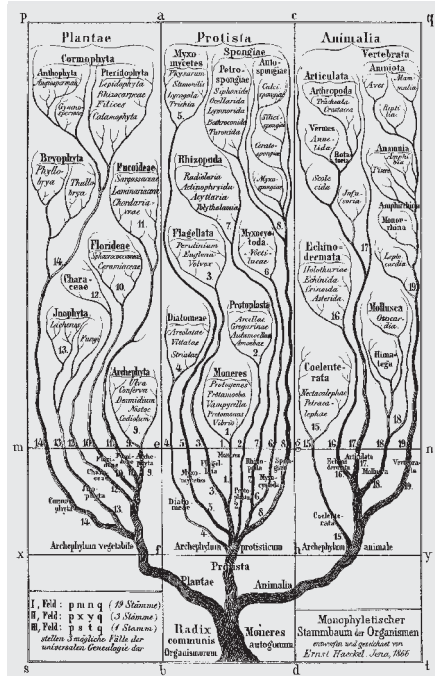
과학적 사실로 확인된 진화 현상을 부정해도 좋은가? 비록 진화론도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지만, 진화라는 현상 자체는 더는 논박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종간의 진화 현상은 단 하나도 유효하게 입증되거나 확인된 적이 없다!! 저런 주장은 대부분 다양화에 대한 관측이다. 생물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류대로, 종 안에서 다양성을 띠는 것이다. 한 씨앗에서 큰 나무처럼 다양한 종으로 뻗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처럼 여러 나무들이 각자 자기 나무 안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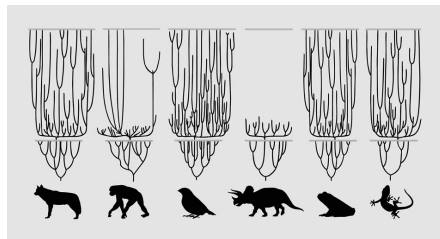
한 공통 조상이 모든 생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섞일 수 없는 각 종이 그 안에서 분화, 즉 다양화한 것이다. 사람을 보라. 그토록 다양한 모습과 피부색과 특징을 보이지만 딱 한 종류다. 곤충이나 짐승들도 다른 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배가 가능하지도 않다.

학문의 자유나 다른 견해에 대한 포용성을 말하기 전에 창조와 진화는 공존할 수도, 둘 다 믿을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사실이면 다른 한쪽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는 했지만 진화적 방법으로 한 것을 창세기가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박쥐같은 논리다.

왜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가? 내 삶에 도움을 주고, 천국도 보내 주는 존재는 필요한데, 내가 굴복하기는 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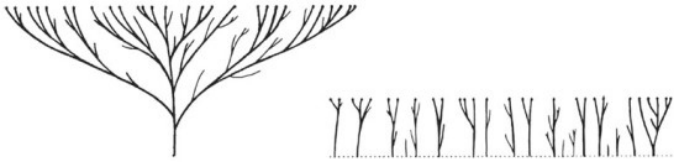


(나무 모델) 에른스트 헤켈이 그린 공통 조상이 뻗어간 생명의 나무. 찰스 다윈이 종 안에서 서로 넘나들지 않는 선을 좌우로 연결하며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 진화론이다.



(과수원 모델) 각 생물은 종 안에서만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이다.

은 신, 세상 불신자들이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학문으로 성경을 재단할 정도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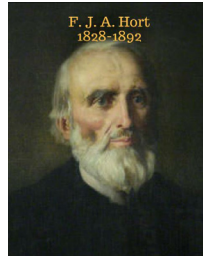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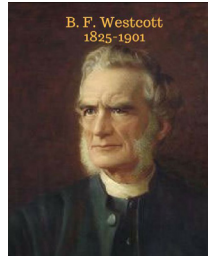


반드시 기억할 그림. 나무 모델(진화론)과 과수원 모델(창조론).

참고 거추장스러운 신을 빗하러 굳이 붙잡고 있다. 그 길은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길, 과학 만능주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지 전능을 부정하며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니 그들의 행동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 넓은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어찌 이렇게 빨리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계에서 이런 일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그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이 모두가 성경이 사람의 기록이니 재평가하고, 비평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 겠다며 단어를 빼고, 더하고, 변개하며 성경의 무오성을 무너뜨린 자들의 열매라 할 것이다. 여기서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로 신약 성경을 파괴한 두 학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심령학회 회원이거나 공산주의 옹호자 등으로 그리스어(헬라이어)에는 능통했지만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학자들이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아담의 타락도 영국 시인 코울릿지가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것은 찰스 다윈의 책이요. 그 책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호르트가 J. 엘러톤과 동료들에게 보낸 말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세 장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라는 단어를 부인하오.”

-웨스트코트가 호르트 등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과학이 아니다. 이 싸움은 말씀의 진리와 믿음의 문제다. 오늘날도 이런 식자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신앙을 말하며 기독교계를 떠나지 않고 언저리를 맴도는 자들이 느끼는 강렬한 유혹이 바로 동산에서 이브를 도발한 뱀의 유혹이다. 그 옛 뱀 마귀는 끝없이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묻고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를 마쳤노라고 하시더냐?

대답은 각자 하나님 앞에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판단과 진짜 징계는 대학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다. ☉



처음 창조과학 책을 쓴 것은 2009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청소년용 도서에 이어 어린이용 도서도 출간을 했고, 이런 책들은 그전만큼은 아니어도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책들을 낸 지 10년이 좀 넘었을 시점에 한 대학생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의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창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보니 진화가 과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들도 합리적으로 과학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는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아마도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진화론 배경의 과학 교과서와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다큐와 은연중에 나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생각을 당당하게 교계에서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무래도 진화론을 인정하는 목회자들과 스마트해 보이는 크리스천 학자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웹툰조차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서 성경과 진화론을 섞어 지적인 욕구 안에서 신앙적 타협을 유도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기도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는 그런 결론 속에서 어릴 때 본 창조과학 책은 그저 성경 이야기 동화책처럼, 아직 어리니까 읽는 교훈 정도로 여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몇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온전히 밝혀진 것이 하나

도 없는 진화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며, 예수님은 믿지만 말씀으로 완성하신 특별 창조를 불신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걸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다른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 학생같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간곡한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 1:1)

모든 믿음은 어찌면 이 한 구절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섭리와 숨씨로 이 신비로운 삼라만상을 이루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모두 나타나 있고, 그것은 도저히 조작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단어가 단어를,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고 적은 것들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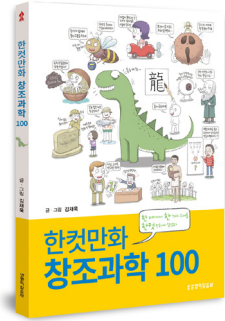
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과학의 잣대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교만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때 만물에 새기신 그분의 서명이 생생하고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한컷만화 창조과학 100

공룡과 화석, 노아의 홍수, 창조의 증거와 진화론의 오류 등 한 페이지마다 한 가지 주제를 한 컷의 그림과 짧은 글로 간결하게 설명한 책

- 김재욱 글·그림/ 11,000원/ 생명의말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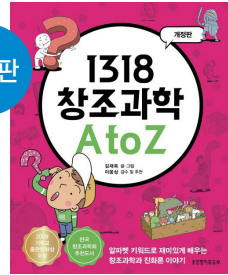


1318 창조과학 A to Z

알파벳 키워드 26개로 알아보는 청소년과 남녀노소를 위한 재미있는 창조과학과 진화론 이야기. 한국창조과학회 추천 도서, 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

- 김재욱 글·그림/ 16,000원/ 생명의말씀사

개정판



개정판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 김재욱 글·그림/ 15,000원/ 생명의말씀사
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2

- 김재욱 글·그림/ 14,000원/ 생명의말씀사

내가 왜 믿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쉽고 명쾌한 대답 10가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책

- 김재욱 지음/ 15,000원/ 생명의말씀사

개정판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츠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운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는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지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들의 짐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곁이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설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티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짚은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담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설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교회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침 등 중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거짓 과학 진화론 다른 복음 유신진화론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3부 유신진화론 비판'에서는 유신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신학적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비평했습니다. 나아가, 복음주의자라고 하지만 유신진화론을 믿고 지지하는 대표적인 목회자와 학자들을 통렬하게 비평했는데, 신실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 한윤봉 교수(한국창조과학회 7대 회장, 세계 100대 과학자)

여기 김재욱 작가의 신선한 바람을 맞아보십시오. 그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자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며, 평신도들의 의구심으로 생긴 목마름을 시원한 여름 빙수처럼 날날이 풀어 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정독해서 진화론에 대처해야 하며 나아가 이 상식을 모아 지혜롭게 전도에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 김승학 장로(전 사위대 왕실 한방주치의, 딸기나무 1, 2 저자)

하나님을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과 그에 대한 해석을 계속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낱알이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과학주의 역시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거짓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이종현 교수(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100% 창조론과 100% 진화론을 사이에 두고 시소를 타는 듯한 유신진화론의 사상적 돌연변이의 오류를 들추어내는 글의 행간에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 과학을 위한 필독서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한 필독서로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세계관 정립을 위한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는 교양서임을 밝히며 추천한다. - 김오현 (사) 교진추 연구소장(총신대학교 외래 교수)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Bible believer)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책에 손을 얹어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를 드러내는 귀중한 말씀의 검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정동수 목사(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랑침례교회 목사)



KEEP BIBLE
무료 PDF 책



김재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창조론
비매품